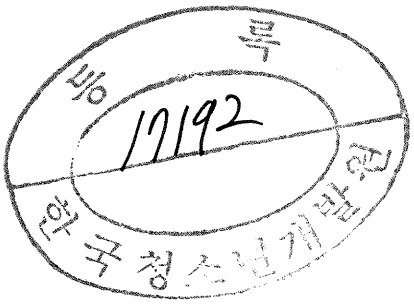
아동 · 청소년의 사회화

저 자 가토와키 아쯔시(門脇厚司)
역 자 김 득 영 · 박 현 정



한국청소년개발원

KODOMO NO SHAKAIRYOKU
by Atsushi Kadowaki
Originally published in Japanese in 1999 by Iwanami Shoten,
Publishers, Tokyo.
This Korean language edition published in Seoul
by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Seoul
by arrangement with the author c/o Iwanami Shoten, Publishers, Tokyo.

목 차

발 간 사 i

역자 서문 iii

저자 서문 v

제1장 청소년의 성장에 어떠한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가? 1

1. 사회화와 사회화 이변 3
2. 초어의 지연과 발육의 혼란 4
3. 활동량의 저하가 초래하는 무기력화 7
4. 극히 보통아의 자폐증아화 12
5. 확산되고 있는 인간거부 18

제2장 사회를 성립시키는 인간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29

1. 의존 관계로서의 사회와 인간 32
2. 사회적 상호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 35
3. 재인식되는 인간의 사회적 특성 44
4. 사회력이란 무엇인가 49
5. 사회력의 쇠약이 불러일으키는 사회 위기 56

제3장 사람의 사회력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61

1. 고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64

2. 신생아가 가지고 있는 상호행위능력 69
3. 사회력의 기반이 형성되는 메커니즘 78
4. 사회적 원기가 형성되지 못한 아동의 사례 92

제4장 청소년의 생육환경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101

1. 변화된 가정환경과 가족기능 104
2. 상실된 지역의 커뮤니티 기능 111
3. 공동성을 실추시킨 학교생활 114
4. 사람의 배제가 진행되는 생활공간 120

제5장 청소년의 사회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125

1.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128
2. 양육하는 어른의 책임은 무엇인가 133
3. 가정과 지역, 어른의 책임 137
4. 지역의 아이는 지역에서 키우자 143
5. 지역활동의 거점으로서의 모험 놀이터 153

저자 후기 164

참고 문헌 168

발 간 사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잠재능력 개발, 그리고 청소년의 능동적인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 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정부의 청소년육성관련 정책개발과 시행·보급을 위한 기초연구, 자문 및 분석·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육성사업의 방향설정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은 한 나라가 청소년을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좌우됩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체로서 사회 각 분야에 참여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지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몫입니다. 그동안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적인 노력은 있었으나 세분화되고, 심층적이며, 종합적인 접근과 논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분야의 전문서적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많은 편이 아닙니다. 청소년 연구자, 교사, 학부모, 그리고 대학원생, 학부생들의 청소년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집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 책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육성과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엄선하여 번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독일, 미국, 필리핀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책을 번역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 교육사회학자가 본 인간발달 과업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과 관련하여 잘 정리된 책입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발간되는 문고들이 청소년관련 모든 종사자들에게 많이 읽혀져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적인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문고집 발간을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번역을 맡아주신 일본 기후한국교육원장인 김득영 박사와 나고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김현정 선생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이 책을 발간하여준 교육과학사 김동규 사장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우면동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권 이 종

역자 서문

어느 나라든 청소년이 건강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밝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건강하게 숨쉴 공간과 기회를 우리는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가? 청소년이 자연과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모험과 탐험 그리고 체험 활동 프로그램 등은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가? 과연 통일시대의 한반도의 주역으로 키우고 있는가?

인생을 18세에 결정짓는 학력주의 사회, 그것을 신화처럼 신봉하는 사회분위기 등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시들어가고 있다. 정상적으로 익히고 배워야할 기본적인 상식과 규범 그리고 질서 등을 놓치고 오직 수험에만 매달리고 있다.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제도는 얼마나 활성화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교육의 전통에 따라 나름대로 교육력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핵가족화, 도시화, 정보화 등의 사회적 변화와 학교 교육의 붕괴 등으로 가정·학교·사회의 청소년 교육 환경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잘 놀지도 못하고, 인간이나 자연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도 잘 모르고, 올바른 식 습관도 형성되지 못한 채 성장하고 있다. 자연과 사회체험을 통해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봉사심과 사회정의도 배우게 되는데 놀 공간도 놀 시간도 없어 무엇인가 부족한 청소년으로 크고 있다. 청소년시기에 사람들과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인간이나 자연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기보다 게임기나 컴퓨터 등과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또한 자연식보다 인스턴트식에 익숙한 식습관도 문제이다.

청소년 교육을 학교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의 사회력과 학습력을 키우고 돕는 시스템 만들기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원리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역자는 2001년부터 일본 중부 4개현의 재일동포 민족교육을 위해 파견되었다. 현지에서 본 일본 청소년 비행의 저연령화·흉폭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매우 다양한 기관과 지역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기회제공 및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학교등교 거부 학생이 13만 명이나 되는 등의 문제를 한국에 어떻게 알릴까 생각해 왔다.

2003년 8월12일 일본동경청소년올림픽기념총합센터에서 한일 양국의 청소년문제와 대책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한국측 청소년 교육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서 한국청소년개발원장 권이종 박사의 발표가 있었다. 일본측 대표로는 올림픽청소년기념총합센터의 이토과장의 발표가 있었다. 그 때 한일양국의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면서 일본의 청소년교육의 대표적인 학자를 소개받았다. 그 학자가 바로 이 책의 저자인 카도와키 아쯔시 교수이다. 그는 2004년 3월 쯔꾸바 대학에서 정년하고, 4월에 쯔꾸바 여자대학의 학장으로 자리를 옮겨 일본의 청소년교육에 진력하고 있다. 그의 일본 청소년교육의 진단과 처방을 찾는 학문적 탐구심 및 성과가 우리나라의 청소년 관계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 청소년의 성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제2장에서 사회를 성립시키는 인간의 조건이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다. 제3장에서 인간의 사회력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제4장에서 청소년의 생육환경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제5장 청소년의 사회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끝으로 본 역서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쯔꾸바 대학 카도와키 아쯔시 선생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빛을 보게 해 주신 한국청소년개발원 원장 권이종 박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04년 2월

일본 기후한국교육원장 김득영

저자 서문

최근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다느니, 요즈음의 청소년들은 변했다느니 하는 것이 어른들 사이에서 심각한 화제가 되어 공통 인식이 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그 시기를 분명히 몇 년부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근의 영유아나 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이고, 청소년이 변했다는 내용 또한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어디가 어떻게 변한 것인지를 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의 어디인가가, 무엇인가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어른들의 머리 속에 입력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경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젊은 세대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겠지만, 1980년 카와사키시(川崎市)에 사는 대학수험생이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금속 방망이로 살해한 양친 참살사건이 있었던 해이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부모와 아이의 사이에 다양한 알력이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푹 잠들고 있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금속 방망이로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준 충격은 큰 것이었다.

그 당시는 소년 범죄건수가 전후(戰後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이후) 제3피크를 향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던 때로 과열 수험경쟁의 폐해가 교내폭력이나 가정내 폭력이 되어서 나타났던 시기이다. 게다가, 살해된 부친이 일류기업의 엘리트 샐러리맨이며,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중류가정이었던 것이 한층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복한 가정의 청소년이 어째서 자신의 부모를 죽인 것일까라는 의심을 증폭시켰다. 더욱이 최근의 청소년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강한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것으로부터 3년 후 1983년 2월에 요코하마시(横浜市) 야마시타(山

下) 공원에서, 시내의 중학생 5명을 포함하는 14세부터 16세까지의 소년 10명이 공원에서 자고 있었던 홈리스(浮浪者)를 괴롭혀 죽인 쇼킹한 사건이 일어났다. 체포후의 진술에서 드러난 것이지만, 그들은 부랑자를 인간이 아니고 검은 쓰레기 덩어리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오물을 처리해 준"것이 어째서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의 신문기사를 보았을 때, 나는 지금의 일본의 사회에 태어나 거기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분명히 무엇인가가 변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변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차분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어린이를 다시 생각하는 노트(こども再攷ノート)』를 작성했다.『어린이를 다시 생각하는 노트』라고 해도 그 내용은 A4의 전면 노트에 아동과 청년을 둘러싼 다양하고 신기한 현상이나 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를 보고한 신문기사라든가, 학교나 가정이나 길거리에서 청소년이 발생한 사건의 신문기사를 무작위로 붙이고, 여백에 내 식대로의 견해나 해석을 메모한 것이지만, 최신의 노트가 지금 24권째가 되고 있다.

이러한 노트를 만들면서 지금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면, 타인에의 관심과 애착 그리고 신뢰감을 잃어 가는 것이며, 자신이 평소 생활하고 있는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자신의 몸으로 실감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닐까하는 견해였다. 나는 이러한 변화를 '다른 사람과 현실의 상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다소의 설명도 해 왔다.(『아이와 젊은이의 다른 세상(子供と若者の異界)』. 그러나, 지금까지 해 온 설명은 영유아나 청소년들의 언행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현상 바로 그것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왜, 지금, 일본에서 그러한 언동(言動)이 젊은 세대에 뻗쳐 있는 것인지, 그 자세한 메커니즘(mechanism)을 사회의 변용과 대응시키는 모양에서 설명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전공하고 있는 학문영역은 교육사회학이라는 사회학의 한 분야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사회학의 강좌나 수업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교수는 대학의 교육학부에 소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사회학은 교육학의 한 분야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것으로 구미 제국 등에서는 물론 사회학의 한 영역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그 때문에 당연한 것이면서, 교육사회학자 자신도 교육학자라고 하는 것 보다 사회학자라고 하는 자각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사회학자도 심정적으로는 여러 외국의 연구자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자신도 그러한 의식이 강하다.

약간 본서의 주제와 관계없는 것을 이야기 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하면, 최근의 우리나라의 청소년에게서 볼 수 있는 변화는 사회학자의 눈으로 보면, '사회적 인간으로서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점점 강하게 갖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의 관심이나 애착이나 신뢰감이 없고, 자신이 사는 생활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릴 수 없다는 것은 사회를 만들고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인가를 잃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것은 '사회성의 결여'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중앙교육심의회의 답신을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최근의 젊은이는 사회에 적응하는 자질이나 구체적인 노하우(know-how)를 몸에 익히지 않고 있다!"라는 한탄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비탄이나 설교는 사회학자인 내가 걱정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갈파한 사람은 그리스(Greece)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이다. 그가 이러한 표현을 한 이래 사회학자뿐만이 아니라, 인간이나 인간 사회를 고찰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것을 전제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한번의 의심도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사회학의 수많은 이론마저도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것을 암묵의

전제로서 구축하고 있다. 사회 바로 그것이 성립되는 다양한 조건을 고찰하는 사회철학자마저도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인간으로서 태어난 자라면 누구라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특성을 몸에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까? 현대의 우리나라에 태어난 아이들도 지극히 자연히 사회적 자질을 갖춘 사회적 동물로서 성장하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까? 편안하게 자고 있는 자신의 부모를 야구 방망이(bat)로 살해한 청소년이나, 공원에서 노숙하고 있던 홈리스(homeless)를 검은 오물로서 처리한 소년들에게 사회적 동물이 될 가치 있는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도대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어떠한 자질이나 능력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러한 자질이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자질 능력을 인간은 어떻게 해서 몸에 익히는 것일까? 유전자를 통해서 선천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학습에 의해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것인가? 만약에 후천적으로 몸에 익혀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청소년의 신체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 것에 배양되는 것일까? 어떤 부분이 순조롭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한 것인가? 환경의 어떤 측면이 생체기능의 어디와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 것에 사회적 동물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이 형성되는 것인가? 연령적으로 그 시기는 언제인가. 사회적 자질이 형성되는 과정에 연령적으로 몇 단계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생각을 정리해 가면, 조사하고 확인해야 할 의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고, 그런 종류의 제목의 논문이나 서적을 찾아 읽어보면, 안타깝게도 알고 싶은 것이 잘 설명된 연구나 문헌은 의외로 그다지 없었다. 결국, 마지막으로 스스로 해답을 조립해 갈 수밖에 없어서, 발달심리학자나 뇌 생리학자, 동물행동학자들이 해 온 연구를 단서로 추론을 거듭해 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선행의 의문에 대한 나대로의 해답을 낸 내용이 본서의 중핵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형성되어 가는 메커니즘(mechanism)에 관한 사회학자에 의한 이론의 제시가 될 것이다. (그 때문에, 본문 중에서는 많은 문헌을 이용하고 있지만, 권말의 「참고문헌」 일람에서는 출판사명을 생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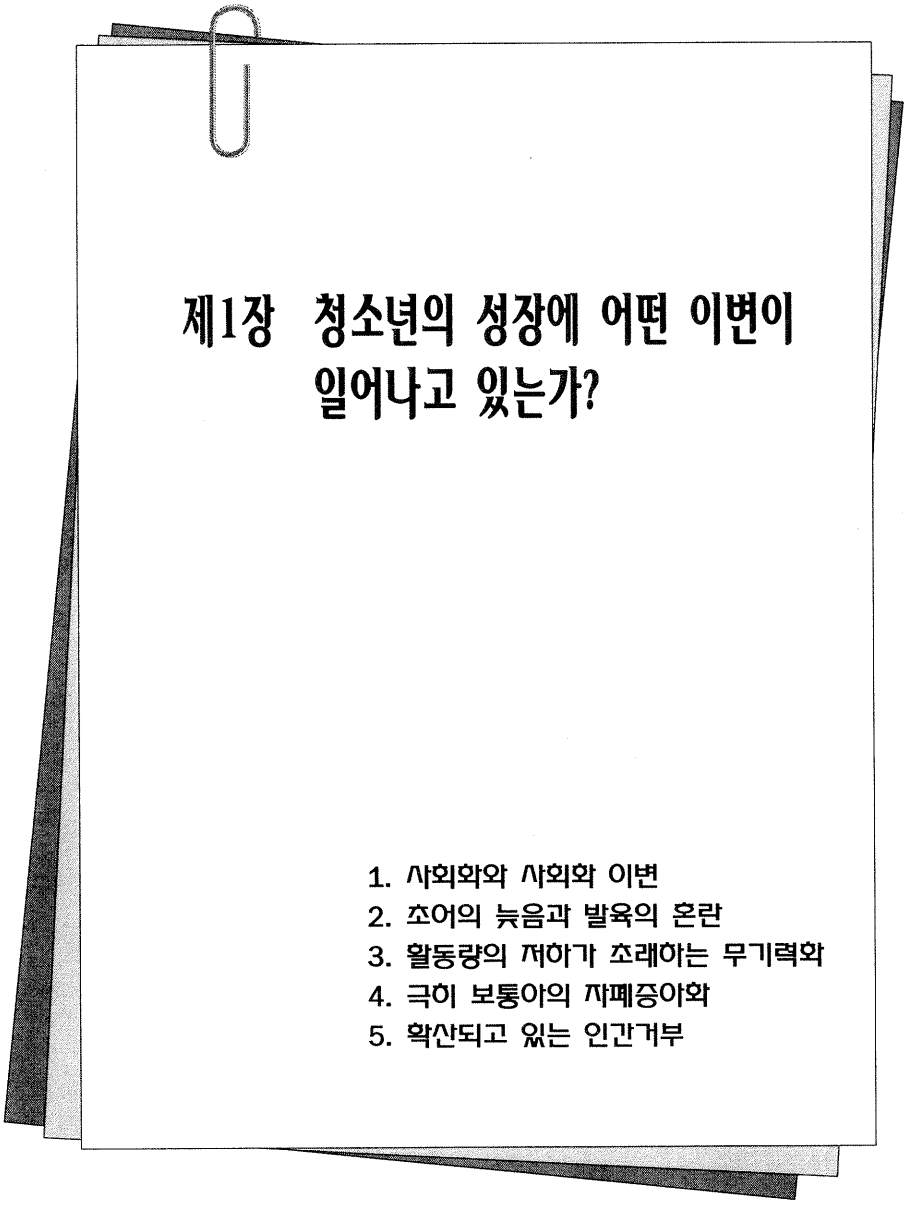
본서에서 나는 사회적 동물 내지는 사회적 존재에 어울린 인간의 자질능력을 '사회력'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지금은 심리학의 전문 용어가 되고 있는 듯한 '사회성'의 용어가, 이미 있는 사회에 개인으로서 적응하는 측면에 중점을 둔 개념인데 대해서, 본서에서 사용하는 사회력은 하나의 사회를 만들고 그 사회를 유지하고 운영해 가는 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용어를 만들어 쓰려고 한 것은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사회의 적응력이라기 보다, 자기의 의사(意思)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의욕과 그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는데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질능력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 것인가, 만약 이러한 자질능력이 젊은 세대에 충분히 배양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원인인가?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러한 인식이 공유되는 것에 의해 비로소 사회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우리들 어른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될 지에 대해서도 합의(consensus)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외치는 '사는 힘'은 본서에서 말하는 '사회력'에 포함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사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와 지역이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의 설명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성의 함양이 강조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부모나 교사들이 자신의 책임으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당사자들이 다양한 설에 귀를 기울여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있지 않는가?

교육사회학자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형성되어 가는 메커니즘(mechanism)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동시에 인간을 인간으로서 성장시켜 가는 환경 만들기나 조건정비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갖는다. 그런 이유로 본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전반부에서 제시한 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사회력을 보다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들 어른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견을 내 놓았다. 아울러 읽어 주길 바란다.

본서의 내용이 많은 독자에 의해 이해되어 그 것이 젊은 세대에 대한 어른들의 생각과 방법의 변화로 연결된다면, 저자로서 더 이상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로 젊은 세대의 건전한 교육환경으로 연결되고, 그 것이 우리사회가 충분한 활력을 유지하고 발전해 가는 것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제1장 청소년의 성장에 어떤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가?

1. 사회화와 사회화 이변
2. 초어의 늦음과 발육의 혼란
3. 활동량의 저하가 초래하는 무기력화
4. 극히 보통아의 자폐증아화
5. 확산되고 있는 인간거부

제 1 장 청소년의 성장에 어떠한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가?

1. 사회화와 사회화 이변

어떤 사회이든 그 사회에서 태어난 청소년은 건전한 사회성원이 되도록 교육받게 된다. 청소년이 사회의 성원으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사회학에서는 사회화라고 한다. 사회화의 과정에서 습득하는 내용은, 그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습득과 상황에 따른 행동요령을 몸에 익히고, 그 사회가 가진 선악 기준과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 등이다. 청소년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그 사회의 성원, 즉 어른들이다. 그 때문에 청소년이 자신들의 사회화를 도와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어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의미의 말을 쓰게 되면, 그는 사회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사회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기성세대인 어른들이 후속세대인 젊은 세대에게 위화감을 느낀다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탄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사회화가 항상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 사회가 급변하는 시대에는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어른 세대가 보수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취하는데 비하여 젊은 세대는 혁신적인 행동을 취하며, 어른에게 반항하려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회가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향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가치관 등에 있어 세대간에 단계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혁신적이라는 것은 사회 발전에 있어서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지금 일본에서 최근 20-30년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

것과는 전혀 다른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세대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고 하기 보다 기성세대에게는 전혀 새롭고, 게다가 기이하기까지 한 현상이 젊은 세대 사이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지금까지 겪어 온 경험이나 발상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언행이 청소년들 사이에 나타났으며,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고도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청소년이 성장하는 환경이 단시간에 격변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에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또, 그런 이변(異變)이 일어나는 것은 청소년의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일까? 젊은 세대 사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기이한 사태의 근저에 공통적인 중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본 장에서는, 우선 이러한 관심을 기초로 사회화 이변이라고 생각되는 현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신생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사회화 이변은 태어난 아기가 놓여지게 되는 환경의 격변이나 아기에 대한 어른의 대응 방법의 변화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초어(初語)의 지연과 발육의 혼란

1) 감소하는 어머니어(母親語)

'어머니어(母親語)'라는 단어는 아직 생소한 말이다. 어머니어의 존재를 실증한 동물행동학자 마사타카 노부오(正高信男)에 따르면, 일본에서 일컫는 어머니어란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찰스 퍼거슨(Charls Ferguson) 교수가 만들어 낸 신조어인, 'motherness'를 마사타카(正高)가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한다 (마사타카 노부오(正高信男) 『0세

아이가 말을 획득할 때』). 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 퍼거슨 교수가 실시한 조사는 여섯 개의 각기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 어머니가 아기에게 사용하는 말을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어느 언어 문화권에 있어서도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을 걸때에는 공통된 특질이 있다는 것이다. 어머니어의 특질은, 어른이 아기에게 말을 걸때에 ① 평소보다 높은 목소리를 낸다 ② 동시에 목소리의 억양을 과장한다는 것이다.

마사타카(正高)가 실증한 것은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 일본인 사이에서도, 어머니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어는 음성에 대한 영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어머니가 내는 음성을 모방하도록 촉진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수유시의 젖꼭지를 빠는 동작을 통해서 생후 2주의 영아는 이미 훌륭히 어머니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냈으며, 생후 4개월 된 영아는 옹아리(cooing)라고 하는 의미불명의 음성을 냄으로써, 어머니가 하는 말을 모방하기 시작한다는 사실도, 끈기 있는 실험에 의해 증명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영아는 이미 1세 전후에 의미가 있는 초어(初語)를 말하기 시작하며 이러한 사실의 발견은, 영아가 사회적 동물로서 성장하는데 어머니를 비롯한 주변 어른들과의 상호행위가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마사타카(正高)가 행한 연구의 의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아이가 사회적 동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른과의 상호행위가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아에게 어머니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어른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것도 마사타카(正高)이다. 남녀 대학생들의 협조를 얻어 '그림책 읽기 실험'이라는 실험을 시도해 본 바, 상당한 수의 학생들이 아기에게 어머니어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학생의 대다수가 외동아들이거나 외동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마사타카 노부오(正高信男) 『인간은 왜 육아를 고민하

는가』). 어머니어의 역할이 어른의 음성에 대한 아기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흉내내는 것을 촉진시키는 것에 있었던 것을 상기해 보면, 어머니어를 쓰는 어른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어른과 영유아와의 상호응답이 희박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어른과의 상호행위가 적어지는 것이, 영아의 발달에 이변을 초래하게 되는 사례는 본서에서 소개할 것이다.

2) 텔레비전으로부터 배우는 초어(初語)

심신이 모두 정상인 영아라면, 첫 생일을 맞이하는 만 1세 정도가 되면 의미가 있는 말을 조금씩 말하기 시작하며, 1세 반에서 2세 전후가 되면 말수가 급격히 늘어나 단숨에 많은 말을 하며, 3세가 되면 이미 어른들과도 충분히 일상회화가 가능할 정도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1세가 되기 전에도 흔히 우리가 옹아리(喃語)라고 하는 '아-'라든지, '우-'라고 하는 의미 없는 음성을 내지만, '멈마' '맘마' '멍멍'과 같이, 의미가 있는 초어를 말하는 것은 생일전후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나 관계자의 관찰에 의하면, 초어를 내는 시기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늘고 있다. 그 최대 원인은 0세 때부터 이루어지는 장시간에 걸친 텔레비전 시청이라고 한다. 즉,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변에 있는 어른과 말을 하는 활동이 적어지기 때문에 초어가 늦어진다고 한다 (이와사쿄코(岩佐京子) 『텔레비전이 유아를 망친다!!』).

초어가 나타나는 시기가 다소 늦는 정도라면 아직 이변이라고 까지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영아가 말하는 초어가 인간인 어른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닌,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온 말이라면 역시 이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아기가 말하는 초어는 세계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공통된 것이 있다고 한다. m, p, b등의 음성으로 시작되며, 주로 어머니나 음식물, 주위에 있는 동물이나 장난감 등을 의미한다.

지금으로부터 17년 정도 전인 1983년, 도쿄도(東京都) 분쿄구(文京區) 보육연락회가, 당시 쯔쿠바(筑波) 대학의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던 무라노이히토시(村野井均)의 협력을 얻어, 분쿄구(文京區)내의 유아의 생활과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 구내의 보육원 원아 약1500명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중에는, '자녀가 처음 한 말로, 소리가 명확하며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다. 그에 대한 대답을 보면, 분명히 텔레비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는 말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카이쥬(괴물), 뽀빠이(Popeye), 고론타(NHK의 유아교육방송 캐릭터), 핫토리군(일본 TV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무카시무카시(옛날 옛날) 등이다. 텔레비전CM이 그대로 유아의 초어가 된 케이스도 있었다는 보고도 있다 (아사히신문 사회부편 『어린이 신시대(子ども新時代)』).

이 조사에는, 당시의 영아들의 모습을 묻는 질문도 있는데, 그에 의하면 초어에 이변이 보이는 영아의 경우, '말이 늦어진다'는 것 외에, '시선이 맞지 않는다'라든지, '주위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는 비율이 다른 영아보다 매우 높은 것도 밝혀졌다. 초어에서 보이는 이변이 텔레비전 시청시간의 길이에 의한 것임과 동시에, 주변 어른들과의 상호행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0세 영아에게 있어 어른과의 상호교제 결핍이 영아의 사회력을 키우는 데에 있어 큰 장해가 된다는 사실은 제3장에서 자세하게 보기로 하자.

3. 활동량의 저하가 초래하는 무기력화

1) 영아의 활동을 제약하는 텔레비전 미디어

0세 아이의 대부분이 상당히 빠른 시기부터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NHK의 여론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유아의 텔레비전 시청시간 조사를 실시해왔는데, 지금으로부터 약20년 전인 1981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보더라도, 0세 아이(생후4개월 이상)의 50%가 이미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며, 1일 시청시간은 2시간 20분에 이르렀다. 그것이 1세가 되면 80%가 텔레비전을 보고, 시청시간도 2시간 48분으로 길어졌다.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시청하는 비율과 시청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즉, 일본의 어린이는 생후 얼마 안 되는 시기부터 이미 텔레비전의 포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전파 미디어의 최대 특징은 아이에게 있어 지극히 접근하기 쉬운 장치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같은 어린이용 미디어라도 그림책의 경우, 유아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읽고 쓰는 능력을 익힐 필요가 있고, 더욱이 그것을 읽기 위해서는, 그 때마다 구입해야 하는 수고와 시간이 요구된다. 이에 비해 텔레비전은 방의 한 모퉁이에 놓여있는 텔레비전 수상기 앞에 가서 스위치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영상에 접근할 수 있다.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는 1세 아이가, 텔레비전 스위치를 누르고 채널을 조작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는 어른도 많을 것이다.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미디어 장치가 아이에게 있어서 지극히 접근하기 쉬운 장치인 것은, 아이가 다른 활동을 선택할 가능성을 현저하게 좁혀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텔레비전을 보는 행위가 아이에 있어서 기분 좋은 것이며, 게다가 보고 싶을 때에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든지, 고양이를 쫓아다닌다든지, 어머니에게 안아 달라고 조른다든지 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손쉽게 재빨리 텔레비전을 보는 행위를 선택하게 된다. 텔레비전을 보는 데에는 신체를 격렬하게 움직일 필요도 없다. 수상기 앞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이러한 자세를 장시간 계속해서 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현저하게 저하시켜, 신체를 사용해서 인간이나 외부 세계와 상호행위를 할 기회를 절감시킨다. 이러한 생활의 일

상화가 원인이 되어, 요즘 아이들은 체온이 낮아 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로 변하고 있다는 보고도 적지 않다(전술 『어린이 신시대』).

2) 포켓몬 쇼크(pocket monster shock)의 교훈

1997년12월16일 오후 6시 50분 경, TV 도쿄계열에서 방영하고 있던 인기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pocket monster)'를 보고 있던 아이들이 돌연 의식을 잃거나 경련, 구토, 토혈 등을 일으켜 구급차 등으로 병원에 실려 가는 소동이 있었다. 그 후 신문사가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병원에서 처치를 받은 인원수는 초등학생, 중학생을 중심으로 전국 총 736명에게 달했으며, 그 중에는 고등학생을 비롯하여 19세의 무직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전문가의 조사에 따르면, 그 원인은 특정한 빛의 자극에 아이들의 뇌중추신경이 과잉 반응하여 일시적 쇼크 상태에 빠져, 기절하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광과민성 간질'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본 '포켓몬(pocket monster) 제38화'를 실제로 본 요미우리신문사 과학부의 기자는, 이 프로그램은 화면이 단시간에 잇달아 변하는 동시에 빛의 변화도 격렬하며, 특히 발작을 일으키게 한 싸움 장면에서는 강도를 더하여 빨간색과 파란색의 점멸이 되풀이됨으로써, 어른인 기자로서도 '상당한 피로감을 느꼈다'라고 발언, '어른인 자신도 장시간 계속 시청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그 시청체험을 보고했다(요미우리신문, 1997년 12월 18일자).

가사일이 바쁘다고 무심코 아이를 텔레비전 앞에 앉혀 두고 스위치를 켜 주고는 그대로 방치하는 어머니가 많다. 자주 일컬어지는 '텔레비전이 애보기'식의 육아이다. 이 때 어머니들은 아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텔레비전 시청은 아이에게 생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다.

미국의 여성 저널리스트인 케이트 무디(Kate Moody)는, 텔레비전 시청이 아이에게 미치는 누적효과를 조사, 그것을 『텔레비전 속에서 성장

하는 아이(Growing Up on Television)』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했다. 이 책에는 흥미 깊은 데이터가 많이 소개되어 있으며, 그 중 그녀가 '좀비 차일드(zombi child:얼빠진 아이)'라고 칭한 대목이 있다. 거기에 의하면, 텔레비전이 발하는 빛과 소리의 홍수라고도 할 수 있는 자극은 아이의 수용능력을 훨씬 초월한 과잉 자극으로, 아이는 이 과잉 자극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뇌의 내부를 α(알파)파로 전환하여 일종의 수면상태에 이르게 한다고 한다(후지타케사토루(藤竹曉) 『텔레비전 미디어의 사회력』).

물론, 이러한 지적은 무디씨 혼자만의 추측이 아니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의 심리학자들이 실시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수면상태에 빠진 아이들은 텔레비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적이고 지나치게 강한 자극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일체 반응하지 않게 되며,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습관화되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 않는 때에도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되면, 실제로 정확히 응답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머니와의 대화에서도 반응이 둔해져 다음 발달을 크게 저해한다고 한다. 포켓몬 쇼크(pocket monster shock) 소동은, 텔레비전의 영향 따위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던 관계자들에게, 아이에게 미치는 텔레비전의 자극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재인식 시켜주기에 딱 알맞은 사건이었다.

3) 경시할 수 없는 텔레비전 시청의 누적효과

무디씨의 보고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빛과 소리가 끊이지 않는 텔레비전으로부터의 과잉자극은 아이를 얼빠진 상태(좀비 차일드)로 만들뿐만 아니라, 의사가 '텔레비전 증후군(The TV syndrome)'이라고 부르는 증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텔레비전 증후군'이란 몇 초 이상 지속적으로 집중을 못하며, 금방 싫증을 낸다든지, 침착성이 부족하여 가만히 못 앉아 있는다든지, 공격

적인 행동을 억누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실은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정리한 조사가 있다. 다름 아닌 일본문부성이 1958(昭和33)년부터 1960(昭和35)년의 2년 간에 걸쳐서 도쿄, 홋카이도 등 여덟 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초중고생 28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텔레비전의 영향에 대한 조사이다. 이 조사의 마지막 해에 집계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텔레비전을 장시간 시청하는 아이의 성격이나 태도는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1) 장시간 시청아(103시간 이상 시청)의 경우, 보통 시청아에 비해 불안경향이 강하다.

(2) 장시간 시청아는 비교적 울성(鬱性)과 기분의 변화가 심하고 신경질적이며, 주관적·비협력적으로 일반적 활동성·사고적 활동성도 결핍되어 있으며, 지배적이면서도 내향적인 경향을 엿볼 수 있다.

(3) 교사의 평가에 따르면, 장시간 시청아는 사회성, 자신감, 친절함,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 협조성, 책임감, 인내력, 학습의욕 등의 모든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으며, 교실에서의 태도도 비교적 불량하다.

보통 시청아와의 차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은 잠시 동안 '대외비'로 부쳐졌다고 한다(전술 『어린이 신시대』).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 후 오랫동안 일본 문부성은 텔레비전의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여하튼 우리는 이러한 실험이나 조사가 상당히 이전의 것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텔레비전은 그 후 방송국, 채널수, 방영시간을 늘리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이미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그런 텔레비전을 아이들이 매일 몇 시간 계속해서 시청했을 경우의 누적효과는 상당한 것임에 틀림없다. 평소에 우리가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벌써 텔레비전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텔레비전 시청을 계

속함에 따라 초래되는 아이의 사회화이변을 경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급붕괴의 계기를 만드는 아동의 행동특성이 '텔레비전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상과 지극히 닮은 만큼, 다시 한 번 텔레비전 시청의 누적효과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해 두고 싶다.

4. 극히 '보통아(普通兒)'의 자폐증아화

최근 젊은이들 및 아이들의 사고방식, 행동특성을 특징시한 네이밍(naming)은 상당수에 달한다. 모라토리움 인간(moratorium human being), 캡슐(capsule) 인간, 새인류, 피망 인간, 지시(指示)기다려 세대, 자기중심아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 중 하나로 '자폐증 인간'이 있다. 자폐증인간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은 평론가인 카와모토사부로(川本三郎)로, 히노케이조(日野啓三)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감정을 담은 인간 관계가 능숙하지 못하며, 말할 필요가 없는 기계를 상대하는 편이 마음 편하고, 카세트 테이프 1대만 있으면 몇 시간이고 혼자 있어도 태연한 인간을 그렇게 부른다(카와모토사부로(川本三郎) 『도시의 감수성』).

* 日野啓三 : 초·중학교 시절의 10년 간을 한국에서 보낸 후, 한국전쟁발발로 일본으로 돌아와 동경대학을 졸업. 요미우리신문 한국특파원으로 근무. 귀국후 많은 소설을 썼으며, 1975년에는 '저 석양'이란 소설로 아쿠타가와상 수상.

이렇게 사회력이 없는 전형적인 인간을 자폐증환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요즘 자폐증이라고 착각할 만한 아이나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자폐아에 관한 뛰어난 연구를 하고 있는 쿠마가이타카유키(熊谷高幸)의 저서를 바탕으로, 자폐아의 특징과 소위 말하는 보통아가 자폐아화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자폐아의 특징

자폐증(autism)이라고 불리는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린 사람은 미국의 정신의학자 레오카나(Leo Kanner)로, 지금으로부터 50년도 전인 1943년의 일이다. 카나가 발표한 논문 '정동적(情動的)교류의 자폐적장해'에서 소개된 열 한 명이 나중에 조기유아자폐증이라고 밝혀진 병명의 아이들이었다.

자폐아의 첫 발견자라고도 칭해지는 카나에 따르면 이러한 아이는, ① 사람과 접할 때에 시선이나 표정에 의한 정서적 교류가 결여되어 있으며, ② 언어 사용에 이상이 있고 ③ 물건을 빙글빙글 돌리는 등의 의식적인 행동을 되풀이한다 ④ 또한, 보통 사람들과 같은 생활 사이클(cycle) 속에서 생활하지 못하며 ⑤ 어떤 물건을 다루는 특별한 재능이나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쿠마가이타카유키(熊谷高幸) 『자폐증으로부터의 메시지』).

카나의 진단에 이어서 그 후로도 어마어마한 수의 자폐증 진단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 중에서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영국의 라타(Rutter. M. Hathaway) 진단항목으로, 이는 다음의 네 가지 사항으로 이루어진다.

① 생후 30개월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② 사회적 발달에 장해를 보인다.

③ 언어발달이 지연되며 치우치는 경향을 보인다.

④ 동일성에 집착을 보인다.

이 가운데에서 저자가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발달과 언어발달의 지연이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이 인간의 필수조건이라고 한다면, 자폐아에게서 볼 수 있는 사회적자질의 지연이 어디에서 유래되는지에 대해 해명할 수 있다면, 이는 현대아의 사회화이변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더 없이 귀중한 실마리가 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2) 자폐아의 탄생 구조

자폐아의 사회적 자질 지연경향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자폐아를 처음 세상에 소개한 카나는 육아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실례로서 든 열 한 명의 아버지가 모두 인텔리로, 부모가 모두 차가운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육아가 아이와의 접촉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적었으며 이 때문에 아이들과 부모 사이에 '정서적 교류의 장해'가 발생, 아이들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부모와는 전혀 다른 세계로 가버리고 만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후 뇌의 장해가 주원인이라고 하는 실례가 많이 보고되면서 카나의 설은 부정되었다.

자폐아가 되는 주원인이 뇌에 생긴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째서 언어나 인지, 정서의 발달에까지 장해를 초래하는 것일까? 언어나 인지의 지연이 정서장해를 초래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서장해가 언어 등의 발달에 지연을 초래하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이어졌지만 최근의 신경생리학의 연구성과가 밝힌 지견을 바탕으로 쿠마가이(熊谷)가 조립한 자폐아가 탄생하는 메커니즘의 핵심부분을 저자가 나름대로 정리하여 설명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태어나기 전, 혹은 생후 얼마 안되는 시기에 인간의 욕구나 감정, 본능적인 사회적 행동의 발생원(發生原)인 뇌의 심부에 장해를 받는다.

(2) 뇌의 심부에 받은 장해로 인해 아이에게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외부 세계와의 교류기능이 발휘되지 않은 채로 정지한다.

(3) 선천적인 활동 기능의 둔화가 정보처리기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의 작동을 둔화시킨다.(미에린化不全 : 제3장 참조)

(4) 대뇌피질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신체나 감각기관을 사용하여 현실세계에 대해서 행동을 일으키고, 일으킨

행동에 대한 반응을 뇌에 피드백(feedback), 이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구축되는 실천적인 뇌의 성립이 불완전한 상태로 멈춘다.

자폐아를 만들어 내는 메커니즘을 이와 같이 생각한 쿠마가이(熊谷)는, (a) 인간의 뇌가 구조적으로 지극히 복잡하다 것 (b) 인간의 아이는 생후 거의 1년 정도는 자신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자폐아가 생기기 쉬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통의 아이가 자폐아화되는 메커니즘을 고찰할 때, 이 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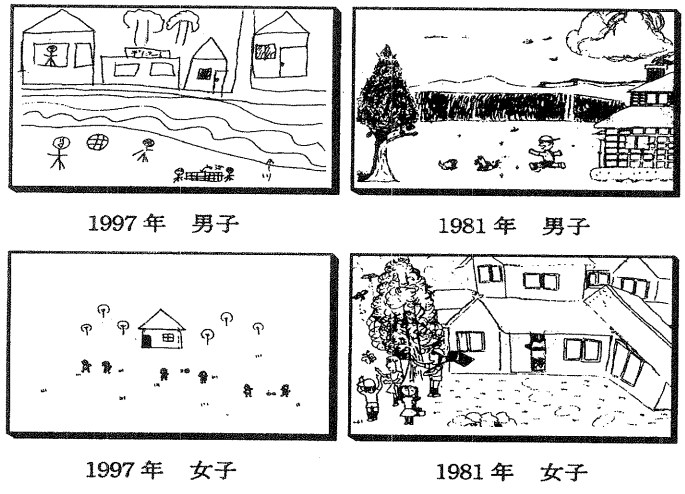
3) 늘어나는 후천적 자폐아

지금까지 자폐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아왔지만, 원래 자폐증을 가진 아이는 태어나기 전, 또는 생후 직후에 받은 뇌 심부의 장해가 원인이었다. 이른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부모의 육아방법에 따라서 자폐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든지 하는 등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보통아'들의 자폐아화가 진행되고 있다. 뇌에 장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격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크게 변화한 생활방식이 원인이 되어 자폐아와 지극히 닮은 증상을 보이게 된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저자가 이와 같이 생각하게 된 것은, 미사와나오코(三澤直子)의 『살의(殺意)를 그리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된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을 본 것이 계기이다. 미사와(三澤)는, 20년 이상 심리 카운셀러로서 활동하며 아이와 어머니의 고민상담을 해 온 사람이다.

미사와(三澤)에 따르면, 1990년경부터 우주인이 아닐까라고까지 생각되는 부모들이 나타났다고 느끼는 일이 늘어남과 동시에, 여유롭게 보내야 할 유아기에 하루 종일 영어 테이프를 듣는 아이나, 조기교육 교실을 다니는 아이, 부모의 기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아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보모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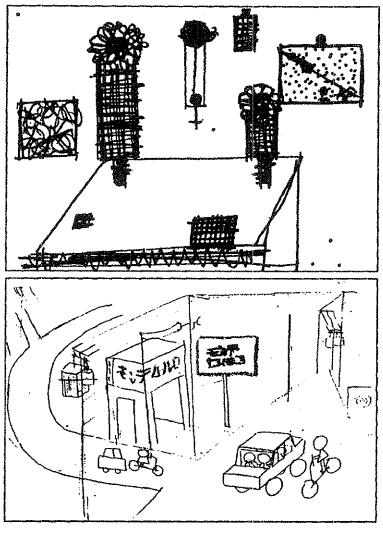
수회 등에 참가하면서 해를 거듭할 수록 가정 내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에 관한 보고가 많아진 것을 알았다. 이러한 보고를 많이 듣게 된 미사와(三澤)씨는, 보육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학대가 번지고 있다고 한다면, 밀실과 같은 방에서 모자(母子) 단 둘이서 생활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엔 학대받는 아이가 더욱 많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 요즘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조사하려고 한 것이, '통합형 HTP법'이라고 하는 회화(繪畵) 테스트였다. 회화 테스트란, 간단히 말하자면 아이들에게 '집과 나무와 사람을 넣어서 무엇이든지 좋으니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 주세요'라고 지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검사법이다. 1981년과 1997년에 도쿄 서부의 네 군데 초등학교의 일학년에서 육학년까지 한 반씩 선정하여 그리게 한 그림 가운데서 육학년 남녀아동의 그림을 한 장씩을 예로 든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 그림 그리기 시험에서 본 초등학생 그림의 변화
(미사와나오코(三澤直子)『살의(殺意)를 그리는 아이들』)

이 그림들을 보고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요즘 아이들의 그림에는 리얼리티(현실성)가 결여되어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의 묘사방법이 일시 모면적으로 매우 간략화 되어 있다. 이것은 과연 어떤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미사와(三澤)는 단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생한 실감이나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초등학생에게 HTP법으로 그림을 그리게 해보면, 지금까지는 자신이나 친구나 형제 등 구체적인 인물을 그리는 것이 보통이던 것이, 요즘은 그림을 그린 본인에게 '이 사람은 누구니?'라고 물으면, '몰라요'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라고 대답하는 아이가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인물이나 일반적인 인간에 관심과 애착이 없는 것은 자폐아의 특징이었다.

[그림 2]는 쿠마가이(熊谷)가 소개한 자폐아의 그림이다. 그림 속에 인간을 그리지 않는 것이나, 그려져 있어도 거리에 늘어선 건물에 비해 사람을 그리는 방법이 극단적으로 기호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그림들을 [그림 1]과 비교해 보면, 마음의 상태가 자폐아의 그것과 한없이 비슷한 '보통아'가 확실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 유아기때부터 이어진 부모나 주변 어른들과의 희박하고 거부적인 관계가 집과 인간의 그림에 리얼리티를 잃어버리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자폐증아가 그린 그림(쿠마가이타카유키(熊谷高幸)
『자폐증으로부터의 메세지』에서 발췌

5. 확산되고 있는 인간거부

1) 지워지는 인간의 모습

정신과 의사이며 문화정신의학자이기도 한 노다마사아키(野田正彰)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일본인의 마음의 벽을 문화인류학적 기법과 정신의학적 시점에서 정력적으로 분석해 왔다. 노다(野田)가 현대의 도시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세계를 풀어 밝혀 보인 것이 『표백되는 어린이들』이라는 책이다. 아이의 마음의 세계를 해독하기 위해서 노다(野田)씨가 이용한 것이 그 자신이 '사진투영법'이라고 칭한 새로운 방법이다. 이 방법은 아이에게 사진기와 36장 짜리 필름을 2개 준 다음, 평일과 휴일의 2일 간에 걸쳐서 '하루 일과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찍게 한다. 아울러 사진을 찍은 날의 행동기록을 써 오도록

한 다음, 아이가 찍은 사진과 행동기록을 대조 분석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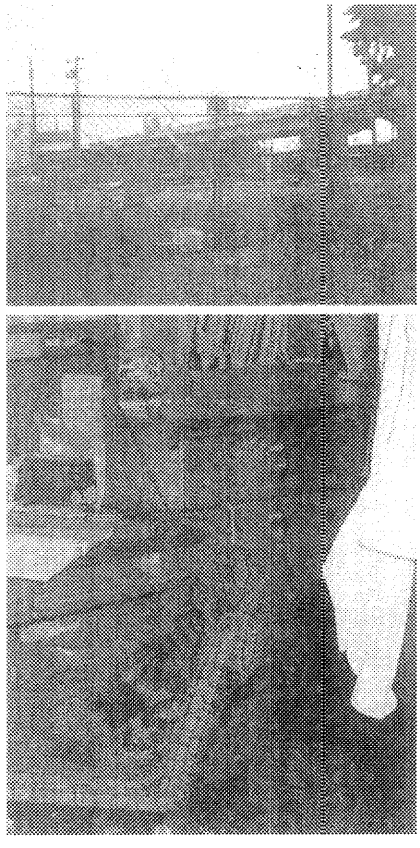
도쿄, 교토, 오사카, 고베의 초·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사진과 행동기록을 분석한 노다(野田)씨에 의해 밝혀진 아이들의 생활과 마음의 세계는 어떻게 특징지을 수 있을까? 그 특징들을 저자 나름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이들의 생활이 한 콤마 한 콤마씩 단편화되어 삶의 충실감을 갖지 않게 되었다.

(2) 자신의 생활공간에서부터 살아 있는 인간이 배제되어 있다.

(3) 지워진 인간을 대신하여 다양한 물건과 미디어가 생활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세계에서 인간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노다(野田)는 '30명 가까이 되는 어린이들이 찍은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라고 서술한다. 확실히 [그림 3]의 사진과 같이 사람이 카메라 안에 비치는 것을 피한 사진이 많다. 현대의 아이들 마음 속에서는 타인과 살아 있는 인간이 진저리나고, 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 소거(消去)하고 싶은 존재로밖에 느끼지 않는 것이 이런 사진으로 투영된 것이다. 노다(野田)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무엇이든지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이라는 제목의 작문에서 지우고 싶은 대상으로서 선생님, 심술궂은 급우, 친구, 아버지, 어머니,……와 주변에 있는 인간을 잇달아 꼽은 것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그림 3] 어린이가 찍은 사람이 없는 사진 野田正彰
『표백되는 어린이들』에서 따온 사진

요즘 아이들의 인간기피 경향은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왜, 요즘 아이들은 이처럼 인간을 싫어하고 피하는 것일까?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대 아이들의 공통체험은 왕따다'라고 말하는 노다(野田)의 지적에 주목하고 싶다. 노다(野田)는, 대학생 400명에게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의 자신의 생활사를 기록하게 한 리포트를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에게는 왕따라고 하는 공통적 시대체험이 있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학교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되는 시기부터 시

작되는 왕따 체험이 서로 경계하고 피하려고 하는 마음을 부추겼다고 하는 것이 노다(野田)의 견해다. 유아기 때부터의 희박하고 거부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미처 발달하지 못한 인간에 대한 애착과 신뢰가 학교생활에서의 왕따 체험으로 한층 심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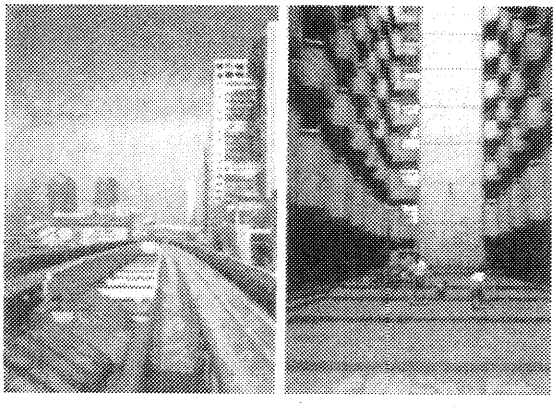
2) 무기질적 공간의 선호

시대가 빚어내는 특유의 냄새를 분별하여 맡을 줄 아는 날카로운 감성을 가진 작가나 극작가, 사진가들은 이미 상당히 이전부터 최근의 젊은이들은 인간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장소를 좋아하고, 그러한 장소에서 긴장을 풀고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도 몇 번이나 인용한 적이 있는 히노케이조(日野啓三)의 다음 문장이 그 하나의 예이다.

'교외의 잡목림과 언덕을 깎아서 세운 아파트 단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세대에 있어서 그리운 것은 들과 숲, 언덕이 아닌 콘크리트 블록이다. 혹은 그네와 모래밭이 있는 놀이터. 시멘트를 깐 주차장. 고무로 만든 괴수인형. 완구회사에서 만든 장난감. 그리고 텔레비전과 퍼스널 컴퓨터의 화면' '(작가)딕의 묘사력은 독특하다. …… 그의 작품의 무대는 대개 몇 십 년 후의 가까운 미래지만 거기에 나타난 황량한 현실묘사가 현재 우리들의 주변과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공허감과 황폐 그리고 몽상을 실제인 듯 생생히 느끼게 한다.'(히노케이조(日野啓三) 『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자연』)

저자는 1984년부터 6년 간, 막 개설된 방송대학에서 '청소년문화'라고 하는 수업을 담당한 적이 있다.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재를 제작함과 동시에, 1회당 45분의 텔레비전 교재(프로그램)를 7회분 제작하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텔레비전 교재라고 하면 역시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젊은이 문화의 실체들을 브라운관을 통해 다양한 '그림'으로 전환시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저자는 젊은이들이 좋아한

다는 장소나 물건, 코믹, 영화 등을 슬라이드로 찍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장소나 공간을 예로 들자면, 고속도로가 몇 겹이나 교차하는 분기점, 도쿄만(東京灣)에 면해 있는 창고군, 철골과 콘크리트를 드러낸 철교 밑, 혹은 고층의 오피스 빌딩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신주쿠(新宿) 니시구치(西口)의 부도심, 아직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의 마루노우치(丸內) 빌딩가, 고층단지의 중앙부에 위치해 심야가 되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광장, 쓰레기를 매립하여 만든 인공섬인 오다이바(大臺場)의 후지 텔레비전 방송국 부근과 같은 곳이다. 이러한 장소는 젊은이들이 좋아한다는 영화의 하나인 '블레이드런너((blade runner)'(이 영화는 필립·K·딕(Philip K. Dick)의 소설 『기계인간은 전기 양을 꿈꾸겠는가?(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heep?)』라는 작품이 원작) 의 무대로 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로스앤젤레스의 거리나, 오토모카쯔히로(大友克洋)가 제작한 인기 애니메이션 '아키라'의 무대라고 생각되는, 역시 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쿄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장소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유리나 시멘트, 메탈(metal), 화학합성물 등, 이른바 무기질적인 물질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것과 나머지 하나는, 거기에는 살아있는 인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림 4]에서 소개한 사진은 그와 같은 무기질 공간의 일례이다.



[그림 4] 무기질적 공간의 일례

젊은이들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무기질적 공간을 좋아하고, 거기에 감으로써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결국 그런 행동을 하는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도 인기척이 없는 무기질적 공간이 뻗쳐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무기질적인 공간은 우리들 낡은 세대가 인간이 북적대는 소란스러운 도시를 떠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목가적인 농촌풍경을 만났을 때에 느끼는 아늑함과 일맥상통하는 곳이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마음의 세계로부터 인간을 배제하려고 하는 의지를 강화시키는 한 그들의 사회력을 키우는 일은 어렵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러한 심성을 갖게 된 것일까? 젊은이들의 마음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그렇게 된 과정을 차분하게 풀어 갈 필요가 있다.

3) 허물어지는 깊은 인간 관계

지금까지 보아 온 것과 같이, 아이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인간거부나 어른 불신이 바탕이 되어 젊은 세대의 인간관계는 서로 깊이 관여하지 않는 지극히 표면적인 것이 되었다. 이러한 인간관계가 성립된 것을 재빨리 세상에 알린 것은 NHK방송문화연구소 여론조사부가 실시한 '일본의 젊은이'라는 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 다룬 적이 있지만(전술 『아이와 젊은이의 [이계(異界)]』), 여기서 요점만 다시 한 번 반복해 두기로 하자.

이 조사는, 1985년 10월에 전국의 13세부터 29세까지의 남녀, 총 3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중에는 '평소에 친구와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위의 <표 1>이다.

<표 1> 친구와 커뮤니케이션·교제 방법

라이프 스테이지 / 교제 방법	전체 (13-29세)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근로 청소년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 입히고 싶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도 상처받고 싶지 않다	83.0%	83.0%	84.0%	81.0%	81.7%
상대방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고, 자신의 사생활도 남에게 간섭받기 싫다	78.9%	80.5%	80.3%	74.2%	75.9%
상대방의 이야기가 재미없어도 열심히 듣는다	78.2%	70.7%	77.1%	77.8%	82.2%
되도록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도 싫다	56.7%	63.5%	58.6%	51.6%	52.0%
대립할 것 같은 화제는 가급적 피한다	56.6%	60.5%	59.5%	50.0%	51.7%

출처) NHK여론조사부 편『일본의 젊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순으로 보면, ①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 입히고 싶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도 상처받고 싶지 않다= 83%, ②상대방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고, 자신의 사생활도 남에게 간섭받기 싫다= 79%, ③상대방의 이야기가 재미없어도 열심히 듣는다= 78%이다. 표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세 가지는 연령대 별로도 그다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제방식은 중학생이나 대학생, 사회인이나 그다지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언뜻 생각하면 최근의 젊은이들은 서로 상대방의 기분이나 사정을 존중하며 신사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것처럼도 비친다. 그러나, 만약 일본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이와 같은 교제를 하고 있다면, 교사들이 기를 쓰고 없애려고 하는 왕따가 생기거나, 확산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결과가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교제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서로 본심을 솔직히 드러내거나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쓸데없는 일을 묻거나 속속들이 캐고 들지도 않으며, 지극히 표면적으로 그때그때 그 자리를 잘 모면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는 식의 교제라는 것이다. 지금의 어른들이 젊었을 때엔 이런 식의 친구교제는 '싱겁다!'고 꺼려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로 상대방과 깊숙이 관여하지 않는 표면적인 교제가 아니고서는 친구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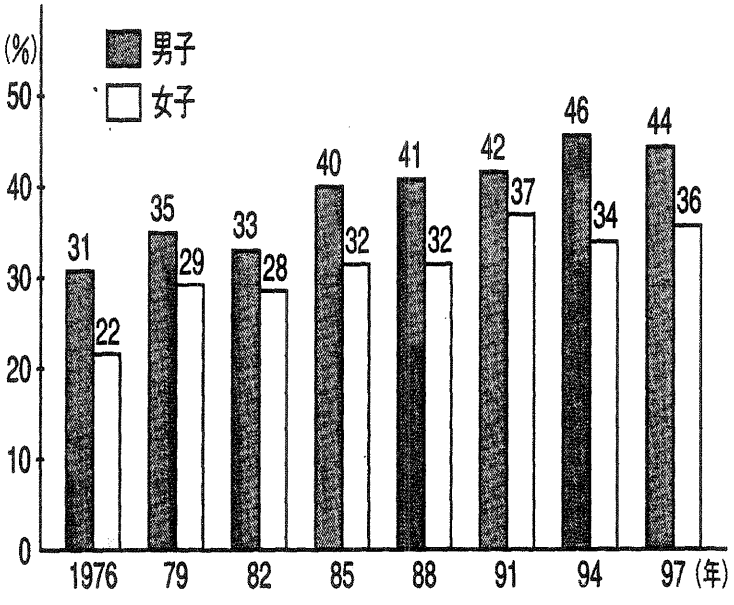
서로 깊이 관여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편이 좋다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병기로서 개발된 다양한 기기가 젊은이들 사이에 순간적으로 널리 퍼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휴대폰은 고등학생들의 필수품이 되었으며, 컴퓨터로 서로 연락을 취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많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기기가 마른 모래가 물을 빨아 들이 듯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퍼져 가는 것은 기기의 편리함 때문만은 아니다. 서로 깊이 관여하지 않는 교제에 있어 이것만큼 편리한 도구는 없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최근의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사회화 이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태와 현상을 살펴보았다. 언어의 습득과정에서 볼 수 있는 이변, 텔레비전이 초래하는 후누케(얼간이)증상과 무기력화, 극히 '보통인 아이'가 보이는 자폐아적 증상, 그리고 젊은 세대에 퍼지고 있는 인간기피 현상. 이러한 사태나 현상을 이변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공통되는 것은 '사회력'의 형성부전 (刑成不全)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력부전의 근본요인은 성장과정에서의 다양한 타인과의 상호행위 부족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러한 젊은 세대의 사회력부전은 가까운 장래에 사회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저자의 이러한 견해가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는 다음 장에서부터 두 개의 장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4) 증폭되어 가는 인간기피와 어른불신

아이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사람을 싫어하고, 타인을 싫어하는 현상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저자의 추측을 아이들의 그림이나 사진 속에 담긴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해석했지만, 그 내용은 조사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저자가 20년 이상 전부터 실시해 온 '도쿄도(東京都) 청소년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해 보자.

'도쿄도(東京都) 청소년 기본조사'는, 도쿄도(東京都)의 생활문화국이 1976년부터, 도내에 사는 만 15세부터 29세까지의 남녀 약200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조사다. 이 조사는 청소년의 생활실태나 생활의식, 가치관과 사회의식 등이 시대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측하여, 청소년행정의 기초자료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림 5] 안절부절형 고등학생의 증가
『동경도청소년기본조사』, 각년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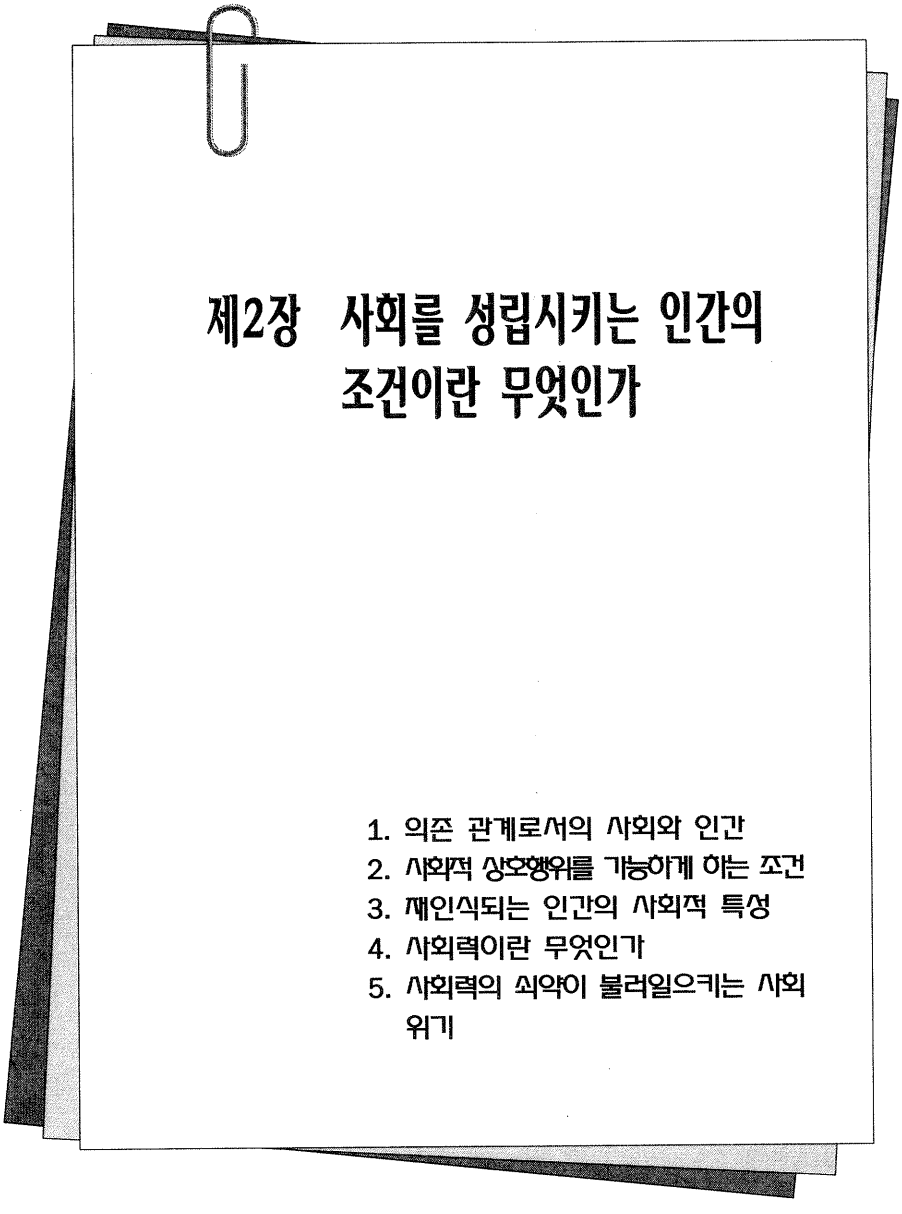
특이한 점은 청소년을 가치관에 따라 전형적인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각각의 타입이 시대의 변화에 의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추적해 왔다는 것이다. 고등학생들에 한해서 '이라이라(안절부절못함) 형태' 학생의 증가를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그림 5]의 표이다.

이 표를 보면, 최근 20년 동안에 남녀학생 모두 '이라이라 형태'가 증가된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라이라 형태'란, 말 그대로 불평불만이 강한 타입으로 인간기피 경향과 어른불신의 도가 심한 특징을 가진 한 무리의 젊은이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젊은이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최근에는 남학생 두명 당 한명, 여학생이라도 세명 당 한명 꼴이 이런 타입이다.

그들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사람을 싫어하며 '다른 사람과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관심없다' '자신에 대해 이것저것 묻는 건 딱 질색이다'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자신도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각각, 74%, 73%, 70%, 63%에 달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편이 좋은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한 비율이 32%로, 아직 타인을 완전히 기피하는 곳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인간을 기피하거나 타인과 직접 접촉하고 싶어하지 않는 성향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있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그들이 어른들에 대해 갖는 불신감 또한 상당히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어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의 대답을 보면, 제시한 모든 항목에 어른에 대한 불신감이 표출되어 있다. 특히, '말과 행동이 다르다' '하는 말이 그 때 그 때 마다 바뀐다' '남 앞에서는 잘난 척하지만 뒤에서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항목에서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각각, 81%, 75%, 70%나 된다. 이 같은 결과로 보아 '이라이라 형태'의 젊은이가 어른들에게 상당히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소개한 결과는 어른에 대한 불신감이지, 같은 세대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그들의 경우 남을 피하려고 하는 성향도 상당히 강해, 이를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이라이라 형태'의 젊은이들이 어른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같은 세대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배제하고, 인기척이 없는 무기질적 공간에서 안락을 찾으며, 전자미디어를 사용하고, 살아있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으로 치닫는 것이다. 인간에 무관심하고, 타인을 기피하는 성향은 그대로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사회와의 관계를 기피하는 것과 연결된다. 사회학도로서 저자가 하고 있는 걱정과 우려는 여기에 있다.



제2장 사회를 성립시키는 인간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1. 의존 관계로서의 사회와 인간
2. 사회적 상호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
3. 재인식되는 인간의 사회적 특성
4. 사회력이란 무엇인가
5. 사회력의 쇠약이 불러일으키는 사회 위기

제2장 사회를 성립시키는 인간의 조건이란 무엇인가

젊은 세대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변(異變)도 면밀히 따져보면 다른 사람을 회피하고, 사람을 싫어하는 성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성장에 빠뜨릴 수 없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고, 그 전에 인간이 만드는 사회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특성과 행위에 의해 형성되고 또 유지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렇다면,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인간의 어떤 특성 혹은 자질능력을 말하는 것인가? 또 그러한 특성이나 능력이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선천적으로 갖춰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학습하면서 획득해 가는 것인가? 인간만이 가지는 '사회를 만드는 힘'이라는 것이 있다면,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발휘하고 또 활용함에 따라 사회를 성립시키고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이렇게 되물어 보면 잘 모르는 것이 많다. 공기가 극단적으로 오염되어 인명에 해를 끼치게 되고서야 비로소 사람이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을 실감하는 것처럼 사회의 붕괴가 진행되어 기능하지 않게 되고서야 비로소 사람은 사회를 성립시키고 유지시켜 왔던 뭔가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사회력의 귀중함을 설명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인간만이 가지는 사회를 성립시키는 특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형성되는 구조를 설명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의존 관계로서의 사회와 인간

1)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란 것을 최초에 언급한 인물은 그리스(Greece)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이다. 그의 저서 『정치학』중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적은 것이 기원전 4세기였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있던 일이다. 덧붙이자면, 사회철학자인 카네코하루오(金子晴勇)의 해설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근거로서 ① 인간은 개인으로 자족적일 수 없고 서로 다른 인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 ② 인간은 언어와 이성에 의해 법치국가를 만든다는 것 ③ 개인은 법적으로 질서를 세운 국가가 있어야 자족할 수 있다는 것 ④ 그 국가가 인간을 시민으로서 완성시켜 덕이 있는 생활에 이끌어 간다는 것이라는 4 가지의 특성을 들고 있다고 말한다.(金子晴勇『인간 속에서 이루어진 사회(人間の内なる社會)』)

그 후에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근거로 여러 가지 설이 나왔지만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이러한 인간인식은 기본적으로 거의 변경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왔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식은 이제는 하나의 사회학자뿐만 아니라 널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의 사회학 개론서에서는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라고 표현하는 곳이 많다. 이러한 교재는 사회학이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다'라는 것을 암묵의 전제로 한 것을 감추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회학이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할 이유는 무엇인가? 몇 권의 참고자료에서 볼 수 있는 기술(記述)을 나름대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사회에서 조달한다.

② 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행위를 몸에 익혀 사회적 지각을 가꿔 간다.

③ 획득한 사회적 행위나 지각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상호 행위를 하면서 생활한다.

④ 생활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 키워간다.

이러한 생활을 사회학자는 '사회 생활'이라고 표현하지만, 인간은 보다 낫게 생존하기 위해 사회 생활을 필요로 한다. 또 사회 생활을 계속하면서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것을 몸에 익혀(사회화되어), 사회화된 인간으로서 사는 것으로 사회를 유지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인간은 바로 사회적 동물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생물이라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설명이다.(이노우에슌(井上俊)・오오무라히데아키(大村英昭) 『사회학입문』 방송대학 교육진흥회 등)

2) 사회를 성립시키는 현장

이렇게 설명해도 인간이 일상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사회를 성립시키는 것일지를 실감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 재평가를 받고 있는 사회학자 G. 짐멜(Georg Simmel)의 견해를 빌려서 나름대로의 설명을 해 보고자 한다.

짐멜은 20세기 초 독일(Germany)에서 활약한 사회학자이고 그 유명한 E・듀르껭(E.Durkheim)이나 M・베버(Max Weber)와 함께 고전적 사회학을 대표하는 3명의 사회학자 중 한 명이다. 그가 제창한 형식사회학의 해설서인 『사회학의 근본문제』(1917)라는 책 중에서 짐멜은 거침없이 "사회는 개인간의 심리적 상호작용이다"고 해서 "다수의 각 개인이 상호행위에 들어갈 때, 거기에 사회는 실재한다"라고 했다. 짐멜의 구체적인 설명을 더 들어 보자. 짐멜에 따르면 사회가 성립하는 '현장(現場)'이란 다음과 같이 설명되는 일상생활의 장소다.

"사람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거나 질투하거나, 서로 편지를 보내거나 점심을 함께 하거나, 서로 이해(利害)를 떠나서 동정적으로 사귀거나 아니면 반목하며 사귀거나, 이타적 행위에 대한 감사 때문에 더욱

떨어지기 힘든 결합이 생기거나, 남에게 길을 묻거나, 서로 멋지게 몸치장하거나 하는 것. 이러한 예는 모두 머리 속에 떠오른 대로 든 것이지만,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행하여지는 관계에서는 공통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는 일시적인 것도 있고 항구적인 것도 있고, 또 의식적인 것도 있고 무의식적인 것도 있고, 미미한 것도 있고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결부시키는 것이다. 거기에는 개인간의 여러 상호행위가 있다."((阿閉吉男 번역) 『사회학의 근본문제(社會學の根本問題)』)

이런 종류의 상호행위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들의 사회 생활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하는 사회 생활이란 사람들의 이러한 상호행위의 되풀이이며, 그러한 상호행위가 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이 바로 사회를 성립시키는 '현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쉽게 하는 상호행위도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양한 것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호행위를 서로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회 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고 또 몸에 익히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회사의 전근 등으로 갑자기 낯선 나라에서 생활하게 되었을 때의 당황감을 상정(想定)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를 성립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란 어떤 것인가?

2. 사회적 상호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

1) 사회적 상호행위라는 인간 행위

지금까지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은 채 몇 번이나 사회적 상호행위와 상호행위라는 말을 써 왔지만 여기에서 본서의 키워드(key word 핵심 단어)가 되는 이 개념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두기로 하자.

우선 '사회적'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인간이 두 사람 이상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인간이 몇 사람 있는 상태가 사회이며 사회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상호행위란 어떤 행위인가? 이것은 약간 복잡하다.

상호행위란 영어에서는 interaction(한국에서는 상호작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하고 더 쉽게 말하면 복수(複數)의 인간(행위자) 사이에서 서로 상대에 대해 행동하고 동시에 상대에게서 어떤 행동을 받는, 그런 행위(Action)의 주고받기(Inter-)를 뜻하는 것이다. 즉 상호행위란 무엇보다도 우선 두 사람 이상의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교환'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interaction라고 쓰지 않고 Inter-Action이라고 쓰고 인터(inter)·액션(action)이라고 발음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아직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상호행위란 상호행위를 하는 양쪽 사람의 머리 속에서 서로가 행위를 하는 상황이라든가 상대의 입장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자신의 이해 타산 등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거기에다가 상대의 행위에 서로 영향을 받고 또 상대에게 영향을 주면서 하는 행위의 교환이라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설명해 보면 상호행위란, 서로가 상대로부터 당한 그 내용에 영향을 받고 행위를 되돌리고, 또 그 상대방이 자기에게 뭔가 행동을 하는 그 내용에 다시 영향을 줄 의도로 상대에게 무엇인가 행동을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상호행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서로가 상대를 의식하고 상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행위하고 있다.

② 자신의 행위가 상대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서로가 상대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행위를 하고 있다.

③ 행위 교환이 서로 소유하는 심벌(symbol)과 함께 행할 때가 많다.

여기서 '선택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자. 선택적인 행위란, 우선은 행위의 상대가 누구인가(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 또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상대와 그 상황에 가장 어울린 행위를 골라서 하는 것을 뜻한다. 덧붙이자면 선택적이란 상대에 대해 구체적인 행위를 표출하기 전에 자신의 머리 속에서 행위의 리허설(rehearsal)을 미리 끝마치고 행위 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자신이 앞으로 행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할지를 미리 예상한 다음에 상대의 반응 중 자신에게 가장 맘에 든 케이스(case)를 골라서 행위 한다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생활에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 보자.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노리는 중학교 3학년생인 A군과 그의 담임인 B선생님의 예이다. 요즘은 교사가 학생의 학교 생활을 기록해서, 진학하는 학교에 제출하는 내신성적이 합격 여부를 좌우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인 A군은 내신서류의 내용을 잘 하려고 B선생님과 상호행위를 하게 된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업을 듣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청소도 열심히 하고 학생회 활동도 자기 스스로 하게 된다. A군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가 고등학교를 진학한다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내신서류를 쓰는 사람이 교사인 것, 고등학교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B선생님에게 잘 보여야 하고 또 좋은 내신성적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어떤 행위가 자신에게 유리한지를 알고 있고 그 때문에 적절한 행위가 어떤 행위인가를 알고 고른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A군의 행위에 대하여 B선생님도 A군의 기특한 행동을 인정하고 교실에서도 그에게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좋은 내신성적

을 써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는 일상생활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그런 예를 염두에 두면서 조금 전에 한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 주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사례처럼 우리는 평소에 아무 고생도 없이 일상적으로 상호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하게 하는 상호행위를 뜯어보면 서로 상당히 복잡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행위를 적절히 행하기 위해서는 양쪽 다 미리 다양한 사항을 습득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회화 과정에서 상호행위에 필요한 다양한 일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고생도 하지 않고 적절한 상호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반대도 또한 진실이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러한 다양한 일을 공유하지 않은 경우 적절한 상호행위를 하고자 생각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요즘 어른들이 청소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탄하고 청소년이 어른에게 "짜증나!(거추장스럽다, 시끄럽다)"라고 불평을 하는 것은 양쪽의 상호행위를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여러 요소가 어른세대와 청소년 세대 사이에서 공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귀찮은 일이기는 하지만, 청소년이 사회적인 인간이 되어 가는 과정, 즉 상호행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공유해 가는 과정을 자세히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럼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이러한 사회적인 상호행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상호행위를 하는 인간이 서로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식이나 능력, 양해사항이란 어떤 것일까? 이것들을 합쳐서 '문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회적인 상호행위에 빠뜨릴 수 없는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것들 모두가 상호행위를 성립시키는 조건이면서 타자(他者)와의 상호행위만을 통해서 습득되어 공유되는 사항인 것을 확실히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2) 말과 의미

우선 먼저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말과 의미의 공유다. 보통 아이가 의미 있는 기호인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생후(生後) 1년 후쯤이지만 그 후엔 폭발적인 속도로 수많은 말을 습득하고 3살 나이에서는 이미 어른과 회화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숙달된다. 몸짓이나 손짓, 눈짓이나 표정이 상호행위를 행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경험으로부터 잘 알려져 있지만 무엇보다도 상호행위에 있어서 말이 완수하는 중요성은 압도적이다.

말과 그 의미의 공유 없이 상호행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말과 그 의미를 몸에 익히고 타자와 공유해 가는 것인가? 조기교육 세미나나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국어 공부로부터인가, 아니면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시기로부터의 사람, 특히 어머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과의 상호행위에 의한 것일까? 대답은 물론 후자이다.

근래 발달심리학자나 동물행동학자 등에 의한 신생아나 유아에 관한 연구에 의해 잇달아 밝혀지기 시작한 것들이 있다. 그것은 아이가 생득적(生得的)으로 갖추고 있는 높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태어난 직후부터 금방 어른에게 어떤 작용을 하고 또 어른으로부터의 어떤 활동에 응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예는 다음 장(章)에서 자세히 소개하기로 하고, 여기서 말과 의미의 습득이나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응답에 대해서 말하면

① 아이는 생후 직후부터 인간의 얼굴을 식별하고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② 인간의 입에서 발생한 의미를 가지는 말로서의 소리와 의미 없는 단순한 잡음과를 분명히 구별해 듣고 있고,

③ 생후 2,3개월 정도가 되면 쿠잉(cooing)이라는 "쿠"라든가 "잉"라

고 하는 소리를 영아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하여 어머니 응답을 촉진시키는 활동을 하게 되고,

④ 쿠잉에 응해서 어머니가 한 말을 귀로 듣고 그것을 흉내내서 스스로가 같은 음을 내게 되고,

⑤ 8개월쯤에는 자신이 흥미를 보인 물건에 손을 뻗쳐서 어른의 눈도 같이 향하도록 시키는 "손 가리킴 (reaching)"을 시작하고,

⑥ 9개월이 되면 더욱 그 의도를 명확히 한 "손가락 가리킴 (pointing)"을 하게 된다고 한다.

영아가 손이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을 본 어른들은 "이것은 사과야." "아, 저건 고양이네."등 가리켜진 것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생후 직후부터 어른과의 이러한 응답 즉 상호행위를 거듭해 가는 것으로 영아는 물건(기호내용)과 그 이름(기호표시)을 결부시키고 동시에 그 의미를 이해해 간다. 그 최초 성과가 생후 1년 가까이 되면 시작하는 첫말이다.

첫말을 말하게 되면 곧 "엄마, 이것 뭐야?" "아빠, 왜 그래?"라는 질문들을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나 걸기 시작한다. 그 후로 영아의 말 습득은 정말로 일취월장을 한다. 그러나 그 후의 습득도 어른과 말이나 행위의 주고받기, 즉 타자와의 상호행위에 의한 거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습득된 말과 의미를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생활 속에서 타자와 그다지 고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상호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3) 위치와 역할의 인식

여기서 말하는 위치란 사회학의 전문 용어인 「사회적 위치(social position)」를 의미한다. 야구에서는 피처(pitcher)나 캐처(catcher)나 셔어드(third)를 포지션(position)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사회에 적용

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면 알기 쉽다. 우리는 누구든지 김태훈이라든가 박현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 생활을 할 때 그 이름을 간판으로 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일상 생활에서 하는 것은 남자·여자·부모·자식으로서, 혹은 회사 사원으로서 또는 고등학교 학생·반상회 회장으로서, 그리고 자원봉사 그룹 멤버로서의 행동이다. 요컨대, 우리는 다 자신이 사는 사회에서 어딘가에 자기지위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고 있고 그 위치를 차지하는 자(者)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를 든 남자나 여자, 부모나 자식, 회사원이나 고교생, 반상회 회장이나 자원봉사 그룹 멤버 등이 사회적 위치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고등학생으로서 매일 학교에 가서 성실하게 수업을 받는 것이 역할 내지 역할행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 확실히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한다는 것이란, 각자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에 어울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에 어울린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딱딱한 표현을 했지만 좀더 부연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행동을 하고 자식은 자식다운 행동을 해야 평화로운 가족생활을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아직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하면 '아버지'라는 위치는 '자식'라는 위치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고, '자식'이라는 위치도 '부모'라는 위치가 있어야 의미를 가진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다운 역할행동이라는 것은 우선 상대인 '자식'에 대하여 아버지답다는 것이며, 자식다운 행동이란 부모에 대하는 행동이 자식답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예를 통해 단적으로 말하면 사회 생활은 사회 어딘가에 위치를 차지하는 자가 그 위치를 차지하면서 서로 상대에 대하여 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잘 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상호행위가 적절히 되어서야 사회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사회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와 그것에 따르는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 그 동시에

함께 사회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같은 것으로 공유하는 것이 상호행위가 원활하게 되기 위한 빠뜨릴 수 없는 조건인 것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유아가 매일 자신을 돌봐주는 어떤 여자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인식하고 그 동시에 자신은 어머니에 대해 '자식'이라는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은 4살 무렵부터라고 하지만 그런 인식도 또 주변 어른들과의 상호행위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가수 아즈사미치요(梓みちよ)처럼 고운 목소리로 "안녕, 아가야. 내가 엄마야"라고 상냥하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아이'가 '어머니'를 추상화하고 인식해 가는 것은 아니다.

4) 생활세계의 의미부여

평소에 그다지 화제가 되거나 의식되지 않은 것이지만, 또 하나 사회적 상호행위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빠뜨릴 수 없는 조건에 대해 부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전문 용어를 쓰면 '생활세계(현실)의 의미'나 '상황의 정의'의 공유라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생활하는 생활세계가 어떻게 의미부여되고 정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 생활을 함께 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생활세계는 자연물이나 인공물로 구성된 객관적·물리적 공간 따위도 아니고, 우리 주관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우리가 보는 물건 세계는 본래 의미 없는 혼돈(chaos)의 세계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사는 현실의 생활세계는 의미 없는 세계가 아니다. 오히려 의미가 과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세계 전체로 의미부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각 부분에도 다른 부분과 명확히 구분된 명명(命名)이나 의미부여가 되어 있다. 실제로 행위를 하는 장소

(상황) 하나 하나에 대해서도 거기가 어떤 장소인지 의미 부여가 되고 정의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학교는 공부하는 곳,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구분이나 명명(命名), 의미부여는 사회나 문화 차이에 따라 다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사는 사회에서 생활공간이 어떻게 구분되어 명명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른 사람과 사회 생활을 함께 하고 상호행위하면서 하나 하나 습득하고 공유해 가야 한다.

예를 하나 제시하자. 우리 일본사람은 화학표기에서는 같은 물(H_2O)이라고 표기되는 물질을 그 온도가 대략 체온이하일지 체온이상일지에 따라 구분하여 체온이하인 상태를 '물'이라 명명하고 체온이상인 상태를 '온수(湯뜨거운 물)'라고 명명하면서 생활한다. 그러나 영어권 사람들은 체온이하일지 이상일지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워터(water)'라고 명명해서 생활한다. 따라서 홍차를 달이려고 하는 영국인 남편이 아내에게 '워터(water)'라고 말을 걸면 아내는 비등(沸騰)한 뜨거운 100도의 물(H_2O)를 가져가야 하고, 한여름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일본인 남편이 아내에게 "물!"이라고 큰 소리를 내면 차게 한 물(H_2O)을 내는 것이 거기에 어울린 행동이라는 것이다.

'장소'에 대해서도 같다. 50살 나이의 남자와 20세 여자가 어떤 장소에 있고 남자가 여자한테 "벌거벗으세요."라고 했다고 하자. 만약에 그 장소가 병원 진찰실이라면 남자인 '의사'가 여자인 '환자'에게 한 말로서 적절한 것으로 모두가 다 납득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것을 다른 장소인 대학교 연구실에서 말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중년 남성 '교수'가 여자 '학생'에게 한 성희롱으로 소송 사건에까지 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같은 사람이 같은 것을 같이 했다고 한들 장소가 틀리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는 하나의 예이다. 진찰실과 연구실은 각각 다르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희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소동이 발생하지 않고 서로 적절한 행동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장소나 상황이 그 사회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미리 빈틈없이 다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생활세계의 의미나 '현실'이라는 것도 사람들의 상호행위에 의해 만들어져 공유되어 간다고 하는 게 버거(Berger)나 룩맨(Luckmann)등 현상학적 사회학자들의 견해이다 (야마구치세쯔오(山口節夫)번역 『일상세계의 구성(日常世界の構成)』. 그렇다면 사회 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생활세계의 의미를 습득해 현실을 구성해 가는 과정이 사회 생활 과정 즉 타자와 상호행위를 되풀이하는 과정과 병행(竝行)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사람들은 생활세계 속에서 여러 사람(타자)과 상호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활세계의 의미나 상황 정의를 습득하고, 습득한 의미나 정의를 공유하는 것으로 상호행위를 한층 더 원활하고 안정되게 전개해 가는 것이다. 요즘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말과 행동을 이해 못한다고 하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른과 청소년들이 생활세계의 의미나 상황 정의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간 성가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일은 부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상 이 절(節)에서는 인간의 사회적 상호행위를 성립시키는 조건으로서 말과 의미, 사회적 위치와 역할 인식, 그리고 생활세계의 의미 등을 공유하는 것을 들어 설명해 왔다. 그러나 그 외에도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무엇이 바람직하고 또 무엇이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관한 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치라든가, 장면에 따라 어떤 행동은 용서되고 어떤 행동은 용서되지 않는지의 기준인 규범이라든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보기 안 좋은지를 좌우하는 미의식 등도 공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이것들 모두가 사회생활 속에서 즉, 같은 장면에서 같은 체험을 한다는 타자와의 상호행위를 되풀이하면서 몸에 익히고 공유해 가는 것이라는 의미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세 가지와 똑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3. 재인식되는 인간의 사회적 특성

1)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새 학설

최근 2-30년 동안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새로운 학설이나 새로운 연구가 눈에 띄었다. 30년 전 정도부터 로렌츠(Konrad Lorenz)등이 앞서 연구한 동물행동학, 20년 전에 윌슨(Edward O. Wilson)이 제창해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회생물학, 그리고 약10년 전에 미국에서 코스미데스(Leda Cosmides)등에 의해 시작된 진화심리학 등이 그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것이다.

콘라드 로렌츠(Konrad Lorenz)는 동물행동학의 과학적 연구방법을 확립하고 그 방법에 의해 동물 행동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밝혀 노벨상(Nobel prize)을 수상했다. 그가 밝힌 흥미로운 사실은 많지만 예를 들면 같은 종(種)의 동물끼리는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고 의식적(儀式的)인 투쟁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사회관계의 유지와 종(씨앗)의 보존을 꾀하고 있다는 '종(種)의 보존본능설'이나, 회색 기러기의 병아리는 태어나서 처음에 본 '움직이는 물건'을 그리워하고 그 뒤를 따라다닌다는 '각인 현상(genetic imprinting phenomenon)'으로 알려지는 회색 기러기의 애착행동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동물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행동은 인간세계에서도 보여지는 것일까? 로렌츠(Lorenz) 연구의 영향도 있고 최근에 이러한 관심으로부터 인간 신생아의 연구가 활발해져 수많은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밝혀진 유아의 행동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소개한다.

또한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은 1975년, 바로 「사회생물학(sociobiology)」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동물의 사회적 행동은 생물학 원리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윌슨(Wilson)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 생활의 많은 측면은 우리 인간의 유전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설(說)은 나치스(Nazis)풍

의 유전적 결정론의 재래라고 해서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철학자, 문화인류학자, 사회학자 등으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동물이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의 공감이나 봉사 등은 사회적 본능이라고 하는 다윈(Darwin)의 설(說)을 바탕으로 인간의 이타적 행동의 생물학적 근거를 밝혀 내려는 연구 등이 점점 흥미로운 성과를 올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새로운 진화 심리학이 제창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이고 일본에서는 1997년 4월에 『과학』이라는 잡지에서 특집('인간의 마음 진화')으로 소개되었다. 동정이나 공감 등 사회적 감정을 포함한 인간의 심리적 활동에는 유전적 기반이 있고 그 기반은 인간이 사회 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진화해 온 것이라는 입장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한 학파이다. 제창자인 코스미데스(Cosmides)의 연구는 "인간은 호혜적(互惠的)이타행동을 현저하게 진화시킨 동물이다"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사쿠라오사무(佐倉統), 『진화론의 도전』), 앞으로의 연구성과에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 생활이 인간 뇌를 진화시켰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에 의거한 연구가 됨에 따라 동물이나 인간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몇 가지 밝혀졌다. 그런데도 인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면서도, 모르는 게 아직 많이 있다. 그 중에는 왜 인간의 뇌가 신체 크기에 비해 이렇게도 커진 것일까 라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뇌의 비대화에 대해서는 최근의 다양한 연구에 의해 거의 밝혀졌다. 결론을 말하면 인간의 뇌가 커진 것은 인간의 사회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옛 설(說)은 인간의 뇌가 큰 것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설(說)은 이것을 부정하고 인간의 뇌가 큰 것은 인간의 사회

적 활동의 복잡함에 기인한다고 했다. 이것은 인간 사회력을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더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자.

인간의 뇌는 같은 크기 포유류의 약11배나 되고 있고 늘어난 뇌의 대부분이 신피질(新皮質)이라고 불리는 뇌의 표면부분이며 뇌 전체 용량의 80-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신체 크기에 비해 뇌가 큰 것은 역시 집단으로서 사회 생활을 하는 원숭이 종류도 그와 같다. 그래서 뇌의 크기와 사회 생활과의 관계에 관한 첫 연구가 영장류(靈長類)에 대해 실시되었다. 그 결과 1990년과 92년에 일본과 미국에서 영장류도 그 종류에 따라 사회집단의 크기가 다른 것과 뇌의 크기도 집단 크기에 거의 비례해서 커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사와구치 토시유키(澤口俊之), 『뇌와 마음의 진화론』) 발견자 한사람인 댐퍼(Damper)박사에 따르면 "영장류의 큰 뇌의 진화에 대한 도태압(淘汰壓)은 그 사회적 행동의 복잡함에 기인 한 것이 확고하다"라는 이 가설은 이미 '사회적 뇌 가설(social brain hypothesis)'이라고 명명되어 널리 알려지는 일이 되었다고 한다.(『과학』 1997년4월호)

이 가설은 인간에게도 해당되는 것일까? 당연히 연구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지만 고생한 끝에 인간의 뇌 크기가 150명 규모의 집단을 유지하는데 적당한 크기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 왜 인간의 뇌는 150명 규모의 집단에 맞는 크기라는 건가? 아직 전통적으로 수렵과 채집에 의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근대화된 도시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하이테크(high technology)의 은혜를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만드는 기능집단의 크기를 조사해 본 결과, 멤버끼리 서로 잘 알고 서로 신뢰를 갖고 상호행위를 하고 있어 그것만으로 통합이 된다. 그래서 안정된 집단은 대부분이 150명 정도의 규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인간들은 지금까지는 몇 개의 언어를 구사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기(機器)를 이용하는 것으로 더 많은 인간과 서로 교류하고 있지만, 복잡하게 조직된 사회일수록 어느 정도 규모

의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집단에 소속하는 것이 사회 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어쨌든 인간이 사는 사회 생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그 만큼 뇌의 정보처리기능을 크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며 그 결과로서 뇌의 신피질(新皮質)이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인간 생존에 있어서 사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간 속에 있는 사회력의 근본

인간이 오래 살고 인간으로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사회 생활을 하는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나타내는 생물학적인 근거는 이 외에도 몇 가지 있다. 그 하나가 인간의 호혜적 이타행동이다. 호혜적 이타행동이란 혈연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서도, 나중에 답례를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도 다른 누군가의 이익이 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한다는 인간 행동을 말한다. 이 설(說)을 최초로 외친 사람이 하버드(Harvard) 대학교에서 사회생물학 제창자로 알려진 윌슨(Wilson)의 조수를 맡고 있었던 로버트 트리버스(Robert Trivers)였다. 트리버스에 의하면 인간은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동물이며 공동 생활을 지속시키기 위해 이러한 호혜적 이타행동을 필요로 하고 진화시켜 온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타행동 그 자체는 다른 동물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인간사회에서 가장 진보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된 것은 인간의 경우 호혜적 이타행동이 진화하는 조건, 즉 ① 같은 멤버(member)와 오래 교제하고 있다 ② 서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 ③ 기억력이 좋다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완벽하게 갖추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뭔가 실험에 의해 증명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데 '4장 카드 문제'를 이용한 사회적인 과제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제로 여러 사람에게 부탁하여 실험을 해서 호혜적 이타 행동설이 사실인 것

을 증명한 사람들이 있다. 진화심리학 분야를 개척한 코스미데스(Cosmides)와 토우비(Tooby) 두 사람이다.(전게서, 『진화론의 도전』). 사회 생활을 지속시키는데 적절한 이 특성이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인간이 원래 사회를 만들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4) 호혜적 이타행동과 시각적 공동주시

우리 인간들이 호혜적 이타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떤 입장에 있고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딘가에 자동차 사고로 남편을 여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를 떠맡아 살아가야 하는 여성이 있다고 치자. 친구 한사람이 그 여성에게 상당액의 생활비를 제공했을 경우, 돈을 제공한 그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과부가 된 여성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여성의 곤혹한 마음 속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남의 마음속을 알 수가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마음의 이론」이라고 불리는 연구는 1970년대 후반에 프레맥(Premack) 등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최근의 연구는 그 메커니즘(mechanism)에 대해서도 해명해 가고 있다.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의 발달은 우선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주시하는 것으로 인해 그 사람 속에서 야기된 어떤 종류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쉽게 말하면 아기는 엄마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보면서 엄마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적절하게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때를 마음이 만들어 낸 최초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시각적 공동주시(視覺的共同注視)'라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언제쯤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최초의

실험을 한 사람이 스카이푸 등이었다.

영아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어머니가 눈맞춤(eye contact)을 한 다음에 시선을 천천히 이동시켰을 때 영아가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갈 수 있는 지를 조사한 것이다. 그리고 태어난 지 불과 2개월의 영아라도 어머니의 시선을 쫓을 수 있는 아이가 있다는 것, 생후(生後)14개월의 영아는 모두 시선 따라가기(追視)를 할 수 있다는 것 등을 확인했다. 그 후에도 몇 사람이 더욱 궁리를 해서 실험을 했지만 어느 실험에도 영아는 훨씬 빠른 시기부터 다른 사람의 시선을 헤아려서 알고(察知) 그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렇게 해서 새끼 고양이를 보면서 엄마가 "귀엽네"라고 말하면 같은 새끼 고양이를 보고 있는 영아는 "귀엽다"는 감정이 어머니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을 이해하고 자기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이 "귀·엽·다"란 음(音)의 연속으로 표현하는 것을 습득해 가는 것이다. 마음 형성에 있어서도 상호행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호혜적 이타행동도 시각적 공동주시도 이런 행위는 인간이 타자와 공동 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행동특성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런 특성이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갖춰지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중요하다. 인간에게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회력의 근본이라는 것이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러한 특성을 충분히 가동시킬 수 있는가 라는 문제다.

4. 사회력이란 무엇인가

1) 인간이 사회를 만들다

평소에 우리는 회화 중에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산다."라든가 "사회의 벽은 두터운데." "사회도 바뀌었네."라든가 "너도 앞으로는 사회의

거센 파도를 극복해 가야 해."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그 때 이러한 것을 말하는 사람도 그것을 듣는 사람도 마치 '사회'라고 하는 실체가, 우리 인간하고는 달리 존재할 것 같이 생각하고 실체로서의 사회가 있는 것을 특별히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또 우리는 "청소년이 변한 것은 사회가 변했기 때문이다."라든가 "이런 사회에서 인류는 못산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급히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라는 말을 한다. 그 때도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듣는 우리가 머리 속에서 떠올리고 있는 것은 사회 구조나 조직, 제도나 법률, 교육의 내용 등이며 각 개인을 떠올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금 침착하게 생각해 보면 사회라는 실체가 인간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여기에 이런 사회가 있다거나 저기에 저런 사회가 있다고 지시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사회 따위는 없다. 사회가 실체로서 존재한다면 그것은 살아서 생활하는 인간 바로 그것이며 인간이외에 사회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없다. 사회의 실체인 것 같이 생각되는 조직이라든가 제도, 법률 등도 인간이 사회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편의(便宜)로서 잠정적으로 만든 가짜나 꾸며낸 일이며, 살고 있는 우리 인간과 떠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제도나 법률 등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것이며, 사정이 좋지 못한 거라면 언제든지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 우선 이점을 확실히 머리 속에 넣어주었으면 한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의 실체는 사는 인간이다. 몇 사람의 사는 인간이 모이는 상태가 사회의 실체이다. 그렇다고 해도 인간 몇 명이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이 단지 막연하게 모이는 상태에서는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몇 사람이 혈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계약이라고 한 어떤 관계를 가지고 모이는 상태가 사회라는 것이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모여 생활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항상 그런 상태를 서로 기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오래 지속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약속거리를 몇 개 만들게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약속한 거리를 일반적으로 총칭(總稱)해서 '문화'라고 하는데 그 문화 내용이 말이나 구조(제도)나, 규칙(규범)이나 규정(법) 등이다. 이러한 문화의 숫자를 늘리고 개량하면서 복잡한 것으로 만들어 왔다. 그것들을 세대에서 세대로 계승하면서 사회 규모를 크게 만들어 견고하게 해 온 것이 인간 사회의 대강의 역사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2) 사회를 만들고 운영하고 바꾸는 힘으로서의 사회력

그러면 본서에서 말하는 「사회력」이란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하면 사회를 만들고, 만든 사회를 운영하면서 그 사회를 끊임없이 고쳐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인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은 사회력은, 일본에서 '사회화'라고 번역된 짐멜(Simmel)의 'Vergesellschaftung'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힌트를 얻어서 내가 만든 새로운 개념이다.

사회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화(socialization)'라는 개념을 어떤 사회에 태어난 청소년이 그 사회의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의미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짐멜이 이용하는 사회화 개념은 짐멜 독자의 개념이다.

짐멜의 사회화개념에 대해서는 본 장 제1절에서 조금 설명했지만 여기서 또 한번 복습해 보자. 짐멜이 말하는 사회화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되풀이하는 상호행위가 사회를 성립시키는 실체이고, 그것이 사회를 사회답게 한다는 의미로 사회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사회를 성립시키는 일상생활의 어떤 상태를 사회화라고 명명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에 비해 내가 말하는 사회력은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것을 만들어 내 가는 인간측의 능력이나 의욕 등을 말한다.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짐멜이 쓴 Vergesellschaftung

이라는 용어를 해체하면 Ver-라는 접두어와 gesellschaft라는 본체부분과 -ung라는 접미어 세가지부분으로 분리된다. 접두어인 Ver-는 '자-'라든가 '시-작'이라고 하는 일을 시작할 때 지르는 소리같은 것이고 본체인 gesellschaft는 사회 바로 그것이며 접미어인 -ung은 영어의 진행형을 가리키는 -ing와 같은 것으로 어떤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나타내는 명사형이다. 이렇게 보면 Vergesellschaftung은 바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작업 그것으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구동력'을 연상시킨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보인다. 그래서 본서에서 말하는 사회력은 사회의 어떤 종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주체적으로 보기 좋은 사회를 구상하고 만들어 운영하면서 개혁해 가는 의도와 능력,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일상적인 활동을 포함한 의미로 쓰고 싶다.

이렇게 설명하면 많은 사람이 심리학의 상용어가 되어 있는 '사회성'의 개념과 어디가 다른 것인지를 반문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회성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 자주 사용되는 것치고는 그 정의나 내용이 심리학자 사이에서도 공유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가 지지하는 생활습관, 가치규범, 행동규범 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사회적 적응성'을 가리키고 좁은 의미에서는 '타자와의 원활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대인관계능력'을 뜻하고 있다고 말한다.(한타스스무(繁多進)他編『사회성의 발달심리학』)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심리학자 사이에서 사회성에 관한 이미지가 각각 다른 것은 아니다. 심리학자가 이미지 하는 사회성이란 끝까지 따져보면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포인트로서, 적응성이 있는 것이 사회성이 있다는 것의 증명이라는 점에서는 인식이 일치한다고 말해도 좋다. 이러한 이미지로 정의하면 사회성이란 '이미 있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지혜나 기술을 몸에 익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 사회에 지배적인 가치관이나 행동 방식이나 풍습, 말씨 등을 몸에 익히고 해야 할 일을 실수 없이 하며 다른 멤버와의 인간 관계도 원만한 사람

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회성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본서에서 말하는 사회력과 지금까지 주로 심리학자에 의해 사용되어 온 사회성이 어디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사회성 개념이 실제로 있는 사회의 측면에 중점을 것에 비해 사회력이란 새로운 개념은 사회를 만드는 인간 쪽에 역점을 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성이 기존 사회에의 적응을 취지로 해서 그 사회 유지를 지향하는 개념이라고 한하면 사회력은 기존 사회의 혁신을 지향하는 개념이라고 해도 좋다.

요즘 청소년의 사회성 부족이 지적되어 있지만 나의 견해를 말하자면 젊은 세대에 결여되어 있는 것은 사회성이 아니고 사회력인 것이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사회력이 없는 것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선행세대인 어른들 자신도 상당히 사회력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회력의 밑바탕으로서의 타자인식

본서에서 말하는 사회력에 대해서 설명해 왔지만 이러한 의미의 사회력이 아무 밑바탕 없이 갑작스럽게 배양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확고한 사회력에는 그만큼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력의 기반이 되는 내용이나 능력이란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이다. 하나는 타자를 인식하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타자에 대한 공감능력 내지 감정이입(感情移入)능력이다. 이제부터 그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자.

우선 타자인식에 관한 것이다. 타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타자를 이해한다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안다는 것이다. 그럼 다른 사람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평소에 우리는 자주 "그 사람은 정말 상냥한 사람이야."라든가 "그녀는 멋쟁이네." "그는 머리가 좋다."등을 말한다.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안다는 것이 마치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센스, 능력을 안다는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타자인식이란 그러한 뜻이 아니다. 제2절에서 설명한 것과 조금 겹쳐지지만 타자를 인식한다는 것은 우선 사회 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각각 어떤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이다. 살이 찌고 안경을 쓴 순박하게 보이는 남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우리는 그 사람과 그러한 외모를 한 인간으로서 상호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상호행위를 할 때에 염두에 두는 것은 그 사람이 차지하는 '남편'이나 '아버지', '선생님', '조합임원', '시조모임 회원'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치다. 그러므로 그가 살이 찌거나 안 찌거나, 옷을 입는 센스가 좋거나 안 좋거나, '선생님'인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은 바뀌지 않는다. 사회 생활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튼튼한 사회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G·H·미드(Mead)는 청소년이 타자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을 "타자를 받아들인다"라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을 자신의 내부에 받아들이는 것은 그대로 사회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 할아버지, 할머니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진 사회적 위치이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사회제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왜 타자인식이 사회력 형성의 밑바탕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타자인식에는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상대 입장에 서서 혹은 상대의 처지가 되어서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안다는 것이다. 더욱 이해하기 쉬운 예로 말하자면 최근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것은 의사의 대를 잇게 하려고 하는데 아들인 자신이 의학부로 들어갈 만한 성적을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생

각되어 자기도 모르게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 입장이나 상대 처지가 되어 일을 생각하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4) 사회력의 동인(動因)으로서 다른 사람의 공감능력

또 하나는 타자에게 하는 공감능력 내지 감정이입능력이다. 이것은 상대 입장이나 상대에게 주어진 상황에 관한 이해이다. 또한 상대가 그러한 입장과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에게 동정적이고 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배려심(일본말로 오모이야리라고 한다. 동정심도 내재된 상대에 대한 배려)'이라는 말이 있지만 정말로 상대에 대하여 호의적인 '마음'을 '보내는'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 쓰이는 용어로 '친 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이 있다. 친 사회적 행동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시간이나 노동력 등의 자원(resource)을 아무 보상금도 바라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을 말한다. 자원봉사 활동도 그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행동도 타자 공감능력이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타자 공감능력이란 상대를 배려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친 사회적 행동을 행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의 움직임이나 눈에 보이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언제나 마음 속에서 탄식하는, 밖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직접 알든 말든 상관없이 항상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간접적으로 알던 남자가 교통 사고로 아이 두 명과 아내를 남겨두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겨진 부인과 아이들은 앞으로 생활이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게 된다. 또한 아프리카의 말라위에서 가뭄으로 식량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듣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골머리를 앓는 것이 그거다. 이렇게 항상 다른 누군가를 걱정하는 사람은 항상 사회에 관한 관

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사회를 만들고 사회를 운영하고 사회를 바꿀 힘있는 인간 사회력은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5. 사회력의 쇠약(衰弱)이 불러일으키는 사회 위기

사회력이란, 좋다고 생각되는 사회를 구상하고 그것을 만들고 운영하며 그 사회를 보다 좋은 것으로 바꿔 가는 힘이라고 했다. 또한 사회력이 본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밑바탕으로서 완전한 타자인식이나 타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사회력이 없어졌을 경우 사회는 어떤 사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인가? 본장 마지막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보자.

1) 사회적 응집력(凝集力)의 쇠약(衰弱)이 불러일으키는 것

사회학에는 사회적 응집력과 비슷한 용어로서 사회적 응집성(凝集性)이 있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응집성(凝集性)이란 '집단내의 성원을 붙들기 위해 작용해야할 전체적 장(場)의 힘'을 말하고, 집단이 그 성원을 끌어당기고 통합시켜 가는 매력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응집력도 그것과 비슷하지만 집단 그대로의 매력이라기보다 각자 성원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에 의해 전체가 통합되는 측면에 중점을 둔 말이다. 사회 성원이 갖추고 있는 사회적 자력(磁力)이라고 해도 좋다.

회사든 조합이든 정당이든, 학교의 반이든 모임이든, 또 취미 서클이든 환경보호를 위한 시민단체든, 조직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멤버인 사람들 전부가 소속하는 집단이나 조직에 대한 소속의식이 높고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수행하려는 의욕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집단

이나 조직이 오래 계속되고, 더욱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변해 가기 위해서는 멤버끼리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성원이 그러한 감정을 가지면 한사람 한사람이 집단이나 조직을 더 좋게 만들자는 의욕을 가지고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것은 사회전체에도 해당된다. 그 사회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라고 시대를 사는 사람들 전원이 이 사회에 태어나기를 잘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사회는 저절로 전체로서 마땅한 기능을 충분히 달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가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사회에 응집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회 성원이 몇 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조건이란 단적으로 말하면 우선 사회 성원이 서로 타자에게 관심과 애착과 신뢰감을 가지고, 사회를 성립시키는 요소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말을 같은 의미로 쓰고,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자는 자신에게 어떤 역할이 기대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이 행동하는 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고, 자신이 생활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도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 등이다.

그런데 일본의 현상을 볼 때, 이런 조건이 현저하게 손상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서로 무관심의 정도가 깊어져 있고 그 결과로서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식이 쓰는 말을 부모가 이해 못하며 선생님이 하는 말의 의미가 학생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자신이 행동하는 장소가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행동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 알 바가 아니다"라고 무관심하고 있다. 사회가 어떤 상태이건 "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라며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등의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같은 사회에 살면서 사람들이 서로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관심에만 구애되어 산다면 사회가 좋아질 리가 없다. 오히려 사회 붕괴가 단숨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일본에서는 사회 응집력이 극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응집력의 저하는 사회 붕괴를 촉진시키는 것만이 아니다. 사회적 응집력의 저하는 사람들이 사는 충실감마저도 빼앗는다고 해도 좋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남에게 인정받고서야 사는 실감을 하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2) 긴급을 요하는 사회구성력의 향상

현재 지구의 전 인구는 60억 명을 초월하고 있다. 세계 은행의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50년 정도로 그것이 100억 명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100억 명중 80퍼센트가 자원이나 환경조건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제3세계(第三世界) 사람들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만약에 지구상의 인구가 세계 은행의 예측대로 증가해 가면, 벌써부터 식량부족이나 자원부족이나 환경오염 때문에 궁지에 서 있는 인류의 장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약간 과장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지구전체를 시야에 두면서 사회의 장래 모습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사회 개혁과 씨름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이나 사회에 대한 강한 관심이고 사회 구조를 해부할 능력이고 바람직한 사회를 생각해 디자인하는 구상력이며 무엇보다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운영해 가는 능력과 의욕이다. 이런 능력이나 자세야말로 본서가 말하는 '사회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본의 현상을 볼 때 어른 세대든 청소년 세대든 이런 능력을 현저하게 저하시켜왔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것이지만 21세기의 사회 만들기를 운영해 갈 사람은 지금의 청소년들이다. 머지않아 지구상에서 떠나는 어른세대는 몰라도 다음 시대를 짊어질 청소년들이야말로 사회를 만들어 그것을 운영해 가는 자질이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젊은세대 쪽이 더 사회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상이다. 아무리 안달해봤자 앞으로 사회를 짊어져 가는 사람은 지금의 청소년들이다. 그 중요한 그들이 사회에 관심이 없고 사회를 운영해 가는 힘도 없다면 사회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장래는 불 보듯 뻔하다. 젊은세대의 사회력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아갈 것인가? 이야말로 우리 어른에게 부과된 긴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3장 사람의 사회력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1. 고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2. 신생아가 가지고 있는 상호행위능력
3. 사회력의 기반이 형성되는 메커니즘
4. 사회적 원기가 형성되지 못한 아동의 사례

제3장 사람의 사회력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제1장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일본의 청소년들을 보면, 사회력이 발달했다고는 볼 수 없는 행동특성이나 사회현상을 자주 보게된다. 자기중심적이거나, 인간관계에 능숙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무관심하거나, 과제설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역활동에의 참여가 극도로 부족하거나 하는 특성이나 현상들이 그것들이다. 현재 일본 청소년들의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과 사회변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고찰해 보기로 하고, 그 전에 인간의 사회력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것이다.

'사회력이 없다'라는 지적은 수없이 많다. 사회성을 길러야 한다는 선의의 목소리도 수없이 많다. 문부성이 권하는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한 교육도 그 한 예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구호만 앞세울 뿐, 보다 중요한, 즉 어떻게 하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은 제시되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력을 기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이론과 메커니즘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지반조사와 설계도 없이 지진에 견딜만한 튼튼한 건물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자가당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력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한다. 이 장에서는, 신생아와 영유아에 관한 최신의 연구성과를 살펴본 후, 사회력이 형성되는 과정과 방법을 깊이 해명해 보기로 한다.

1. 고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1) 급속하게 발전한 신생아 연구

근래 2-30년 간에 있어 두뇌과학과 인지과학의 진보는 놀랄 만 한 것이다. 유능한 인재가 두뇌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실험장치, 기구, 해부방법 등의 개발로 인해 복잡한 뇌의 기능이 잇달아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기능은 물론 말이나 의식, 감정, 기억 등 인간 특유의 심리 등도 뇌와 관련지어 설명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두뇌과학의 진보에 자극을 받아 발전된 것이 인지과학이다.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지과학이 시작된 것은 1960년 이후이다. 부르너(J.S.Bruner)와 밀러(G.A.Miller), 이 두 사람이 당시 심리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행동주의적 심리학에 반발하여 1960년 하버드대학에 인지과학센터를 개설한 것이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이 되었다. 그 후 사이먼(H.A.Simon), 햅(D.O. Hebb), 촘스키(N.A.Chomsky), 패트넘(F.W. Putnam)등이 인지과학의 발전에 공헌해, 지금은 인간과학의 주류를 이루게까지 되었다. 인간의 특유한 능력은 유전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생후의 학습에 의한 것일까. 언어능력에 대해서도, 인지능력에 대해서도 이 논쟁은 오랜 기간 계속되어왔다. 인간에게는 과연 어떤 능력이 선천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일까. 연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흘러갔다. 선천적인 능력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생아를 연구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출생 직후의 신생아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학습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생아연구가 개시되게 된 것이다.

신생아란, 생후 1개월까지의 영아를 말한다. 계속 잠만 자는 신생아의 능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신생아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 것일까. 사람이나 물건이나 생물 등, 주위에 있는 것을 과연 인지하고 있는 것일까. 인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 또 이런 의문들을 풀기 위해서는, 말도 할 수 없는 아기에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밝혀내고 말겠다는 의욕 있는 학자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차례차례 풀어가고 있다. 한 예로, 학자들은 언어대신 흡인반사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었다. 신생아는 젖을 빨 때는 깨어있기 때문에 빠는 횟수가 많을수록 주위에 대해 주의를 한다고 한다. 이것을 확인한 후, 흡인정도와 흡인횟수를 측정할 수 있는 압력센서가 달린 젖꼭지를 입에 넣어 측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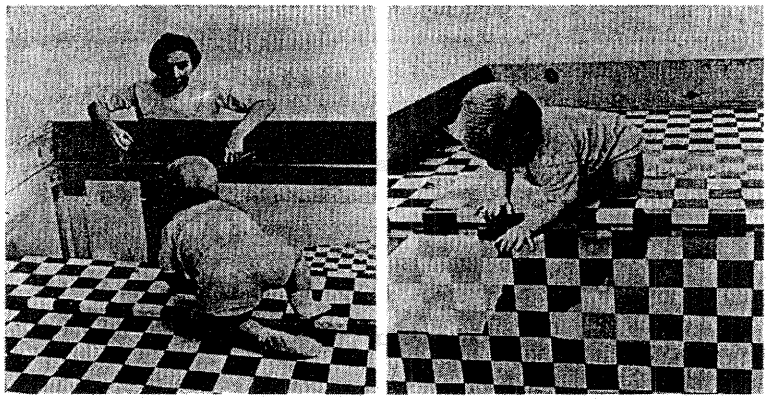
순화의 이용도 그렇다. 신생아도 같은 자극에는 금방 싫증을 내고 새로운 자극을 원한다고 한다. 신생아의 이런 반응을 이용하면, 신생아가 무엇과 무엇을 변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판츠(R.L.Fantz)에 의해 개발된 신생아의 주시를 이용한 '주시선호법'도 유력한 방법이었다. 신생아의 반응을 보기 위해 '주시선호법' 장치를 준비해, 제시하는 두 가지의 자극물 중 어느 쪽을 더 오래 주시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아기의 선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런 새로운 여러 가지 측정방법에 의해, 신생아연구는 급격한 진보를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도의 능력을 차례차례 밝혀 내게 된 것이다.

2) 새로워진 "인간의 무능설"

영국경험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존재인 존 록은, 자신의 저서 "교육론"에서, 아이는 백지상태에서 태어나, 그 아이가 어떤 인간이 되는가는, 그 후의 교육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하고 있다. 존 록의 이런 언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는 메시지로서 지금까지 전해져오고 있다. 그러나, 아이가 아무 능력도 없이,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무능설"이기도 하다. 사실, 막 태어난 신생아를 보면 눈도 뜨지 못 하고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울기만 하기 때문에 무능력해 보인다. 우리들의 신생아에

대한 그런 체험이, 인간의 무능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보기에는 연약하고 무능력해 보일지라도, 신생아는 놀랄 정도의 고도의 능력을 몇가지 가지고 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부터 그 능력을 구사해 주위의 환경에 대해 흥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지과학자 잭 메렐(J.Mehler)과 공동연구자 엠마누엘듀프(E.Dupoux)의 공동저서 "인간으로서 태어나다(人間として生まれる)"(카토우 하루히사(加藤晴久)·마스시게 카즈오(增茂和男)譯「영유아는 알고 있다」(赤ちゃんは知っている))에는, 지금까지 밝혀진 신생아의 선천적 능력이 여러 가지 소개되어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근래 출판된 발달심리학관계의 책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소개되어있다. 그 중에서 전문가에게는 벌써 알려진 것이기는 하지만, 놀라울 만큼 뛰어난 신생아의 능력을 2개정도 소개하겠다.

우선 첫 번째로, 신생아가 가지고 있는 생득적 능력이, 아주 고도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 후의 신생아연구를 가속화시킨 계기를 만든 깁슨(E.J.,Gibson)과 워크(R.D.,Walk)[1]의 시각적 절벽 실험을 소개하겠다.



[그림 6] 시각적 단애(斷崖) E.J.Gibson&R.D.Walk(1960), "A comparative and analytical study of visual dedpth perception", Psychological Monographs, p.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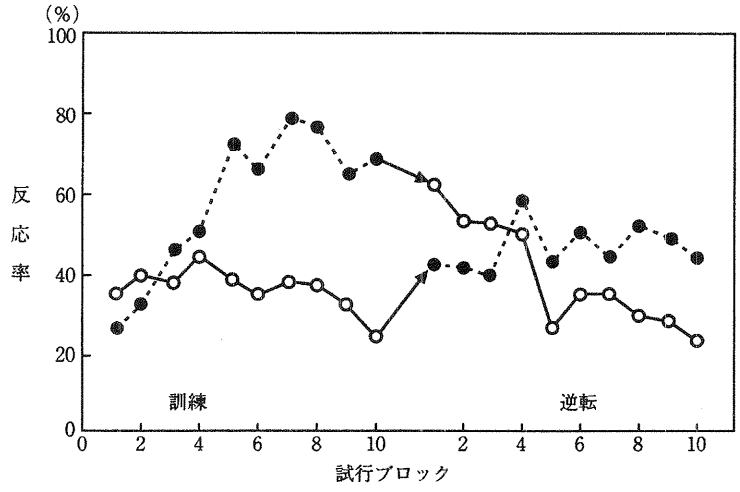
1) E.J.Gibson&R.D.Walk(1960), "The visual cliff", *Scientific American,* 202,2-9.

이 두 사람은 [그림 6]의 사진으로도 알 수 있듯이 평면바닥에 격자무늬의 덮개를 덮어씌워, 그 위에 안전유리를 끼웠다. 그리고 1미터 전방에 절벽을 만들어 그 위를 같은 높이의 안전유리로 덮어씌우는 장치를 만들었다. 아기를 그 유리 위에 올려놓고 반대측에서 엄마에게 부르도록 하는 실험이었다. 처음에는 엄마를 향해 이동하던 아기가, 절벽에 가까이 가자 이동을 멈추었다. 이것은, 아기가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절벽에서 떨어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런 판단은 생후 20주 정도부터 보이는 것으로, 생득적 능력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식랜드(E.R.Siqueland)와 립싯(L.P.Lipsitt)[2]은 더욱 놀랄만한 신생아의 능력을 밝혀냈다. 그들이 실시한 실험은, 생후 4일정도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부저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머리를 회전시키면 포도당의 단 액을 주고, 다른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 머리를 회전시키면 포도당액을 주지 않는 훈련을 시켰다. 훈련 후에 아기가 부저소리에 반응하는지를 보는 실험이었다. 결과는, [그림 7]과 같이 수 차례의 시행 후, 아기는 부저소리에 확실히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놀랄만한 것은 그 후의 실험이다. 식랜드 등은 부저소리에 확실히 반응하게된 신생아들에게, 이번에는 소리를 역전시켜 부저소리가 아닌 소리에 머리를 회전시켰을 때 포도당액을 주는 실험을 했다. 그런데 [그림 7]에서 처럼 신생아는 수 차례의 시행 후에 놀랍게도 반응을 변화시킨 것이다. 그 후, 이런 종류의 실험은 머리를 회전시켰을 때 불이 들어오는 식의 생리적인 만족을 수반하지 않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실험이 행해졌다. 그러나 결과는 위의 실험과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다(타지마 노부모토(田島信元) 외저 「아동의 발달심리학」(子どもの發達心理學)등).

---

2) E.R.Siqueland&L.P.Lipsitt(1966), "Conditioned head-turning in human newborn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3,356-376.



[그림 7] 신생아의 변별학습훈련과 그 역전.

●은 반응을 보였을 때. ○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부저소리 훈련단계까지는 이 두가지의 차가 적지만, 훈련 후에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극을 준 후에도 수 차례 혼란이 있는 후에 그 후 반응이 확실하게 보인다.
E.R.Siqueland&L.P.Lipsitt(1966), "Conditioned head-turning in human newborn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3.

이런 실험 등으로 인해, 신생아가 가장 기본적인 생득적 능력으로서 '수반성(隨伴性)탐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신생아는 외부에서의 자극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인 생물이 아니라, 자기 쪽에서 적극적으로 환경에 작용을 가하는 적극적인 생물이라는 것이다. 신생아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가하는 작용과 그것에 수반되는 반응을 관련시켜 일종의 가설을 세운 후, 다음의 작용으로 그것을 검증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신생아가 수반성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심리학자 파포젝은, 신생아가 가설을 검증했을 때 꼭 웃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얼마나 고도의 능력인가!

이런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한 상황에서 우리는, 신생아가 무능하고 무력한 생물이라고는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으로 인간의 무능설은

완전히 부정되었다고 말해도 될 것이다. 인간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직후부터 환경과 상호행위를 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오히려 아주 유능한 생물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2. 신생아가 가지고 있는 상호행위능력

신생아의 연구로 인해, 영유아가 놀랄만한 고도의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앞에서는, 신생아가 절벽을 위험하다고 판단한 후, 그것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또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해 그 특징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적절한 행동을 선택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소개했다.

신생아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선천적 능력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멀리 있는 물건이라도, 그 크기나 그곳까지의 거리, 이동하는 빠르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물이 시간, 공간적으로 영속하고 있다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또 사물에는 견고한 것이 있어서 동시에 같은 장소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 등 학습 없이도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신생아가 구비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선천적 능력을 모두 소개하는 것이 이 절의 목적은 아니다. 이 책의 주제에 따라, 이곳에서는 아동의 사회력형성과 그것을 촉진시키는 능력에 한해 알아보려고 한다. 사회력의 형성과 그것을 촉진시키는 능력이란, 두 말할 것도 없이, 타자와 상호행위를 비롯해 그것을 반복해서 실시하는 능력을 말한다.

1)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능력

우리가 타자와 상호행위를 할 때, 언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언어는 원래 음소의 조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소리를 구별하기 위해 신생아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며 그 차이를 학습해 나가는 것일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여러 가지 실험에서, 신생아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음(목소리)에 대해 아주 민감하고, 모국어를 구별할 수 있고, 목소리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메렐은 자기의 실험을 포함해, 세계각지에서 실시된 많은 실험 예를 자신의 저서에 소개하고있다. 저서에는, 신생아는 태어날 때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태어나기 몇 주전부터, 청각기관이 완전하게 작동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앞의, 「영유아는 알고 있다」(赤ちゃんは知っている))

여기서는, 그 연구내용을 살펴본다. 이 방면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일련의 실증연구를 한 토마그룹은, 신생아가 어머니의 목소리에 민감하다는 것과 소리가 나오는 곳을 향해 얼굴을 돌린다는 것, 또 복잡한 음을 듣고 그것을 구별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 등을 증명했다. 또, 컨던(W.S.Condon)과 샌더(L.Sander)[3]는 신생아에게 언어음과, 그것과 다른 리드미컬한 음을 들려주었을 때, 일반적인 리듬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지만, 말소리에는 그 리듬에 동조해 신체를 움직이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했다. 게다가, 에이머스(P.D.Eimas,)[4]는 생후4개월의 영유아가 "p(푸)"와 "b(부)", 그리고 "t(투)"와 "d(두)"의 음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고, 메렐은 프랑스에서 생후4일된 신생아가 모국어(프랑스어)와 외국어(러시아어)를 변별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신생아에게는 어떤 소리라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발성기능을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다.

---

3) W.S.Condon&L.Sander(1974), "Neonate movement is syncronized with adult speech". *Science*,183,99-101

4) P.D.Eimas et al.(1971), "Speech perception in infants". *Science*,171,303-306.

또, 신생아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고 사투리를 쓰든지 쓰지 않든지 간에, 또 그 소리의 발생에 결함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람의 언어를 기본적인 음절로 구분해서 언어로서 인지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것들이 출생직후의 신생아에게 가능하다는 것은, 출생후의 학습에 의존하지 않는, 선천적인 능력의 존재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촘스키는, 단어를 마스터한 유아가 그것을 짜 맞춰서 문장화 해, 자유자재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보편문법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능력이 선천적으로 영유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언어를 매개로 하는 타자와의 상호행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2) 어른의 얼굴을 구별하는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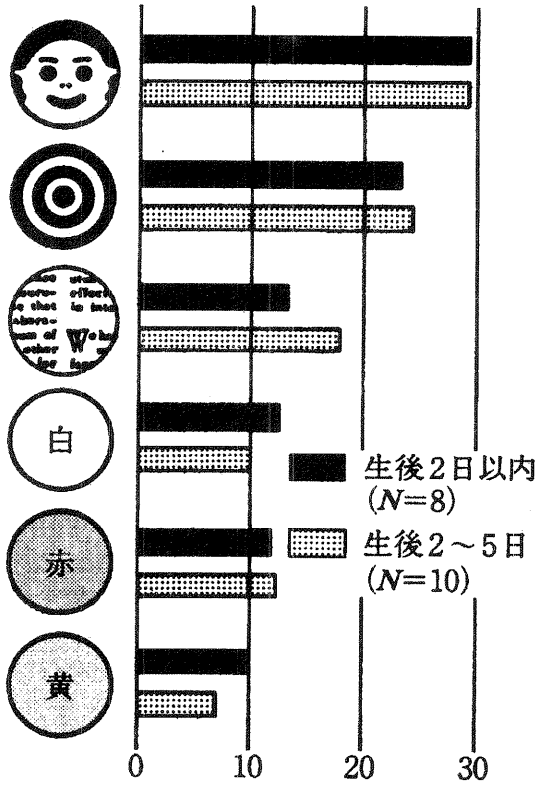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능력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얼굴, 특히 어른의 얼굴을 식별해서 주시하는 행위도 또한 주목할 만 한 능력이다. 출생직후의 신생아가 엄마 쪽으로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육아를 통한 경험으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생아가 사람의 얼굴을 인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실험은 제법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해져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것이 판츠(R.L.Fantz)의 실험이다. 판츠는 [그림 8]과 같이 6종류의 패턴을 준비해서, 태어나서 2일-5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에게 각각의 패턴을 교대로 반복해가며 보여주었다. 어느 패턴에 주시시간이 가장 길어지는가를, 주시 선호법으로 검토한 결과, [그림 8]의 막대길이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패턴보다 복잡한 것을, 또 비사회적인 패턴보다는 사람의 얼굴에 가까운 사회적인 패턴을 보다 길게 주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랜은 다른 패턴을 이용해 태어나 몇 분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에게

같은 실험을 실시했다. 결과는 역시 사람의 얼굴을 식별해 그것을 눈으로 좇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결과는 뇌 속에는 자기와 같은 사람얼굴의 프로트타이프(원형)[5]가 있어서, 그것에 비추어 주위에 있는 많은

대상 속에서 사람얼굴을 구별할 수 있다는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생아에게는 선천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탐지하는 능력이 주어져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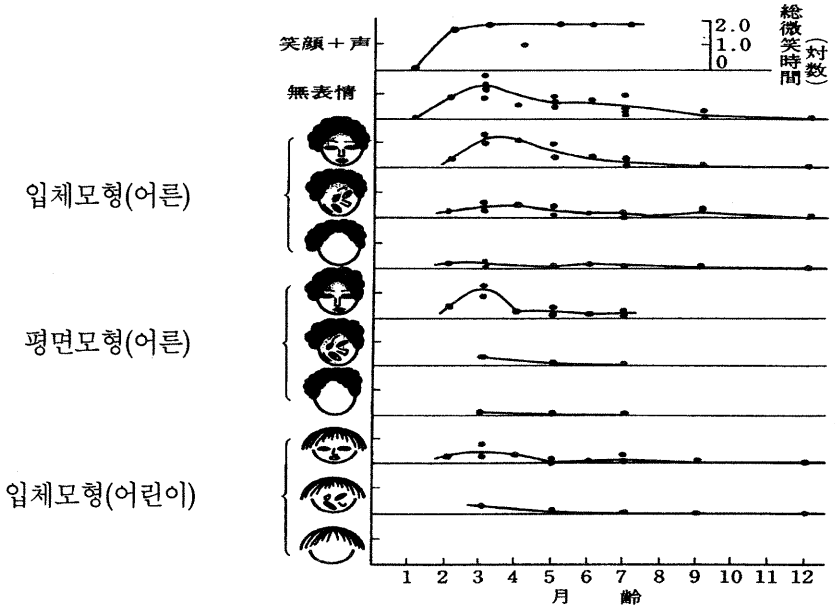


[그림 8] 6종류 자극에 대한 신생아의 주시

[참고 자료] 주시 시간의 퍼센트 Fantz, Pattern vision in newborn infants, Science, 1963, p.140

5) 역자주 : 카테고리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 또는 카테고리 사례의 특징 정보를 추상화시켜, 통합화한 단일 표상

그러나, 신생아는 살아있는 실물 인간이 아니면 흥미를 가지지 않는 것 같다. 신생아는 생후4개월 정도가 지나면 사람얼굴 패턴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30년 이상 신생아의 관찰과 연구를 계속해 온 일본의 발달심리학자 타카하시 미치코(高橋道子)의, 신생아의 미소반응을 이용한 흥미 있는 실험을 소개하겠다. [그림 9]가 그 결과이다.



[그림 9] 얼굴자극에 대한 미소반응(타카하시 미치코(高橋道子)외 「아동의 발달심리학」(こどもの發達心理學)

타카하시가 실시한 실험은, 생후1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영유아에게 진짜 사람의 얼굴(실험자)뿐만 아니라 [그림 9]와 같이, 어른얼굴 인형, 아동얼굴 인형, 또 어른얼굴 가면, 또 웃고 있는 얼굴과 눈 코 입이 없는 얼굴 등을 섞어서 보여주는 것이었다. 어떤 것을 보였을 때 영유아가 미소짓는가를 관찰해, 미소짓는 시간을 측정한 것이었다. 많은 포유

류 중에서도 미소지을 수 있는 것은 사람뿐이라는 것도, 타자와의 상호행위의 계기로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보고 미소를 짓게 되는 것은 생후2개월 정도부터라고 한다.

[그림 9]를 보면, 미소가 사람을 의식한 행위이며, 시간이 경과하면, 진짜 사람얼굴이나 어른얼굴 인형, 그리고 가면에는 상당히 긴 미소반응이 측정되는 것을 알게된다. 그러나, 그것도 겨우 5개월 정도까지로, 그 후에는 진짜 사람(실험자)이외에는 반응을 하지 않게 된다. 5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영유아가 기뻐서 미소를 짓는 것은 유일하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뿐으로, 게다가 실험자가 웃으면서 말을 걸었을 때뿐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영유아가 상호행위를 하기를 원하는 대상은, 자기에게 반응해주는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영유아가 원하는 것은 아동이 아니라 어른이라는 사실이다. 아동의 얼굴인 경우, 인형과 같은 입체형이어도 영유아의 미소반응은 3개월 정도에 조금 보일 뿐으로, 5개월 이후에는 그것에 대해 전혀 미소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영유아가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어른의 얼굴인 것이다. 그것은, 영유아가 상호행위의 상대로서 원하는 것은 어른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아동의 사회력형성에 있어서 어른과의 상호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3) 어른을 흉내내는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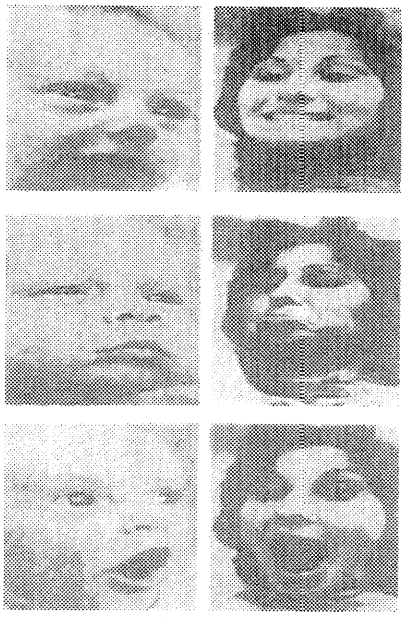
아동이 타인의 동작이나 행동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많은 학습이론의 대부분이 이것을 전제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배움은 흉내에서"라는 말과 같이, 아동은 성장하면서 타인이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흉내냄으로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을 배워간다. 그러므로, 모방은 사회력을 키우고, 사회성원으로서 어울리는 사회적 요소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동이 어떻게 그 모방을 익히게 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타인의 동작을 흉내내는 행위는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니다. 흉내내는 상대 그리고 흉내내는 동작이 발생하는 상대의 신체부위(장소)를 확인한 다음, 그 동작의 이미지를 자기의 머리 속에 넣어둔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대의 동작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부위가 자기의 신체에서 어느 부위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머리 속에 있는 동작이미지를 자기의 신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흉내는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런 과정을 아동이 어떻게 학습하는 것일까. 아니면, 아동의 모방하는 능력은 선천적인 것일까.

생후 수일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아가, 어른얼굴의 움직임이나 표정을 모방하는 것은 몇몇의 실험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것은 원초적 모방(原初的模倣) 또는 공명동작(共鳴動作)이라고 불려진다. 메르초프(A.N.Meltzoff)는 어른이 혀를 내거나 넣거나 하거나, 입을 열거나 닫거나 하는 동작을 보고 신생아가 같은 동작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필드(Field)는 [그림 10]과 같이 어른이 기뻐하는 모습이나 슬퍼하는 모습,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신생아가 그것을 모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어른의 얼굴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그 표정을 읽고 그것을 자기의 얼굴로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선천적으로 구비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굴이외의 동작모방은 어떨까. 동작모방 실험 중 하나로, 바텐털 그룹이, 영화를 사용한 실험이 있다. 사람신체의 특징적인 11개 장소의 관절에 꼬마전구를 달아, 주위를 캄캄하게 한 후 촬영을 해, 영화를 만들어 그것을 생후 3개월의 영유아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꼬마전구의 움직임만으로 그것이 사람의 동작이라는 것을 구별했고, 뿐만 아니라 '걷기'와 '달리기'동작의 차이를 변별할 수 있었다고 한다(앞의 『영유아는 알고있다』(赤ちゃんは知っている))



[그림 10] 신생아는 어른이 표현하는 "기쁨" "슬픔" "놀라움"의 표정을 모방한다

물론, 그 영유아가 그 동작을 흉내내서 곧 걷게 되거나 달리게 되거나 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생후 3개월의 영유아가 얼굴이외의 신체동작에 있어서도 그 특징을 자기 머리 속에 이미지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방의 기초가 되는 높은 표상능력도 또한 생득적으로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 마음의 이론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타자와의 상호행위를 할 때, 각각의 상황에 맞춰, 그리고 상대방에 맞춰, 그리고 그 상대방이 지금 어떤 감정상태에 있고, 또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어서, 자기에게 어떤 동작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읽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렇게 귀찮고 어려운 것이 가능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법 많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매일매일 그런 것을 해가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상대방도 상황이나 입장이 같다면, 우리와 동일한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인지과학에서는, 타인이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느끼고, 같이 의도하고, 필요로 하고, 믿고 예감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이론'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자면, 우리들이 이런 '마음의 이론'을 습득하는 것이야말로, 사회력이 형성되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제2장, 제4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음의 이론'에 근거해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력의 원동력 되는 것이다.

이런 능력을 아동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타자와의 상호행위로 인해 후천적으로 습득된 것일까, 아니면 그 근본적인 것이 선천적으로 아동에게 있었던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해 답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 것도, 신생아였다. 신생아는 마음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 신생아를 대상으로 마음의 이론의 유무를 검토한 실험은 아직 없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꽤 많이 있다.

심리학자 피아제(J.Piaget)의 이론에 의하면, 4살까지는 자기중심적인 시각밖에 가지지 못하므로, 타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므로 자기 이외의 타자의 마음을 추측하거나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동에게 말로서 반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반응시키는 실험방법을 고안한 최근의 연구에서, 피아제의 이론을 뒤집는 결과를 몇 가지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웰먼(H.M.,Wellman)은 3살이 되는 아동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 주인공의 마음을 그 아동이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놀람'이나 '괴로움', '기쁨' 등의 표정을 한 마스크를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반응을 검토했다. 결과, 3살에 벌써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런 실험결과를 검토한 메렐은, "아동은 2살 반에서 3살 때 벌써 타자가 여러 가지 정신상태를 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며, 자기의 행동 또는 자기의 반응형태를 결정할 때 아동은 타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추측을 기반으로 결정한다"라고 단정하고 있다(앞의 「영유아는 알고 있다」(赤ちゃんは知っている)).

그리고 또, 가족이 아동에게 욕구나 의도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은 생득적으로 정신상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어서, 그것을 타인이나 자기 자신을 특징짓는 데에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즉, 아동은 타자와의 상호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타인의 마음을 추측하는 능력의 기본적 요소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3. 사회력의 기반이 형성되는 메커니즘

1) 아동의 고도의 능력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아동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은 상당히 고도의 것이다. 앞에서는 그 중에서 타자와의 상호행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한정해서 보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몇몇은 아동에 대한 우리들의 고정관념을 크게 뒤엎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것으로 놀라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 우리가 아동의 높은 능력에 놀랐다면 그 다음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동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고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가하는 것이다. 이 의문에 대답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말을 정리해 보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① 사람은 타인과 함께 사회를 만들며, 함께 사회생활을 해 나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

② 사회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매일매일 타자와 상호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타자와 원만하게 상호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나 가치, 역할, 현실에 대한 의미부여 등 사회적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타자와 공유해야만 한다.

④ 사회적 요소를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상호행위를 반복해야만 한다

⑤ 사회적 요소의 습득이 사회력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해 온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력은 타자와의 상호행위에 의해 익혀지는 것이며, 또 사회력의 형성이 타자와의 상호행위를 더욱 원활하게 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해 사회가 더욱 안정되고, 더 나아가서는 더욱 좋은 방향으로 변혁되어져 가는, 그런 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동물이지 않으면 안되며, 사회적 동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력을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상호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면, 앞의 의문에 대한 답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있다.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아동에게 고도의 능력을 준 것은 단지 그 능력으로 타자와의 상호행위를 개시하고 지속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없다면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회력을 형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사회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에게 본능을 주었듯 사람에게 사회력이라고 하는 본능을 선천적으로 주지 않았는가 하는 반문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추측해 본다면 아마 답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능력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사회력을 키워 종(種)을 늘려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 사회력을 기르지 못한 채 결국은 멸종의 길을 걸을 것인지를 시험해 보고싶었던 것은 아닐까.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해 보았지만, 사실 이 설명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2) 사회력의 원동력이 만든 제1스텝

아동의 고도능력의 목적은, 그것을 전부 발휘해 타자와의 상호행위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그 결과 양질의 사회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사회력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나는 이 과정을 3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1단계는 '사회적 원기의 형성', 제2단계는 '사회적 요소의 공유', 그리고 제3단계는 '사회적 행위의 일상화'이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최초의 단계이다.

우선, 사회력의 전제라고도 할 수 있는, 사회적 원기형성의 중요성과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한다.

최초의 단계, 즉 사회적 원기가 형성되는 시기는, 연령으로 말한다면, 0세에서 3세까지로 생각된다. 사회적 원기라는 것은 내가 만든 말이기는 하지만 조금 딱딱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회적 풀(social paste)'이라든지 '사회적 자력(social magnet)'이라고도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편이 사회력의 전제인 사회적 원기에 대해 이미지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들이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풀이 종이와 종이를 붙이는 역할을 하듯이, 또 자석이 바늘과 바늘을 붙이는 역할을 하듯이,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원기는, 사람과 사람을 붙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을 붙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단적으로 말한다면, 아동이 자기자신이외의 사람(타자)에 대해 관심과 애착과 신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사회적 원기가 사회력형성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기본이 되어 그 후 제2단계에서의 타자와의 상호행위를 자기의 의사로서 적극적으로 계승해 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아동의 내부에 타인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나 신뢰감이 없다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 교류, 체험을 함께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 알고싶다, 그 사람이 좋다,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는 등의 마음의

움직임, 이른바 사회적인 끈끈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타자와의 상호행위를 시작하는 일도, 또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원기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가장 이른 단계에서 그것이 바르게 키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이 사회적 생활을 해 나가고, 사회운영에 참여하며, 그리고 사회의 개선과 개혁을 해나가기에 필요한 사회력을 자기의 힘으로 키워나가는 과정은, 전 생애에 걸친 긴 과정이다. 그런 길고도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가는,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자기 속에 확실하게 형성되어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사회력형성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적 풀, 즉 이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될 타자와의 상호행위를 지속시켜가는 힘이 될 사회적 원기는, 뭐니뭐니해도 어린 시기에 확실하게 키워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풀(사회적 원기)은 어떻게 키워지는 것일까.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아동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도능력을 전부 발휘시키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타자와의 상호행위에 관련되는 능력을 전면적으로 발휘시키는 것이다.

아동의 상호행위능력을 발휘시킨다는 것은, 그 아동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그 아동의 움직임에 하나하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반응한다는 것은, 아동이 자기 쪽을 보고 웃으면 자기도 같이 웃어주고, 아동을 안아 올리거나, 말을 걸어주거나 하는 것으로, 아동이 손이나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며 "이거 뭐야?"라고 물으면, 확실하고 조금은 밝은 목소리로(엄마말로), 그것의 이름을 말해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해주는 등이다. 당연하다고 보면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그 당연한 것을 대충 넘어가지 않고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사회적인 풀을 키우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사회력이 강화되는 제2단계

사회력 형성과정의 제2단계는 사회적인 요소를 공유해 가는 단계로, 연령적으로는 4세 정도부터 청년기가 끝나는 25세 정도까지 일 것이다. 아동이 이 기간동안에 습득해서 공유해 가는 것은, 제2장 제2절에서 열거한 것과 거의 같은 것이다. 반복하자면 언어와 그 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과 자기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역할행동이며, 생활세계에의 의미부여이며, 가치나 사회규범, 미의식 등이다. 몸에 익혀야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열거해보면 그 대부분은 집에서는 부모가 가정교육을 통해, 학교에서는 교사가 교육을 통해,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가령, 말 한마디를 예로 들어 보더라도, 어머니의 설명만으로 아동에게 "개"라는 생물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국어사전에 있는 의미를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가 있어, 국어사전을 펼쳤다고 하자. 그곳에 설명되어 있는 것은 "가축의 한 종류. 개 과의 육식동물. 스파이, 밀정 등등"등이다. 이런 설명을 듣고 아동이 "개"를 이해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같은 의미를 공유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와 아동이 개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개라고 불리는 동물을 함께 키워보는 등의 체험을 함께 하는 것, 즉, 개를 매개로 해서 상호행위를 반복하거나 해서야 비로소 어머니와 아동이 같은 의미를 공유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 우리들이 평소의 대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은, 모두 음의 연속이다. 주말에 취미로 목공을 시작한 아버지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에게 "거기 망치 좀 갖다 줘"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 경우, "망,치,좀,갖,다,줘"라는 연속음이, 아들에게 망치를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는 행위를 비롯해, 그 일련의 음의 연속이 의미하는 의미내용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다는 것은, 그 행위가 실천된 후에야

겨우 알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어, 그리고 언어의 의미도,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라고 불리는 기호를 사용해 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상호 행위를 계속해 감으로써 습득되고 공유되어 가는 것이다.

위치나 역할이나 현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것들이 공유되어 가는 과정은 훨씬 복잡하다. 예를 들면, 잘 알려진 타니카와 슌타로(谷川俊太郎)씨의 그림책에 「나」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남자애들한테는 여자아이
아기한테는 언니
오빠한테는 여동생
엄마한테는 딸인 미치코
아빠한테도 딸인 미치코
할머니한테는 손녀인 미치코
켄이치삼촌한테는 조카인 밋짱
나
삿짱한테는 친구
선생님한테는 학생
옆집의 아줌마한테는 야마구치 댁의 두 번째 아이
(타니카와 슌타로(谷川俊太郎) 「나」(私), 후쿠인칸서점(福音館書店))

위의 문장에서 선을 그은 곳을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위치, 또는 사회적 카테고리 등으로 부르고 있다. '미치코'라는 이름을 가진 한 명의 여자아이의 위치는,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 위치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아동이 이해한다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물론, 자기가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기 위해서는, 상대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상대도 자기가 그렇듯이 상황에 따라 그 위치가 변하는 존재인 것이다. 예를 들면, 미치코의 아버지는, 미치코에게는 "아버지"이지만, 어머니에게는 "남편"이며,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며, 켄이치삼촌에게는 "형"이며, 그리고 할머니(아버지의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떤 의미로는, 아동이 사회생활에서 한사람 몫을 하게 되기에는,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아동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다양한 상호행위의 반복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야미즈 사치코(速水幸子)씨는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일본 아동들이 자기와 타자와의 위치관계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은 4세 정도부터라고 말하고 있다(코지마 히데오(小嶋秀夫)저 『수유아의 사회적 세계』(授乳兒の社會的世界)). 그렇다면, 사회력형성의 제2단계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타인과의 상호행위에 이은 상호행위의 연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긴 상호행위의 연속을 적극적으로 극복해야만, 유용한 사회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4) 관습화와 혁신의 제3단계

사회력이 형성되는 제3단계는, '사회적 행위의 일상화'라는 단계로서, 연령적으로는 성인기에 들어서는 20대 후반에서부터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60세 정도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업을 마치고 취직을 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자기의 가정을 꾸려가며 그 위에 자원봉사활동이나 클럽활동, 지역의 여러 가지 활동에 참가하거나, 또 환경보호운동이나 정치운동 등의 사회적인 활동에도 참가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가 되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은 대부분 몸에

익히게 되고, 또 공유하게 됨으로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엇갈리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게 되고, 자기의 입장을 고려해 자기가 해야할 일을 하게 되며, 평소에 교제가 있는 사람은 물론,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함을 교환하거나 간단한 소개를 듣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지위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며, 선악구별도 할 수 있게 되며, 연령이나 위치에 맞는 복장을 할 수 있게 되고, 상대나 장소에 맞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회력에 대해 말하자면, 대부분은 몸에 익힌 사회적 요소를 이용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더욱 잘, 그리고 더욱 안정된 것으로 수정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가 되면 종종 사회력 형성이 멈춰버려, 정해진 행위를 단지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더욱 사회력의 진가가 시험되며, 그 본령이 발휘될 것이 기대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하자. 제2장 제4절에서 이미 설명한 것이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사회력은 단순히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몸에 익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상으로, 사회를 만들고 사회를 더욱 잘 운영하며, 나아가 지금 있는 사회를 개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사회를 크게 변혁시켜 가는 의욕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의 사회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정확한 타자의식과 타자에 대한 강한 공감능력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사회력이 그런 내용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있다면, 이 단계에 사회력의 진가가 발휘되어야만 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될 것이다.

사회력의 진가는, 사회에 대한 강한 관심으로부터 사회의 개량과 변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타자에 대한 강한 공감을 원동력으로 삼아 이타적 행동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동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의 사회력을 이 수준에 맞추려는 행위를 게을리 해

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들은 챗바퀴도는 일상생활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권을 넘어 상호행위의 대상인 타자를 찾아 세계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미국의 우수한 사회학자 라이트 밀즈(C.W.Mills)는 사회학적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스즈키 히로(鈴木 廣)역, 「사회학적 상상력」(社會學的想像力)). 사회력을 형성하는 이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바로 밀즈가 말하는 사회학적 상상력의 강화이다. 개개인의 사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폭넓게 사회문제를 생각하고, 사회를 보는 넓은 시점으로 개인의 문제를 생각하는 사회학적 상상력이야말로, 사회력의 수준을 한층 향상시키는 기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5) 사회력 형성에 관련되는 신체 제 기능

사회력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사회력이 형성되는 프로세스가 이미지화 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절의 끝 부분에는, 사회력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 정리해 보겠지만, 그 전에 사회력형성에 관련되는 몇몇의 신체기구에 대해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은, 아동의 발달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기원전부터 사람의 발달을 좌우하는 것은 환경인가 유전인가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논쟁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유전형질을 통해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며, 환경으로부터는 그것에 대한 응답이 있고, 또 환경으로부터의 응답에 대해 다시 반응을 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반복함으로 인해 생득적인 능력의 성능을 높인다는 견해가 상식이 되었다.

그것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능력도,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이나 환경으로부터의 응답이 없다면,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 다는 것이다. 후지나가 타모츠(藤永保)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인간'환경과 '사물'환경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후지나가 타모츠(藤永保)저 『발달심리학에의 권함』(發達環境學へのいざない)). 사회력의 형성이라고 하면, '인간'환경의 영향과 그것에의 응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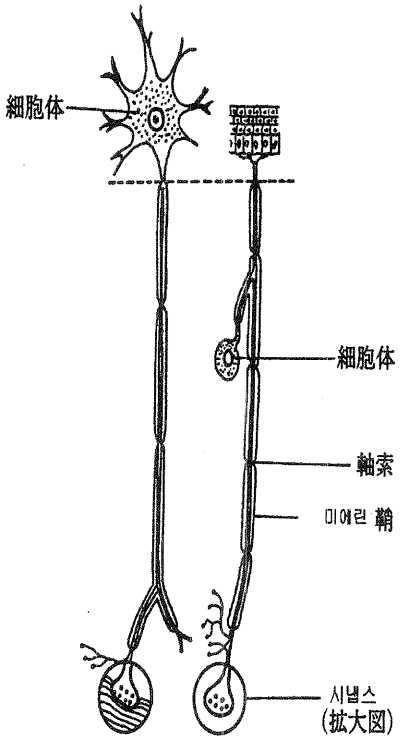
다음으로 확인해 두어야 하는 것은, 벌써 여러 번 반복한 것이지만, 아동이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고도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영어로는 'competent'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캄퍼튼트라는 것은, 지능지수가 높다든지, 천재적인 음악재능이 있다든지, 100미터를 10초로 달릴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바로 환경과의 상호행위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은 누구든지 환경과 상호행위를 할 준비를 하며, 또 그렇게 해 줄 것을 바라며 "응아!"하고 힘차게 고함을 지르며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또 하나 공통인식이 필요한 곳은, 운동이나 인식이나 기억이나 정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인간발달을 관장하는 신체기관은 뇌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뇌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겠다.

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이다. 이 뉴런은, 핵이 있는 세포체와 그것에서 나와 있는 한 줄의 축색돌기(軸索突起)[6], 그리고 여러 개의 수상돌기(樹狀突起)[7]로 구성되어 있다. 또, 뉴런에는 다른 세포에는 없는 특수한 구조가 2가지 있다. 그것이 미에린(수초(髓鞘))[8]과 시납스[9]이다.

---

6) 역자주 : 뉴런의 구성요소, 신경세포에서 나온 긴 돌기
7) 역자주 : 신경세포의 돌기 중에서, 세포체 가까이에서 끝이 나는 짧은 돌기
8) 역자주 : 신경주위를 형성하고 있는 층
9) 역자주 : 신경세포 상호의 접합부위



[그림 11] 신경세포(뉴런)의 형태.

왼쪽은 운동뉴런, 오른쪽은 감각뉴런의 모식도. 그림에서 동그라미로 표시된 것은 시냅스의 구조를 표시한 것이다(사카키하라 요우이치(榊原洋一)저 「사람의 발달이란 무엇인가」(ヒトの發達とは何か)에서)

미에린이라는 것은, 뉴런의 축색돌기를 싸고 있는 집으로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미에린으로 싸여있는 신경선유는 유수선유(有髓線維)라고 하며, 그것은 전기신호를 시속200키로의 속도로 전달할 수 있다. 시냅스라는 것은 뉴런과 뉴런을 연결하고 있는 중간부분의 것으로, 뉴런에서 전기신호로 전해지는 정보를 신경전달물질로 변환시켜 다른 뉴런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

아동의 뇌는 태어나는 시점에서는 미숙하지만,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을 받아 작동을 시작하여 급속하게 완성품이 되어진다. 이것은, 뇌는

어릴 때부터 사용할 수록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필요하지만, 자극을 받은 뇌 속에서는, 미에린화와 시납스형성이라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뇌 속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진행시켜, 정보처리능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런 작업은 아동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고, 의미 있는 최초의 언어인 초어를 시작하는 생후10개월 정도부터 12개월 정도까지의 기간동안에 급속하게 진행된다고 한다((사카키하라 요우이치(榊原洋一)저 『사람의 발달이란 무엇인가』(ヒトの發達とは何か)).

외부에서 보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동의 뇌 내부에서는, 사실은 대단한 변화가 매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뇌의 기저부(基底部)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자폐증아동의 경우는, 대뇌피질부에서의 미에린화나 시납스형성에 곤란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살 정도의 '보통 아동'의 뇌 속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정보처리작업의 정비가 더욱 정교해져, 심신이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자폐증아동의 경우는 그 이상의 발전을 보이지 않으므로 부모들은 그때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어?"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앞의 『자폐증으로부터의 메시지』(自閉症からのメッセージ)에서). 자폐증아동에게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증상은, '보통 아동'의 경우라 할지라도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태만하게 되면 자폐증아동과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신체기구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어졌지만, 여기서 확인한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사회력이 형성되는 구조에 대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포인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정리해 보자.

6) 빈번한 상호행위가 사회력을 키운다

우선, 아동이 선천적으로 '인간'환경에 반응하는 고도의 능력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아동은 어른의 얼굴을 구별하고, 얼굴의 표정을 모방하며, 사람의 음성을 정확하게 변별하며, 또 같은 음을 발성할 수 있다. 어른이 웃는 얼굴로 말을 걸면 자기도 웃는 표정을 만들어 그것에 반응하며, 엄마의 목소리에는 옹알이(cooing)[10]로 반응한다.

주위에 있는 물건을 손이나 손가락으로 가리켜 어른들의 반응을 촉진하며, 부모의 시선을 따라 자기도 같은 것을 본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것을 전제로 자기의 행동을 정하여 반응하는, 그런 능력인 것이다. 아동은 이런 것을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런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작동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어떤 능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해발(解發)되고, 가동(稼働)되지 않는 이상, 보물을 썩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자극으로 인해 그것이 해발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발 되다'라는 평소에 별로 들어보지 못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영어로는 'release'라고 하여, 일본에서도 신곡의 레코드나 CD를 발표할 때 릴리스한다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단어는, 원래는 구속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어떤 것이 풀린다는 의미로, 아동의 능력을 해발 한다는 것은, 그것을 전부 가동시키기 위해 스위치를 켠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다시 강조한다면, 능력을 해발 하는 행위라는 것은, 즉, 스위치를 켜는 행위라는 것은, 어머니를 비롯해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 아동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어른들의 자극을 받아 아동의 능력은 그 동작을 개시하게 되고, 그리고 어른들과의 반응을 반복함으로 인해 그 성능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오해가 없도록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싶다. 금방, 능력의 해

10) 역자주 : 좋아하는 사람을 향한 의미 없는 소리 「아」,「우」,「쿠」 등

발에 대한 설명에서 어른들로부터의 자극을 받는 측면을 강조했다. 그러나, 외부의 자극이 없다고 해서 아동의 능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자력으로도 외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외부에 자극을 준다고 하더라도, 어른들로부터의 적절한 응답이 없다면 아동의 행동은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이 되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른들의 응답(자극)이 해발의 역할을 한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해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렇다면 아동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해발 되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눈이나 귀 등 신체로 느낀 자극을 뇌의 피질부에 송신하여, 미에린화 그리고 시납스 결합을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외부로부터 자극(정보)을 받아, 방대한 수의 시납스가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 근육과 관계하며 작업을 진행한다는 뜻이다. 뇌 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뇌의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즉, 복잡한 신경(정보)회로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보다 스피디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보다 많은 작업을 한 뉴런이나 시납스는 그만큼 성능이 높아진다는 사실이다(앞의 『사람의 발달이란 무엇인가』(ヒトの發達とは何か)). '장기증강(long term potentiation)'[11]이라고 불리는 뇌의 이와 같은 성질은, 기억이나 학습 기능의 근본이기도 한 것이 밝혀졌다. 뇌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받아, 사용되면 사용될 수록 성능이 높아지고 안정되며 성숙도를 높여간다고 한다.

다른 사람을 향한 애정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 등을 핵으로 하는 사회력의 형성에 있어서도 마찬

11) 역자주 : 시납스 전의 뉴런의 축색에, 높은 빈도의 연속적 자극을 줌으로 인해 지금까지보다 큰 시납스 후전위(後電位)가 되어, 장시간에 걸쳐 시납스 전달이 상승하는 현상

가지이다. 외부로부터의, 다시 말해 사람으로부터의 자극이나 반응이 많으면 많을 수록 농도 깊은 안정된 사회력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사회력의 형성을 위해서는, 타자와의 상호행위가 한층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다양한 타자와의 상호행위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사회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바람직한 사회를 구상하며, 그것의 실현을 위해 참여하려는 의욕이나 능력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력은 보다 차원이 높은 양질의 것이 되어 가는 것이다.

4. 사회적 원기가 형성되지 못한 아동의 사례

1) 예외적인 사례가 가르쳐주는 사실

아동의 사회력의 원기가 지금까지 설명해온 것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형성된다는 것이 사실일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력에 특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히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 딸이나 아들은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 착한 아이들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설령, 신생아를 바로 사람으로부터 떼어내어 4, 5년 정도 사람과 접촉을 차단시킨 상태로 성장시킬 수 있는 실험이 가능하다면, 그 아동이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말은 못할 것이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애착을 느끼는 것도 없을 것이며, 사람과 마음의 교류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즉, 사회력의 원기가 전혀 없는 인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하는 이런 실험은 인도상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력의 원기가 형성되는 과정을 의도적인 실험에 의해 증

명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종종 발생한다. 사정에 의해 생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의 손을 떠나 성장해야 했던 아동이 몇 명 존재했다. 이른바 야생아라고 불리는 아동들이다. 또 부모의 사정으로 인해 낳은 아이를 자기가 키우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리거나 고아원에 맡기거나 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이런 아동들은 주워지거나, 맡겨져서 시설에서 성장하게 된다. '인간'환경이 불충분한 경우, 사회성에 결함을 가지는 아동이 적지 않다. 하스피털리즘[12] 이라고 불리는 증상이다. 게다가, 부모에게 학대받고 성장한 아동들도 적지 않다. 이런 아동들에게서도 사회성이 결여되었다는 연구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예의 아동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초기경험으로서의 타자 상호행위가 전혀 없거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사회력형성의 메커니즘이 맞다는 것을 방증(傍證)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절에서는 잘 알려진 야생아와 고아원 아동에 대해 장기적으로 실시된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겠다.

2) '인간'이 되지 못한 야생아들

우선, 누구나 알고있는 늑대에게 키워진 여자아이, 아마라와 카마라를 소개하겠다.

1920년 9월, 인도의 캘커타 서방 약100킬로 정도의 숲 속에서 자매로 보이는 여자아이 2명이 발견되었다. 한 명은 추정연령 8세의 카마라, 그리고 또 한 명은 추정연령 1살 반인 아마라였다. 물론 2명의 이름은 발견된 후 붙여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발견된 당시 2명은, 언어는 물론 사람의 음성조차 내지 못했고, 손도 사용하지 못했으며 직립보행

12) 역자주 : 부모에게서 떨어져, 장기간에 걸쳐 유아원이나 양호시설, 병원 등에 수용되어진 아동의 심신발달에 생기는 장애. 시설 병이라고도 불림

도 불가능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에게 친근감도 보이지 않았고, 사람이 가까이 가면 이를 드러내거나 했다고 한다. 음식은 육식으로 마치 개처럼 입으로만 먹었다고 한다.

그 후, 싱(J.A.L.Singh)목사 부처가 두 사람을 받아들여 양육하게 되었다. 물론 인간으로 돌아오게 하는 교육도 시켰다. 인간행동습관은 아마라쪽이 빨랐지만, 발견 후 11개월만에 죽고 말았기 때문에 발달과정은 두 살 남짓 정도로 끊기고 말았다. 한편, 언니의 카마라는 그 후 10년 가까이의 발달과정이 관찰되었다. 이에 의하면 그녀의 발달과정은 아주 느렸고, 언어습관을 보면 발견 후 2년이 지난 지점에 2개 단어를 기억했고, 4년 후에는 6개 단어, 7년 후 15살이 되었을 때에도 겨우 45개 단어를 기억했을 뿐이라고 한다. 6년 후에 겨우 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7년 후에는 아이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의 첫 자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나, 9년 후의 17살 때 사망하고 말았다(싱(J.A.L.Singh)저, 나카노 요시타츠(中野善達) 외역『늑대에게 키워진 아이』(狼に育てられた子) 후쿠무라출판(福村出版)). 이것은 인생 초기단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상호행위의 결여가, 이와같이 아동을 인간으로부터 동떨어진 존재로 만든다는 귀중한 사례이다.

1798년, 프랑스 남부 아베롱현의 라코느의 숲에서 발견되어 보호된 남자아이 빅토르(추정연령 12세)의 경우도 거의 비슷하다. 발견된 직후부터 빅토르를 키우며 교육시킨 사람은 이타르(J.M.G.Itard)의사였다. 이타르는 빅토르를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했다고 한다. 예를 들면, 환경을 정비해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극을 주어 신경의 감수성을 높여 본다든지, 인간과의 접촉을 많이 시킨다든지, 언어를 가르친다든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달은 순조롭지 않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이타르가 근무하는 병원의 잡역부를 하면서 살았고, 40세까지 살았다고 한다(이타르(J.M.G.Itard)저, 나카노 요시타츠(中野善達)외역(『아베롱의 야생아』(アヴェロンの野生兒) 후쿠무라출판(福村出版)). 이 역시 인생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격리가 사회적 인간이 되는 것을 불가능케 한 하나의 예이다.

3) 현대의 아생이 지니

한가지 더 최근의 사례를 소개하겠다. 1970년 11월의 어느 날,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템블시의 아동상담소에 한 어머니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방문했다. 어머니가 손을 끌고 들어 온 여자아이의 이름은 지니. 아버지에 의해 외부로부터의 소리도 차단시킨 작은 방에서 1살 8개월부터 거의 10년 간 구금상태로 감금돼 있던 아이였다. 어머니는 남편의 학대가 무서워 그것을 단지 묵인할 뿐이었다고 한다.

지니는 1957년 4월 생으로 그때가 만12세, 체중 25킬로, 신장 137센티미터였고, 같은 연령에 비해 신체의 성장이 느렸다. 그러나, 이변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대소변은 흘러내렸고, 딱딱한 음식은 씹지를 못했다. 그리고 언제나 침을 흘리고 있었으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침을 뱉었다. 여기서 학자들의 관심을 끈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니가 말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과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타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이었다. 사회력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도 그곳이었다. 부모와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그 부모와 전혀 상호행위가 없었던 지니에게서는 사회력의 원기가 전혀 없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지니에 관한 기록을 읽고 있다가, 치료면에서 그리고 연구상 지니에게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협의를 반복한 학자의 한사람, 미국 휴스턴 시에 있는 베일러 의과대학 정신과의사 데이비드 프리드먼 교수가, 지니와 처음 만났을 때 기록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교수가 지니와 만났을 때는 구출 후 2년 정도가 경과한 시기로, 그때 지니는 벌써 14살이었다고 한다. 교수의 견해는, 아동의 사회력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조금 길지만 인용하겠다.

"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는(지니)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다른 두 명의 아동은 아이들처럼 떠들며 놀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때의 인상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녀가 다른 둘을 무시하고 있었다든지, 거절하고 있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는 것 같다. 차라리, 그녀에게 있어서 두 사람은 방의 벽이나 가구와 다름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문제는, 어떻게 이 소녀로부터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의식하게 되고, 타인에게 흥미를 가지거나, 타인을 원하거나 하는 능력을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녀가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자동인형 그대로 일 것이다.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지니가 누군가 한사람의 인간과 특별하게 긴밀한 관계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 ……어떤 교육을 시키건 간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그녀가 누군가 한사람의 인간에게 강한 의존적인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 그 사람과 일체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애착이 형성되지 않는 한, ……그녀가 어떤 기술을 배우든지 간에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통합해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이머(R.Rymer)저, 카타야마 요코(片山陽子)역, 「격리된 소녀의 일기」(隔絶された少女の記錄))

내가 사회력의 원기로서 이미지하고 있는 대부분이 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 원기의 형성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며, 형성된 원기가 그 후 어떻게 기능하게 되는가에 대해, 프리드먼 교수도 또한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4) 사회력이 결여되기 쉬운, 시설에서 자라는 아동

고아원이나 유아원, 또는 양호시설 등에서 육친과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아동들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다. 1950년, 60년대에 많은 연구에 의해, 시설에서 자란 아동들에게서는 신체발육부진이나 정서장애, 언어나 사회성 발달의 부족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벌써 2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나도 도쿄의 신주쿠(新宿)구 시모오치아이(下落合)의 청소년 복지센터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사례를 조사한 적이 있다. 시설에서 자란 아동들은 의무 교육기를 지나면 취직 등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모두가 자연스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일도 생활도 제대로 해내지 못해 해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갈 곳이 없어진 청소년들이 찾아드는 곳이 청소년 복지센터였다. 그곳에 남아있던 청소년들의 상담기록을 보아도, 역시 정서면의 장애나 사회적 상식의 부족이라든지 타인과 협조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카도와키 아츠시(門脇厚司)편, 『인연 없는 사람들』(絆なき者たち)).

이와 같은 증상을 심리학 등에서는 하스피털리즘이라고 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종류의 연구에서 선구적인 연구로서, 이 증상에 이러한 명명을 한 것은,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의 제자 스피츠(R.A.Spitz)였다. 여기서 그가 실시한 연구를 대표적인 사례로서 소개해보자(후지나가 타모츠(藤永保)외 『인간발달과 초기환경』(人間發達と初期環境)에서).

스피츠는 평범한 집에서 자란 아동 100명(사례1)과, 시설에서 자란 아동 200명(사례2,3)을 비교 검토했다. 그러나, 선택된 2개의 시설은 각각의 특징이 있었다. 첫 번째 시설은, 전문의사와 간호사가 있었고 건물도 위생적이었으며 정비도 잘 되어있는 곳으로, 이른바 모델시설이었다(사례2). 그리고 또 나머지 시설은, 비행을 범한 여성의 갱생 모자 기숙사로, 시설도 좋지 않았고 의료 적인 배려도 없는 빈약한 시설이었다

(사례3). 3개의 사례, 각각100명의 아동들을 검토한 결과는 의외의 것이었다. 평범한 집에서 자란 아동이 평범했다는 것은 예상했던 그대로 이었지만, 가장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갱생 모자 기숙사의 아동들은, 평범한 가정의 아동들과 별다름 없었고, 모델시설(사례2)에서 자란 아동들에게서는 높은 사망률과 발육부진이 눈이 띄게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언어발달에 있어서 눈에 띄는 미숙함을 보였고, 조금 말할 수 있는 아동은 10명중 겨우 1명 꼴로, 말할 수 있는 언어가 12어 이하의 아동이 14명, 전혀 말하지 못하는 아동이 6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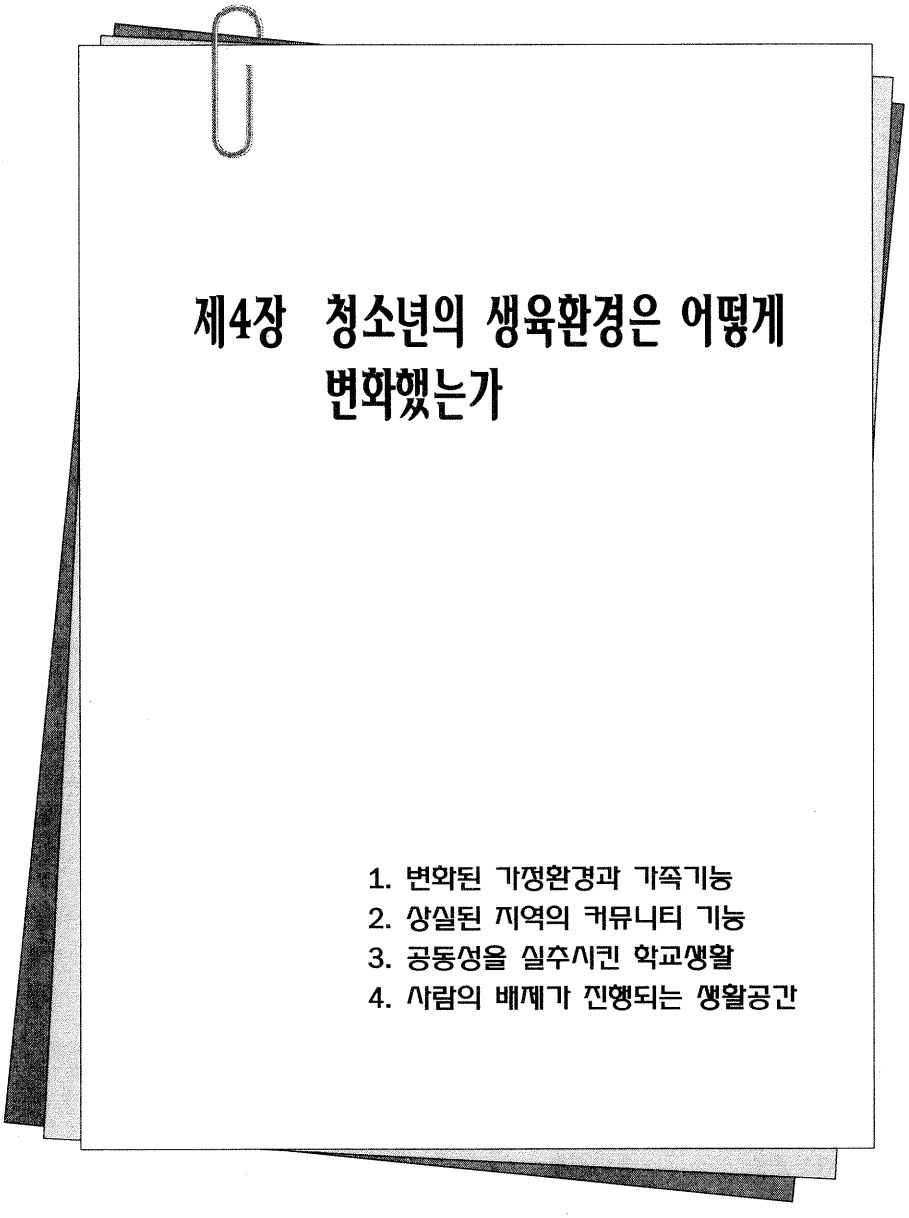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스피츠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들의 수와 양육자의 수의 비율의 차가 그 원인이라고 한다. 모델시설에서는 아동 10명에 간호사1명이었는데, 모자기숙사에서는 어머니가 일시적으로 다른 아동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한사람에 평균적으로 두 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동의 발달을 좌우하는 것은, 시설이나 설비의 대단함 등이 아니라, 사람과의 접촉의 정도, 이 책에서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타자와의 상호행위가 많았는가 적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사회력만을 한정해서 본다면, 그 차이는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연구성과가 반영되어, 그 후 이런 종류의 시설은 크게 개선되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연구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버려졌던 레바논 베이루트의 고아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955년부터 73년까지 18년에 걸쳐 조사한 추적조사의 사례를 소개하겠다(데니스(W.Dennis)저, 미타니 케이이치(三谷惠一)역 『청소년의 지적발달과 환경』(子どもの知的發達と環境)).

조사한 사람은 미국의 발달심리학자 데니스였다. 조사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크레슈라고 불리는 고아원에서 0세에서부터 6세까지 살다가 그 후 남녀별로 다른 시설로 옮겨졌으며, 각각 옮겨진 시설에서 남자아이는 13,4세까지, 여자아이는 16세까지 살았던 청소년들이었다. 데니스 교수는, 도중에 양자로 미국의 보통가정에 입양된 청소년들과의 비교연구

등,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였다. 그 조사결과의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유전적으로는 어떤 결함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청소년들이었지만, 그들을 키우는 '인간'환경면에서의 질적인 저하가 영향을 끼쳐, 지능과 정신발달 등에 미숙함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양자와의 비교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었다. 즉, 2살 안에 입양이 되는가, 아니면 2살 이후에 입양이 되는가에 따라 그 후의 정신발달에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는 지적이었다. 물론, 2살이 되기 전에 입양이 되는 청소년 쪽이 정신적으로 정상적이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2살까지의 기간동안 사람과의 상호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신발달에 얼마간의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장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사회력의 근본이라는 것은 간단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청소년의 생육환경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1. 변화된 가정환경과 가족기능
2. 상실된 지역의 커뮤니티 기능
3. 공동성을 실추시킨 학교생활
4. 사람의 배제가 진행되는 생활공간

제4장 청소년의 생육환경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경제성장지상주의가 불러일으킨 환경변화

앞 절에서는 최근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아동의 고도의 능력을 소개하면서, 사람의 사회력이 형성되는 과정과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했다. 거기서 밝혀진 것은, 아동의 사회력은 출생직후부터 '사람'환경과의 빈번한 상호작용의 계속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타자와의 상호행위를 개시함으로 인해 아동의 고도의 능력이 계발되고, 상호행위를 반복함으로 인해 사회력의 원기가 형성되며, 그리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 넓은 범위에서의 타자와의 상호행위를 원하게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계속해감으로 인해 사회적 요소가 공유되게 되어 질적으로 높은 사회력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의 사회성결여가 기성세대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한탄을 자아내고 있다. 사실 젊은 세대의 사회력이 저하되고 있는 경향이 없지는 않다. 제1장에서 본 것처럼 사람을 싫어하는 현상이 그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일본의 아동들을 둘러싼 생육환경이 사람과 사람의 교류나 공동체험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

그래서, 이 장에서는 우선 그런 현상이 현저해진 최근 30년의, 1980년 이후의 청소년들의 생육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일상생활공간의 변화를 점검해 보기로 하겠다. 여기서의 나의 관심은 오직 사회력형성에 있으므로, 청소년들이 타자와의 상호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사회환경의 변화가 어느 정도 그 기회나 장소를 저해하고 제약해 왔는가를 보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 생육환경의 변화에 대해 우선 말해 둘 것은, 만약 도시화의 진행이나 생활의 합리화, 서비스화 등 환경의 변화와 그것에 수반되는 생활의 변화가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서 타자와의 상호행위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면, 그 근본이 경제성장지상주의와 생활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효율화 추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 변화된 가정환경과 가족기능

1) 가정과 가족을 둘러싼 기본요인의 변화

영유아나 아동기에 있는 아동들의 생육환경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가정이나 가족환경이 그 중요도가 높을 것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정이나 가족의 변화부터 점검해 보기로 하겠다. 하지만 그 사실을 보기 전에, 가족형성에 관련되는 사항이 고도경제성장기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정리해 보겠다.

우선, 부모의 입장에 있는 어른들의 변화를 보면, 경제성장에 따라 산업구조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1차 산업에서부터, 공업이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2차, 제3차 산업으로 크게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가 도시로의 이주와 아버지들의 샐러리맨화를 촉진시켰다. 아버지들의 대부분이 아침 일찍 집을 나와 복잡한 통근전차를 타고 직장으로 향한다. 그리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집에 있는 어머니는 가사나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의 귀가를 기다린다. 이런 것이 일반가정의 평균적인 모습이 되었다.

경제성장이 진행되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아버지들은 직장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의 교외에 내 집을 장만했다. 아이들의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그리고 어머니들은 계속해서 개발되는 가전용품을 집안으로 사들였다. 갈망하던 문화적 생활의 현실화인 것이다.

더욱 생활은 윤택해지고 가사나 육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부터 어머니들의 자기실현 활동과 파트타임취업, 본격적인 취업이 크게 늘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라고 불리는 사회현상의 진행이었다. 당연히, 맞벌이가정이 많아졌다.

한편, 아동들의 변화를 보면, "적게 낳아서 잘 키운다"는 부모들의 방침이 철저해짐에 따라 형제수가 적어졌다. 자녀 소수화의 진행이었다. 고교나 대학에의 진학률이 높아지며 수험경쟁도 격렬해졌다. 누구든지 공부에 전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공부방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들은 그러자 곧 그곳을 자기취향에 맞는 공간으로 만들어 틀어박히게 되고, 공부이외의 시간도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다. "부모와 자녀의 별거"의 시작이었다.

가정과 가족을 둘러싼 이와 같은 변화는, 고도경제성장 이전의 일본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아주 새로운 사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가정과 가족에 관한 기본요인이 이 정도로 변화하면, 당연히 그곳에서의 생활이나 가족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사회력형성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가족끼리의 상호행위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

2) 가족사이즈의 축소

고도경제성장기 이후의 가족의 변화는, 구조면에서나 기능면에서 볼 때, 아주 큰 것이었다. 핵가족의 증가나 마이홈 주의의 진행, 가족기능의 외부화 등이 그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가족의 변화가 지적되는 동안에, 의외로 주목되지 않은 것이 가족사이즈의 축소였다. 그러나, 사회력형성이라는 관점으로부터 보면, 매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의 수가 매년 적어진다는 사실은 가장 주목되고 있었던 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의 세대인수는 어느 정도 적어졌을까. [그림 12]는 다이쇼(大正)시대[13]부터의 1세대당의 평균인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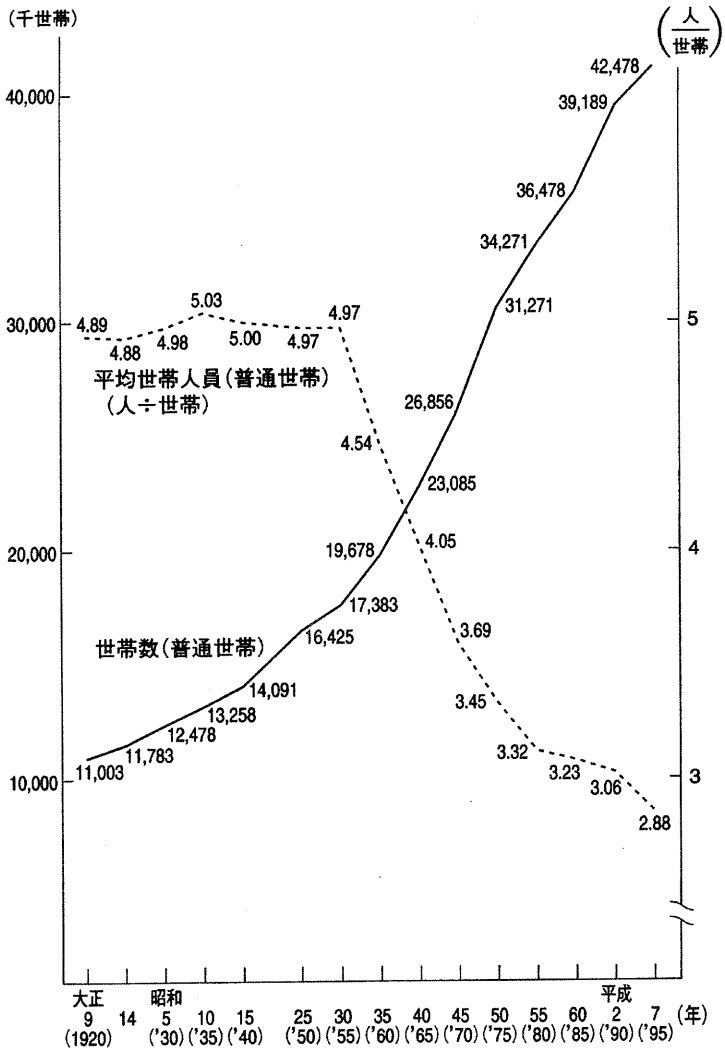
13) 역자주 : 明治(1868-1911), 大正(1912-1925년), 昭和(1926-1988)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듯이, 고도경제성장이 시작되기 전인 1955년(쇼와(昭和)30년)까지는, 가족수가 평균적으로 5명이었다. 가족에 관한 통계는 메이지(明治)시대의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검토할 수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메이지 초기부터 일본의 1세대당의 인수에서 거의 변화가 없이 계속 평균 5명이었다고 한다. 통계는 없지만, 아마 에도 시대의 평균적인 서민의 가족인수도 아마 5명 정도였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일본의 서민이 살고있었던 좁은 토끼집과 같은 집에서는 5명이 겨우 살수 있었을 것이다. 그건 그렇고, 일본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 5명의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경제성장이 시작한 1960년 정도부터 세대인수가 매년 줄어들어, 최근에는 3명 정도까지 줄어들었다. 3인의 내역을 생각해 본다면, 한 명은 아버지, 한 명은 어머니,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장남이든지 장녀이든지 일 것이고, 어느 쪽이든지 간에 자녀가 한사람이라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 아동의 사회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타자와의 빈번한 상호행위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생각해 본다면, 세대인수가 5인에서 3인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원끼리의 인간관계, 예를 들어, '아동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하나로 해서 5명이 살고 있을 당시의 인간관계의 수를 계산하면, '아동과 할아버지' '누나와 아버지'등의 관계도 포함되어 전부 10종류가 된다.

그러나, 그것이 3인이 되면, '아버지와 어머니' '아동과 아버지' '아동과 어머니'의 3종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지금 가정한 집을 야마다씨네 라고 한다면, 야마다씨네 집에 태어난 장남 타로는, 예전에는 10종류의 인간관계가 교착되는 중에 상호행위를 했고, 또 일상적으로 교환되는 가족끼리의 상호행위의 모습을 참여하며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와 아버지', '자기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관계 안에서만 상호행위를 하고, 관찰이외의 기회는 없는 것이다. 제2장, 제2절에서 본 것처럼, 아동이 타자가 차지하는 위치나 역할을 일반화해서 인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족 안

에서의 인간관계와 그것에 수반되는 상호행위의 감소가 사회력형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은 쉽게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12] 세대수 및 1세대당 인수의 추이(총무청 통계국)
『국세조사보고』 매년 판에 의해 작성

3) 가정의 호텔화와 가족분단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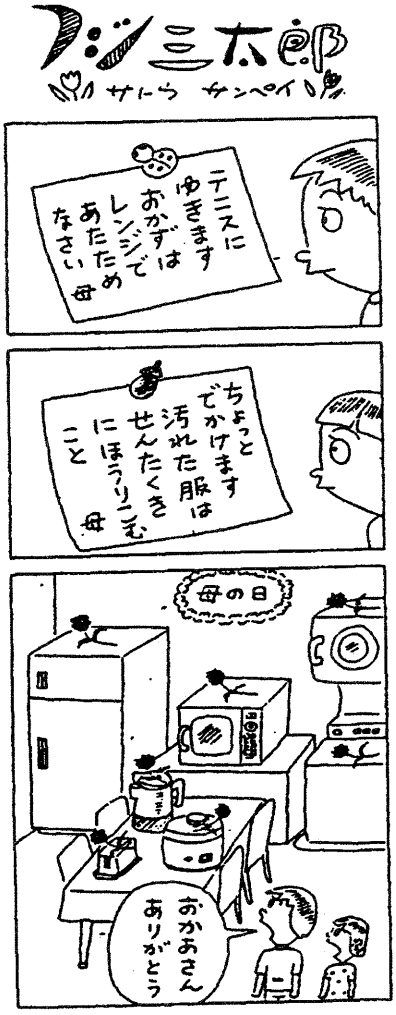
매일을 같이 사는 가족수가 적어지고, 그곳에서의 상호행위의 기회가 상당히 줄었는데, 그것을 더 감소시키는 변화가 현저해졌다. 그 중 하나가, 아이들에게 개인 방을 주는 것이 당연해 진 것이다. 1980년대 초기에 어느 은행이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 벌써 중학생의 70% 이상이 개인 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중학교 수험준비가 시작되는 5, 6학년이 되면 공부방을 주는 것이 보통이 되면서, 대부분의 초등학생이 자기전용의 방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틀림없을 것이다. 자기 방이 있으면 아동이 그곳에 틀어박히는 것은 눈에 보이듯 훤하다. 당연히, 가족과의 상호행위 기회는 줄어드는 것이다.

또 교외에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이 아버지의 통근거리를 멀게 하고, 그만큼 아버지가 가족과 접촉하는 시간이 더욱 적어지게 되는 사태를 불렀다. 집에서부터 아버지의 직장까지의 거리가 멀어진 만큼, 아침에는 이른 시간에 집을 나와, 늦은 저녁에 퇴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집에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게 되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짧아지면 아이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아버지와 아이가 집에서 만나는 일도 드물게 되어지는 것이다.

어느 중학생이 여름방학중에 어머니에게 물었다고 한다. "어머니, 최근 아버지를 전혀 볼 수 없는데 무슨 일이에요?" "애야, 무슨 말하는 거야. 아버지는 4월부터 후쿠오카에 단신부임으로 계시잖아!" 만든 이야기 같지만, 도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다.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동아들은 자기의 아버지가 집에서 없어진 것에 대해 수개월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정도로 지금,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집에 없는 것이 당연해 졌다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와 접할 기회도 적어질 것이다.

그것에 더해, 최근에는 어머니의 외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어머니가 파트타임 근무나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취미교실이나 레

슨 등 뭔가를 배우기 때문이고, PTA활동이나 지역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렇게 아이들과 어머니의 접촉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림 13]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연재되고 있던 "후지미타로"의 1985년 5월11일 게재 분이다.



[그림 13] "후지三太郎"(사토 삼페이(サトウ・サンペイ)작) 아사히신문에서
테니스 치러 간다. 반찬은 전자렌지에 데워서 먹어라. 잠깐 나갔다 올께. 지저분한 옷은 세탁기에 넣어둬라 {어머니의 날} 엄마, 축하해요

어머니의 날에 아이들이 고마워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냉장고나 오븐 등 가전용품이라는 것을 빗대어 그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태가 그 후 호전되지는 않았다.

NHK의 조사에 의하면, 아침에 혼자서 아침을 먹는 아동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NHK종합, 1999년 7월 17일 방영). 가정에 대화도 단란한 모습도 없고, 단지 서로 그곳에서 숙박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오코노기 케이고(小此木啓吾)씨는 호텔 가족화 라고 했고, 그것은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오코노기 케이고(小此木啓吾), 「가정이 없는 가족시대」(家庭のない家族の時代)). 세대수의 감소에 더불어, 개인 공부방에 틀어박히는 아동들의 증가와 양친이 집에 있는 시간이 감소했다는 것이, 부모와 아동의 상호행위의 기회를 한층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4) 잃어버린 공동작업의 기회

가정에서 잃어버린 것은, 가족 간의 교제와 단란의 기회뿐만이 아니다. 가족이 함께 작업하는 기회도 잃어버렸다. 어머니가 하는 가사나 식사준비를 아동이 도울 기회, 아버지가 하는 주말취미활동이나 밭일을 아동이 도울 기회도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 아동이 하나가 되어 무언가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은, 사회력형성이라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런 기회와 행위를 통해 부모와 아동은 말의 의미나, 상황에 따른 의미를 공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공동작업의 기회가 없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정용 전자제품의 보급에 의한 가정생활의 간편화이고, 또 하나는 가정서비스의 보급에 의한 가족기능의 외부화인 것이다.

너무나 당연해서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지만, 텔레비전, 전기밥솥, 세탁기, 청소기, 순간온수기, 전자렌지, 오븐, 에어컨, 스토브 등등 일본의 어느 집에도 이런 제품은 발견 할 수 있다. 지금은 가사의 모든 것

을 가정용 전기제품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 아동의 도움 등은 전혀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또 청소, 클리닝, 야채배달 등 일반 가정에서의 수요를 노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점점 많이 개발되어 이용되게 되고, 전국어디에 가더라도 집 근처에 편의점이 있는 시대, 가족모두가 자기의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의 아동들은 가전용품이나 하이테크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족 그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이다.

가족이 휴일에 행락지나 디즈니랜드 등에 놀러가 보더라도 그곳은 모든 서비스를 정비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가족이 함께 땀을 흘리고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체험을 통해 부모와 아동이 상호행위를 할 기회는 집에서도 집밖에서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이 사회력을 형성하는 가정의 토양이 매년 쇠약해져 가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2. 상실된 지역의 커뮤니티 기능

1) 도시화와 과소화의 결과

앞 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고도경제성장기 전부터 시작된 산업구조의 변화는 급속한 도시화를 초래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한 것이다. 2차대전이 끝난 지 5년 후인 1950(쇼와25)년, 일본의 도시인구는 아직 38%이었다. 그것이 고도경제성장기 직전인 60년에는 64%까지 증가하고 나아가서 20년이 지난 80년에는 76%까지 부풀어올라 있었다. 그 후 도시인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지금은 일본인의 다섯 명 중 네 명 정도가 도시에서 지내고 있는 셈이 된다. 짧은 기간동안에 급

속히 도시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에 의해 도시에 사람이 모인다는 말은 농촌에서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취직이나 진학을 위해 농가의 둘째아들이나 셋째아들, 둘째딸 셋째 딸이 떠나갔지만 경제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가족단위로 마을을 떠나는 예가 증가했다. 한 부락에서 한 집이 떠나고 또 한집이 떠나 사람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것이 과소화의 진행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을이나 부락의 인구가 최성기의 절반에서 삼분의 일로 줄어든 곳을 전국 각지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아다츠 이쿠츠네(安達生恒)저 「"마을"과 인간의 붕괴」("むら"と人間の崩壊)).

그러면 아동의 생육환경이라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급속한 도시화와 과소화는 어떠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단적으로 말하자면, 상호행위를 해야할 사람이 지역에서 사라져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동체험의 장과 기회가 그 지역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곳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앞의 「아동과 청소년의 <다른 세계>」(子どもと若者の<異界>)), 나의 경험을 소개해 보겠다.

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1년 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야마가타현(山形縣)의 쇼나이(庄內)지방에서 자랐다. 고도경제성장기 이전의 쇼나이에는 벼농사에 종사하는 사람들간의 각종 인간교류가 있었고, 공동작업의 장과 기회가 있었다. 예를 들면, 봄의 모내기철에는 학교는 일제히 방학을 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집에서 농사를 짓건 안 짓건 관계없이 전교생이 일주일간 모내기를 돕는 것이 관습이었고, 가을의 벼 베기 철에도 학교는 일주일간 휴업에 들어가 다시 전교생이 벼 베기와 벼의 운반을 도왔다. 이 시기에는 다른 마을에서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돕는 것이 보통이었고, 마을은 어디나 사람으로 가득 찼었다. 말 그대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듯이 아동들도 한사람 몫의 노동력으로서 어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이것저것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도 했다. 사회력의 형성에는 이만큼 혜택 받은 장과 기회가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시기에 이러한 경험을 한 것은 나 혼자만은 아니다. 아마, 공동으로 행하는 작업의 내용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도시에서도 아니, 전국 어디에서나 아동들은 이런 식으로 자랐을 것이다(타카하시 마사루(高橋勝)·시마야마다 야스히코(下山田裕彦)編「아동의 <생활>의 사회사」(子どもの<暮らし>の社會史)). 그러나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와 과소화는 지역이라고 하는 아동의 전 생활공간으로부터 어른과 아동이 상호행위를 할 장과 기회를 빼앗아 갔다.

2) 지역은 있되 커뮤니티가 없다.

이미 급속하게 진행된 도시화가 아동들의 생육환경을 악화시킨 이 시점에 아무리 한탄을 한들 사태가 역전이 될 수는 없다. 문제는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해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내었는가 이다. 지금 일본의 아동 4명중 3명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자라는 환경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의 생육환경을 보았을 때 현재의 상태가 바람직하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사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검토할 때, 나는 '지역'과 '커뮤니티'를 나누어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은 영어의 커뮤니티에 대응되는 일본어로서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를 내용이 다른 개념으로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막연해 보이는 지역사회를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두겠다.

우선, '지역'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이 지역이란 인간이 살고있는 일정한 거주구역을 가리킨다. 물론 그곳에는 강이나 연못, 그리고 언덕과 같은 자연물과 관청, 우체국, 역, 학교, 상점, 식당, 양품점, 도서관, 공원과 같은 각종 생활관련시설 다시 말해 인공물이 있다. 그것들을 포함해서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눈으로 보거나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실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커뮤니티'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주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지향이라고 할까, 그 지향에 기초한 활동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설명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

커뮤니티란 그곳에 사는 주민이 그 지역에 애착을 느끼고, 그 애착 때문에 그곳에 계속 살고 싶어하며, 계속 살고 싶다고 하는 영주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게 되며, 그러한 개선의욕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활동에 참가하여 활동을 계속해 가는 상태를 말한다. 요컨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나 정착의식, 지역개혁의식이 주민들 사이에 있고 그것에 기초하여 무언가 지역개선활동을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계속해 갈 때 그곳에 커뮤니티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과연 도시에 이주한 신 주민들은 이러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었을까. 유감스럽게도 답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이다. 지역의 주택은 밀집해 있어도 서로간에 옆집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무관심,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관청에 전화를 해서 빨리 처리하라고 거칠게 말을 할 뿐이다. 지역은 있지만, 커뮤니티가 없는 곳이 대부분인 것이다. 어른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개선활동이 없는 곳에서 아동들의 사회력이 형성될 리가 없다.

3. 공동성을 실추시킨 학교생활

현재의 학교교육과 학교생활의 문제성이나 폐해에 관해서는 이미 많이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다. 지식편중, 점수주의, 편차치[14]식 구분, 많

14) 역자주 : 평균점에서 어느정도 떨어져있는지를 표시하는 수치. 평균점의 편차치가 50이 되게끔 만들어져있다. 따라서 평균점이 70점인 테스트라면, 편차치의 50은 70점이 되는 것이다. 평균점이 35점인 테스트라면, 편차치50은 35점에 상당하는 것이다.

은 교칙, 체벌 그리고 교내폭력, 집단따돌림, 등교거부, 교사에 대한 폭력, 학급붕괴 등등 어쩌면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의 문제나 폐해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만큼 현재의 교육실상이나 학교가 근본적으로 커다란 암세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교육에 대한 비판이나 학교나 교사의 비판을 되풀이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고도성장기 이후 사회력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학교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실추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학교생활에서 실추된 것을 일괄적으로 말을 하자면, 아동들간의 또래집단의식(仲間意識), 연대감, 연계의식 등일 것이다. 한마디로 공동성의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좀더 자세하게 실추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부껑당한 경험주의적 커리큘럼

여기에서도 나의 학교체험담을 소개하기로 하자.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은 1947(쇼와22)년 4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점령군의 지도 하에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 새로운 교육제도가 출발한 바로 그 해이다. 나는 전후 신교육 제1세대였다. 일부가 칼라 판으로 인쇄된 국어교과서 제1과는 모두 히라가나 표기로, "피었다 피었다 벚꽃이 피었다"로 시작하는 신선한 문구를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개시된 새로운 교육, 이것을 지탱하는 교육철학은 그 유명한 존 듀이가 제창했다고 하는 경험주의 교육이었다. 그 이전의 교육은, 국사교육을 예로 든다면 역대 천황의 이름을 주먹구구식으로 암기하는 주입식 교육이었지만, 그것과는 정반대로 대부분의 경우 우선 자신의 몸으로 체험하고 생각하고 직접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도 지금같이 국어, 산수, 이과, 사회 등으로 엄밀히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같이 엮은 것 같은 코어 커

리큘럼이 장려되고 있었다. 말하자면 학생이 공동으로 하는 체험학습이다. 한 예를 들자면, "강의 오염도 조사"라는 수업이 있었다. 마을중심부를 흐르는 길이 20킬로미터는 족히 되는 강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포인트가 되는 몇 군데 지점에서 물을 채취해 그 오염도를 조사해서, 오염도에 차이가 있으면 그 원인을 생각하고 알아보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수업이었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수업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하게 되는데, 오염도 조사는 이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계산은 산수, 오염의 원인을 조사하는 것은 사회과, 보고서 작성은 국어공부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은 솔직히 힘든 작업이다. 하나의 과제를 끝내는데 1개월이나 2개월 정도를 요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지식은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학교 밖으로 나가 관청 사람에게 자료를 얻거나 마을의 장로에게 옛날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하는 식의 다같이 공동으로 하는 작업은 즐거웠고, 마지막에 시험을 치르는 일도 없었다. 수험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을에 여러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남으로써 알게 되었다. 우리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이나 사회에 관심을 돌려 사회력이라는 것을 키워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학교에서의 공동체험은 그런 수업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정과 시간에는 학교의 밭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가을에는 아침 일찍 전교 학생이 모두 나와 메뚜기를 잡고 그것을 삶아서 팔아 글러브나 야구방망이나 공을 샀다. 또 모두 다같이 산 속에 들어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산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 팔아, 그 돈으로 농구나 배구공을 샀던 것도 연중행사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학교전체가 휴교를 하고서, 전교생이 모내기나 벼 베기를 도운 이야기는 앞 절에서도 소개한 바 있다. 그밖에도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에 가서 벌채를 하거나 하천을 이용해 풀장을 만든 일등, 아직도 소개하지 못한 많은 체

험이 지금은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다. 어쨌든 예전의 학교생활에는 풍부한 공동체험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험을 통해 아동들은 남을 알고 남과 공감을 가지게 되어 사회력을 육성해 가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4-5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반 친구 한 명 한 명에 대해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사회력이 형성되어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주의적 교육이나 커리큘럼은 고도 성장기에 들어선 60년대가 되면 '기어다니는 경험주의'라는 비난과 함께 학교에서 추방되고 만다. 그 대신에 장려된 것이 체계적인 지식의 효율적인 습득을 중요시한 계통주의 교육이었다.

2) 편차치가 절단시킨 또래집단의식

경제 고도성장이 이륙기를 끝내고 상공을 향해 단숨에 가속을 시작했을 무렵부터 고등학교와 대학교로의 진학률도 해마다 높아져갔다. 학교생활이 급속하게 수험본위로 편성되고 실시되어 갔던 것이다. 더불어 고등학교 진학률은 경제성장이 이륙기에 들어선 1960년에는 58%이었던 것이 10년 후에는 82%, 20년 후인 80년에는 94%까지 올라갔다. 고등학교 진학으로부터 5년 정도 시기를 달리해 시작된 대학진학률의 상승도 기세는 마찬가지로 65년도에는 17%, 75년도에는 38%, 85년도에는 38%로 가속을 했다. 그 과정에서 아동들의 학교생활은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편차치의 등장이다. 편차치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입에 오르게 된 것은 70년대에 들어서서 부터이다. 1979년부터 개시된 공통 일차시험이 전국적으로 이것을 보급시켰다고 볼 수 있다. 수험지도에 편차치 사용을 일반화시킴으로서 '편차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쿠와타 쇼우죠(桑田昭三)氏에 의하면, 처음의 의도는 들어가고 싶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예측하기 위한 편리한 수치를 제공할 생각으로 보급시켰다고 한다(마이니치신문사(每日新聞

社)편, 「내신서·편차치의 비밀」(內申書·偏差値の秘密)).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해 방대한 숫자를 순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해진 탓으로 이 숫자가 아동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악마의 수치가 되었다. 50이 한 중간으로, 그 보다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적이 우수하고 그보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열등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편차치는 점수 한 점으로 학생을 분단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편차치의 까다로운 점은, 보통의 시험 점수와는 달리 시험을 칠 때마다 변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노력을 해서는 높은 수치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학기의 기말시험으로 수학 30점을 받은 학생이 있다고 치자. 그가 2학기 때는 열심히 하겠다고 선언하여 계산식을 전부 암기해서 시험을 쳐 운 좋게 70점을 받았다. 그랬다고 해서 그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편차치는 경쟁자들 속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알려주는 수치이며 그리고 그것이 쉽게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과학성을 가진 수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편차치가 아동들에게 끼친 경계할만한 각인효과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 편차치 62인 아동와, 63인 아동이 있다고 치면, 그 수치가 두 사람을 같은 레벨로서 또래집단의식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 점 차이가 '나는 저 아이보다 위', '나는 저 아이보다 아래'라는 의식 속에서 상대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편차치는 다른 아동과 협력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을 저하시켰다.

두 번째의 효과는 아동들에게 부당한 열등의식과 부당한 우월 의식을 초래한 점이다. 예를 들면, 계속 32라고 하는 상당히 낮은 수치를 받은 남학생이 있다고 치자. 32라는 수치가 머리 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가 과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될까. 그가 다음 번에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답은 그 반대이다. '나는 안 돼, 무엇을 하더라도 어차피 안 될게 뻔해'라고 자신감을 잃고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해 지거나 자포자기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월 의식은 그 반대이다. 높은 편차치를 자기의 자질의 우수성의 증명과 합치시켜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 대해 거만해 지는 것이다(카와데쇼보신샤(河出書房新社)編, 「나의 세대/1960년 생」(わが世代・昭和三十五年生まれ), 카와데쇼보신샤(河出書房新社)). 이와 같이 예전에 아동들사이에 존재했던 또래집단의식이나 연대감은 구름과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만 것이다. 학교생활에서 사회력이 형성될 수 있는 토양이 매년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편차치가 학교생활을 지배하게 된 것은 아동들을 크게 변질시킨다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 편차치에 유린되는 자기의 아이를 직접 접하는 부모들의 아이를 보는 시각도 바꾼 것이다. 자기 아이의 중학교 수험에 신중하게 관심을 가져 온 여의사 村崎芙蓉子씨는 자기의 기록일지에 이렇게 적고있다.

「일단 그 편차치라는 색안경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우리아이의 시험점수를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아이가 친구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래, 그 아이의 편차치는?'이라고 묻게 된다. …… 그 아이의 상냥함, 넓은 마음, 용기, 대담함, 솔직함, 유머, 어리광, 성실함, 소심함, 냉담함, 급한 성격 등등, 인격이나 개성을 표현하는 단어는 편차치라는 평가 앞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아무 의미도 힘도 가지지 못한다. 편차치에는 그런 무서움이 숨어있는 것이다(무라사키 후요코(村崎芙蓉子)저, 「카이와르 족의 편차치 일기」, (カイワレ族の偏差値日記))」.

어른들의, 자기아이나 아이의 친구를 보는 눈이 이렇게 되어서야 아동들은 서로 등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학교생활을 계기로 하는 사회력형성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감퇴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다.

4. 사람의 배제가 진행되는 생활공간

1) 무인화가 진행되는 생활공간

가정, 지역, 학교 등 아동들의 주요생활공간은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고 공동체험을 해가며 서로 협력하는 장소와는 무관한 곳이 되어 버렸다. 남과 상호행위를 하려고 하다가도 그 마음속에 '지금 바쁘니까' '안돼,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나 해' '벌써 6학년이니까 그 밖의 다른 할 일이 있지 않니?'라는 식의 그럴듯한 변명으로 거부되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다. 합리화와 효율화를 지향하는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이고 감정적으로 연계된 접촉이나,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할 기회와 장을 극도로 감소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아동들에게는 가정이나 지역이나 학교 외에 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소가 있다. 제4의 생활공간이라고도 불리는 동네이다. 이 동네에는 예전에 골목이 있었고, 공터가 있었고, 풀밭이 있고, 신사의 경내가 있었고, 묘지가 있었고, 아지트가 된 빈집이 있었다. 장소에 따라서는 강이 흐르거나 신사경내의 숲이 있기도 했다. 그런 곳은 골목대장에게 이끌려 온 한 무리의 아동들이 저녁 무렵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놀았던 곳이다. 그러나 그러한 장소는 고도경제성장이 본격화된 1965년 무렵부터 도시개발의 진행으로 차례차례 모습을 감추었고 그 대신 그곳에 출현한 것은 무미건조한 오피스빌딩이나 고층 주택, 주차장이나 때로는 고속도로인 경우도 있었다. 당연히 아동들은 출입금지. 활동장소를 잃은 '갱 집단'도 사라져갔다.

도시화의 진행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합리화 효율화의 진행은 동네 여기저기에서 사람의 자취를 감추게 했다. 무인화의 진행인 것이다. 심부름으로 가던 모퉁이 담배 집에서 사람 좋은 할머니가 사라졌다. 그 대신에 그 곳에 생긴 것은 자동판매기였다. 저녁에 술집에 가도

있는 것은 역시 자동판매기. '너 착하구나'라며 주스를 주었던 아저씨도 사라졌다. 그리고 역도 가게도 은행도 점점 무인화가 진행되어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종일 아무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을 정도이다. 이전에 사람으로 붐볐던 번화가도 지금은 기계를 상대로 말없이 볼일을 보고, 재빠르게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서로 시선을 돌리며 스쳐 지나가는 공간으로 변해있다.

이렇게 해서 동네도 또 사람과 사람이 만나 새로운 교류를 시작하는 장소로써는 위치하지 못하게 되었다. 상점가에서 주최하는 축제행사도 최근에는 사람이 적어져 썰렁해지고 있다고 한다. 동네는 이제 사람들의 인간혐오를 조장하는 장소일수는 있어도, 더 이상 청소년들의 사회력을 키우는 장소는 아닌 것이다.

2) 사람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단절시키는 정보기기

도시화되어 가는 생활공간 속에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 교류를 가지는 장과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생활공간 속에서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지 않고, 말을 주고받는 일도 없는 생활을 계속하는 사이에 현대의 청소년들은 사람과 사귀고 깊게 관련되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이나 기호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런 청소년들의 기호를 꿰뚫어 보기나 한 듯이 직접 상대와 얼굴을 마주보지 않더라도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각종 기기가 개발되어 발매되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청소년들은 이 편리한 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같이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기기를 사용함으로서 청소년들의 타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은 더한층 소중한 기기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 이러한 수난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교제는 점점 줄어든다.

이러한 수난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전화 외에 자동응답기나

팩스, 무선호출기, 휴대전화, 그리고 컴퓨터 등 이른바 모바일 기기라고 불리는 커뮤니케이션 기기가 급속도로 청소년들 사이에 보급되어 갔다. 경제기획청이 조사하고 있는 「소비 동향 조사」에 의하면, 1998년도에 컴퓨터 보급률은 25%에 달하고 있다. 사용자를 청소년에 한정한다면, 아마 보급률은 두 배는 넘을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또 최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그들의 거의 70%이상이 무선호출기나 휴대폰 중 하나, 혹은 양쪽을 다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츠쿠바대학 교육사회학 연구실(筑波大學教育社會學研究室)저, 「고등학생의 친구관계와 메디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高校生の友達關係とメディアとのかかわりあいに關する調査)). 여기에 전화, 자동응답전화, 팩스, 컴퓨터이용을 추가한다면 젊은 세대의 모바일 기기 이용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직접적인 접촉이 꺼려지며, 그 빈도도 줄어들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모바일 기기는 간접적이기는 하되 아직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희망은 있지만, 전자게임의 경우에는 거의 사람과의 접촉을 단절시킨다. 전자게임이 어느 정도로 청소년에게 보급되어 있는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적어도 학습연구사(學習研究社)의 「초등학생백서」(小學生白書)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놀이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전자게임이고 초등학생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중에 1위를 차지하는 것이 전자게임 소프트이다. 청소년도 포함하여 젊은 세대의 상당수가 전자게임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다.

모바일 기기나 전자게임이 사람과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단절시킨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되고 있다. 모바일 기기를 개입시킨 사람과 사람의 간접적이 접촉이 사회력형성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모바일 기기나 전자게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보급되어 가는 사회적 토양이 사회력 형성을 촉진시킨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3) 부유하는 경향이 강한 어른들

도시화된 생활 공간이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연계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몇 개의 측면을 보아왔는데, 이 장의 끝으로 그러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른들을 포함하여 부유하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사람들이 부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현재의 일에 대한 자신이나 애착을 상실하고, 자신의 직장에 대한 정착의식을 상실하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착의식을 상실하고, 친지와 친구와의 심적 연계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데에 있어 목표를 상실하며, 남에 대한 관심도 공감도 상실하고, 사회에 대한 관심도 상실하고, 자신과 사회의 장래에 대한 불안을 고조시켜, 그 날 그 날을 어제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가리키고 있다. 요컨대, 사람들이 부유한다는 말은 사회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바꿔 말 할 수 있다. 노를 잃은 보트와 같이 지금 있는 사회의 어디에도 정박지를 가지지 못하고 파도에 흔들리면서 표류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청소년들 그리고 어른들 사이에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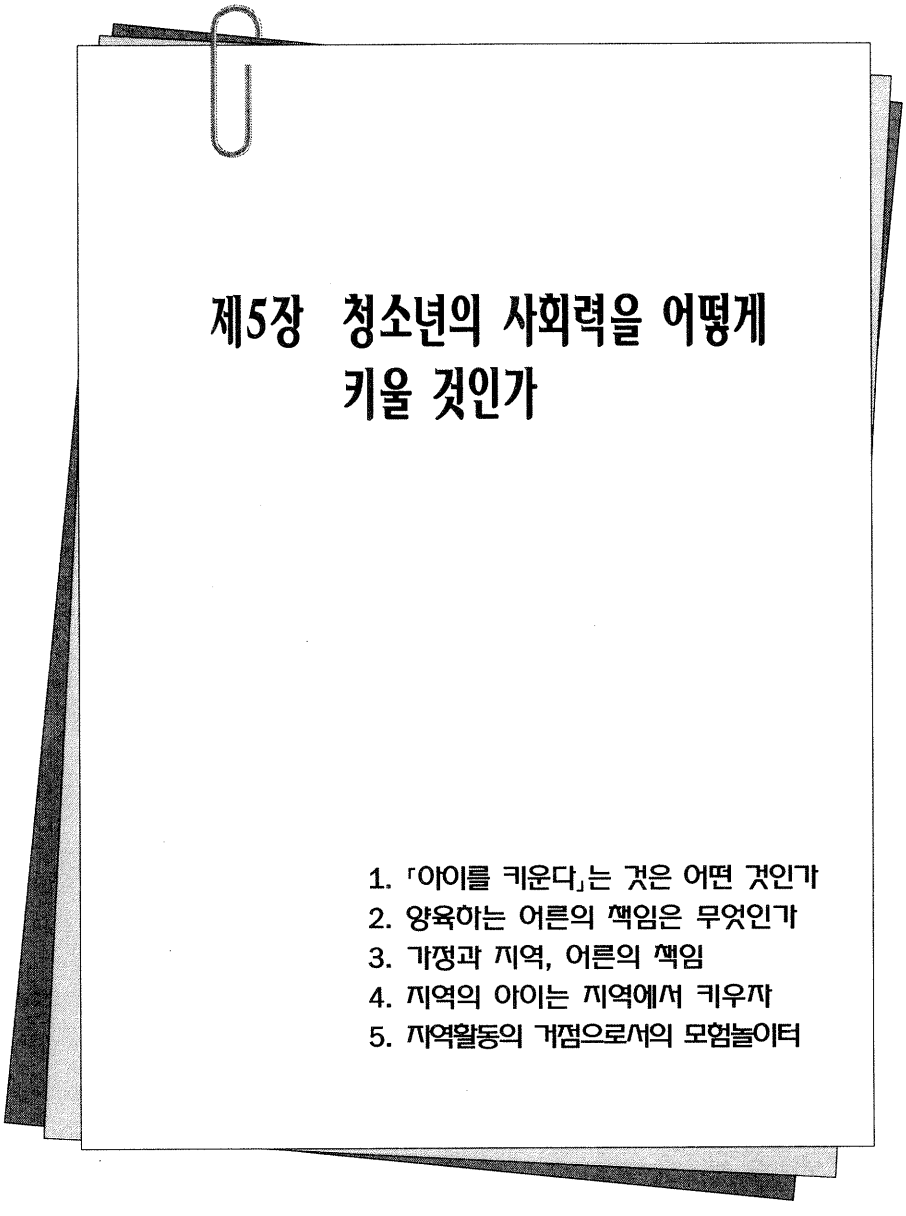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어떠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그렇게 간주할 수 있는가. 지겹도록 반복되는 탤런트의 스캔들을 찾는 사람, 선거 때마다 내려가는 투표율, 내용이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일수록 높은 시청률, 누드사진이 많을수록 잘 팔리는 주간지, 불황 속에서 항상 붐비는 파칭코가게와 회전 초밥집과 공항의 로비, 가이드라인 법안이나 '도청법'이 국회에 제출되어도 동요하지 않는 유권자들 등등. 상황증거는 일상의 생활 장면의 어디에서든 발견해 낼 수가 있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고 하면 아무 곳에도 없다. 상황증거의 어느 것이나 다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감각의 어딘가에 사람들이 확실하게 부유하고 있다는 실감이 있다. 어쩌면 그것을 가장 민감하게 깨닫고 절망하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아동들일수도 있다. 그 중 한사람인 시카가와 히

로후미(鹿川裕史)는 1986년 2월, 집단따돌림을 이유로 자살을 했다. 그렇게까지 그를 몰아붙인 집단따돌림은 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것일까. 그 이유를 알고자 시카가와와 같은 반이었던 몇 명의 학생을 만나 취재한 기자 豊田充씨는, 나카노 후지미(中野富士見)중학교 2학년 A반이 학교를 둘러싼 어른사회와 관련되어 있었고, 그것이 집단따돌림이 반복되었던 실제의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렇게 깨달은 豊田기자의 질문에 대해 교육사회학자 모리타 요지(森田洋司)씨의 다음과 같은 견해는 지극히 정곡을 찌르는 것이었다. 「(1985년경부터)아동들의 관계가 변화되었다. 우선 친구관계에 대해 언급하자면, 그것은 상당히 상황적이다. 아동들의 발상 그 자체가 '내일은 내일이고 어떻게 되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상황적인 것이다. 상황 안에서 떠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래로 이어진다든지 내일을 위해 오늘 노력한다는 등의 발상은 없다. 인간관계도 참으로 순간적이다. ……어른사회를 보더라도 그 상황에서 만의 교제일 뿐이다. 사람과 만나더라도 다음날이면 잊혀지고 남는 것은 명함뿐이다. 그러한 상황에 아동들도 익숙해져 있다」(豊田充저 「장례식놀이-8년 후의 증언」(葬式ごっこ - 八年後の證言)).

시카가와도 2학년 A반의 동급생이나 직원실에 있던 선생님이나 지역의 어른들을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집단따돌림 시키는 반에서 도망쳐 나와 어른사회에 구조를 요청해도 아무런 해결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직감하고 '이대로라면 「생지옥」이 될 거야'라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아닐까.

어른들이 사회력을 가지지 못한 곳에서, 바꿔 말하면 어른들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보다 좋은 사회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못하고 사회와의 연계를 피하고 있는 곳에서 아동들의 사회력이 형성될 리가 없다. 최근 2-30년 동안 아동들사이에 사회력 저하가 현저하게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어른들의 사회력 저하에 의한 영향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제5장 청소년의 사회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1.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2. 양육하는 어른의 책임은 무엇인가
3. 가정과 지역, 어른의 책임
4. 지역의 아이는 지역에서 키우자
5. 자역활동의 거점으로서의 모험놀이터

제5장 청소년의 사회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중요한 조기의 사회력 형성

제3장에서는 청소년의 사회력이 어떤 메카니즘으로 형성되는가를 설명했다. 그리고 방금 제4장에서는 최근 2, 30년 사이에 아이들의 생육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아왔다. 사회력의 형성에는 다양한 타자와의 상호행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력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타자와의 상호행위가 청소년들이 자라는 생활세계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청소년들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의 변화가 가까이에 접근해 들여다보면,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고 함께 땀을 흘리는 기회와 장을 빼앗았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사회력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자와의 상호행위를 상실하고 그 결과로서 청소년의 사회화에 이변이 생겼다고 한다면 우리 어른들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는 명백해진다. 원리적으로는 가능하다면 출생직후부터 아이와의 상호행위에 노력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러나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있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실제로 행해져온 몇 가지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아이의 사회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몇 가지의 제안도 해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지금까지 우리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온 사고방식의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해서부터 시작하겠다.

단지 새삼스럽게 양해를 바라는 것은 여기서의 소개나 제안은 「어린이의 사회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제3장에서

본 것처럼, 이 장에서 말하는 사회력의 형성이란, 제3단계에 있어서도, 즉 성인기에 들어서도 계속 강화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전 생애에 걸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어린이의 사회력 형성, 즉 태어난 직후부터 3살까지의 제1단계와, 4, 5세 정도부터 20세를 넘어서까지 계속되는 제2단계에 한정하겠다.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얼마나 확실하게 사회력이 형성되는가, 또는 형성된 사회력이 실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 그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가, 그래서 사회운영과 개혁에 반영되는가는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확실하게 그 기초가 견고해지는가에 달려있다. 그래서 사회력은 성인이 되기 전에 가능하다면 빠른 시기에 착실하게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1.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1) 아이를 키운다는 것

「양육은 힘들다」「양육이 삶의 보람이다」「양육을 못하는 어머니가 늘고 있다」「앞으로의 양육은 이래야 한다」 등등, 양육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문맥에서 여러 가지 의미와 감정을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다. 「양육」 즉, 「아이를 키운다는 것」 또는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도대체 인간의 어떤 행위인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키우기 위해 몸을 단련시키고, 장래 일류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조기교육을 시키고, 예술적 재능을 키우기 위해 악기나 그림을 가르치고, 국제인으로 만들기 위해 일찍부터 외국어를 가르치고, 또는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인간이 되게 하기위해 가정교육을 시키고, 여유를 가지고 살기를 바래 필요이상으로 참견을 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등등, 우리들은 많은 생각과 기

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되어 아이 한 명 한 명의 개성이 드러나게 되면, 개성이나 능력을 더욱 뻗어나가게 해주려고 또는 반대로 그것을 교정하려고 이것저것 귀찮게 잔소리를 하기도 한다. 물론 부모 중에는 일찍부터 양육을 포기하고 무엇이건 하고 싶은대로 하도록 방치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분명히 양육이나 사람을 키운다는 행위는 사람마다 가지각색이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자신의 아이를 사회력 있는 인간으로 키우겠다고 의도하고 그것을 위해 특별한 가정교육을 하거나 자극을 주거나 하는 부모나 교사나 어른은 적을 것이다.

왜 자기 아이의 사회력을 의도적으로 키워보겠다는 부모나 어른은 적은 것일까. 살펴보건대 어린아이는 방치해 두어도 자연적으로 사회적 동물로 자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어린아이는 선천적으로 사회적 동물이 되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이 아직 뿌리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장 제4절에서 본 것처럼, 그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이 좋지 않거나 사람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린아이라도 제대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으로는 자라지 못하는 것이다. 제대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은, 언어를 습득하여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되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게끔 기대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그 위에 그 사람들과 적절한 상호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등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리가 없다. 더군다나 앞장에서 본 것처럼 최근에 어린이가 자라나는 환경이 현저하게 나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어린이를 사회력이 있는 인간으로 키우겠다고 확실하게 의도하여 그들과 정면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한자를 읽을 수 있거나 계산이 가능하고 그림을 잘 그리며, 피아노를 칠 수 있다

거나 학교성적이 좋거나 하는 것은 어린이가 사회력이 있는 인간이 된다는 것의 중요성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다시 말해 아이를 「인간」으로 키운다는 것은, 사회적 동물로, 바꿔 말하면 사회력 있는 인간으로 키운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지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 일본사람이 아주 착각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어린이를 소중히 한다는 것의 의미이다. 보통 일본사람은 아이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 그 아이에게 필요없는 고생을 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금지옥엽으로 키운다거나, 장식장에 장식물처럼 키운다거나, 새장의 새처럼 키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이를 소중하게 키운다는 것은 자라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부모나 주위의 어른들이 무엇이든지 다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외국에서도 일반적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외국의 경우라고는 해도 내가 직접 알고 있는 것은 구미선진국의 경우이지만, 어린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일본과는 정반대로, 그 아이의 나이에 맞춰 그 시기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건 체험시키는 것이었다. 두 살이면 두 살에, 다섯 살이면 다섯 살에, 열 살이면 열 살에 맞게 해야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수없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청소년 자신에게 체험을 시키는 것, 그것이 가능한 조건을 정비해 주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청소년을 소중히 한다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이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에 일본과 외국사이에 이러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IPA라고 하는 어린이의 놀이나 놀이장소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자원봉사단체의 이사를 맡고있

던 때이다.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게다가 각 나라에서 선출된 다섯 명의 이사, 합계 여덟 명으로 구성된 IPA의 이사회는 년 2회 세계각지에서 열리는데,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의 놀이나 놀이장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에 참여하는 사이에 아이를 소중히 키운다는 것의 이미지와 내용에 있어서 각국과 일본사람과의 사이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차이는 앞에 언급한 대로, 선진국 사람들은 여하튼 그 연령 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건 시키는 것, 그 아이가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건, 가령 그것이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도전시키는 것이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사람들의 눈에는 일본과 같이 청소년들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장식처럼 장식장에 넣어두는 것은 청소년들을 지극히 학대하고 있다고 비쳐지는 것이다. 내성적(부끄럼을 타는)인 것을 미덕으로 볼 것인가 또는 능력이 없다고 볼 것인가 하는 차이에도 그 뿌리는 같은 곳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화의 차이라고 말한다면 그뿐이지만 사회력이 있는 인간, 다른 사람과 협력해 가며 고난을 극복해 가는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느 양육법이 적절한 것일까. 답은 명확한 것이다.

3) 「교육」에 의해 아이는 자라는가

말을 하는 김에 한 마디만 더 해두고자 한다. 양육에 있어 주역으로 여겨지는 「교육」에 대한 착각이다. 세계 각 국 중에서도 교육입국이라고 여겨지는 일본에서는 좋은 의미로나 나쁜 의미로나 교육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란 주로 학교에서 행해지는 의도적인 교육을 말하는 것이지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교육을 하면 뭐든지 잘될 것이라는 착각이 뿌리깊다. 일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아마 성덕 태자(聖德太子) 시대부터 사람이 자라는 것은 배우

기 때문이고 배운다는 것은 이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한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며 배운다는 것은 외국의 앞선 문화나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본 사람들은 '교육'이야말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교육이란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 비행이 늘었다고 하면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시간을 늘리라고 하고, 집단 따돌림이나 등교 거부 아동이 늘었다고 하면 교사의 능력을 높이라고 하거나 학교의 상담원을 늘리라고 하며, 정보화가 도래한 시기에 다다르니 컴퓨터 교육을 의무화하라고 하며, 또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창조력을 늘리라, 교육의 규제를 완화하라고 하게된다. 요컨대, 사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곧 커지는 것이 '교육이 문제다'라는 소리이다. 그만큼 우리 일본에는 교육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뢰감이 높다는 의미다. 교육의 형태만 바꾸면 사람은 금방 좋아지고 사람을 좋게 바꾸면 사회의 문제도 없어진다는 논리다.

교육에 대한 신뢰감이 높다고 하면 듣기는 좋지만 이러한 사고 방식은 역으로 말하면 교육을 받는 청소년이나 인간을 너무나도 우습게 보는 사고 방식이며 견해라고도 할 수 있다. 청소년이나 개인을 조작의 대상으로서 밖에 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청소년은 착색시킨다고 해서 간단히 빨간색이 되거나 파란색이 되거나 하는 동물일까. 그릇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변형시킬 수 있는 생물인 것일까. 물론 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오히려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적 인간으로서 그것에 상당한 자질과 능력이 육성된 단계에서 이루어 져야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사회력의 기초적 자질이 생겨나 있지 않은 인간에게 강제로 강요하면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일종의 참견이고 교육을 받는 측에게 있어서는 '쓸데없는 참견'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말이 좀 지나치기는 하지만, 적어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

로 캐나다의 헤어인디안 사회에서는 영어의 teach(가르친다)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고 한다(原ひろ子『子どもの文化人類學』). 말이 없다는 것은 '가르친다'라는 행위나 영위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헤어인디안의 사회에도 learn(배우다)이라는 말은 있다고 한다. 그 말은 청소년은 배우기만 해도 충분히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익힐 수가 있다는 뜻이 된다. 청소년은 주위에 있는 어른들과 사귀며 행동을 같이 함으로서 사회력이 있는 인간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청소년이 자라는 원리는 본질적으로 같다. 교육운운하기 전에 우리들은 먼저 아이들을 사회력이 있는 인간으로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타자와의 상호행위를 풍족하게 하여 타자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 체험을 풍부하게 체험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양육하는 어른의 책임은 무엇인가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기술해 왔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읽기 쓰기를 잘하고 계산이 빠르며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게 되는 것보다도, 사회에서 남들과 원활하게 사회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고 사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사회력을 착실히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도 사회에 있어서도 바람직한 것이고,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인간을 키운다는 것의 의미라고 논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그렇게 양육시키려면 다양한 타자와의 공동체험이 중요하다는 것도 반복해 기술했다. 그러면 그 같은 양육에 있어서 우리들 어른들이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기술하기로 하겠다.

1) 없어서는 안될 아이의 응답

제3장 제2절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어린아이는 선천적으로 상당히 고도의 각종 능력을 구비한 채 태어난다. 그리고 이 같은 능력을 유감없이 작동시킴으로서 뇌를 성장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여간다는 것도 보아왔다. 사회력의 형성에 관해서도 논리는 마찬가지로, 타자와의 상호행위를 위해 준비된 능력, 예를 들면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는 능력이라든가 사람의 목소리나 동작을 모방하는 능력이나 사람의 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풀 가동시킴으로서 사회력을 키워간다는 것이다.

사회력이 형성되는 이치는 그렇다고 치고, 어린아이가 구비하고 있는 능력이 저절로 작동을 시작하여 지속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아이에게 구비되어 있는 고도의 능력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반복함으로서 작동을 지속시키고 그것이 축적되어 사회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때 환경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해 사회력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환경이라는 것도 이미 설명을 해 왔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능력이 <사람>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재차 설명해 보겠다. 예를 들어, 신생아나 수유아기에 있는 어린아이인 경우 어머니가 아기를 안아주거나 아기의 볼을 가볍게 만져보거나 말을 걸어주거나 하는 등 주위에 있는 어른이 어린아이에 대해 어떤 자극(action)을 주거나, 혹은 아기가 심하게 울거나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방긋 웃거나 "구-, 아-" 등의 소리로 반응을 보여 주위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이쪽의 자극에 대해 저쪽에서 반응(reaction)을 보이는 것이다. 이 경우, 한편의 자극에 대한 다른 한편의 반응이 적절할수록(adjustive) 바람직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양자간의 상호행위가 반복되게 된다.

그런데, 이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절에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호작용과 상호행위는 영어로 말하면 양쪽 다 인터랙션(interaction)인데,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환경과의 인터랙션을 말하는 경우에 상호작용이라는 말을 쓰고, 인간과의 인터랙션을 말하는 경우에는 상호행위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학술용어로써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단지 나의 취향이라고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사람에 따라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도 사람과의 상호작용도 다같이 상호교섭이라는 일본어를 쓰는 일이 있다. 어쨌든, 깊이 생각해야할 만 한 것은 아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주석을 붙여놓자면, 반응과 응답도, 영어로는 다같이 행동에 반응을 보인다(reaction), 내지 반응(response)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쪽을 사용할지는 사람에 따라서 제각각인 것 같다. 내가 '응답'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응답이라는 일본어에는 상대의 행위에 대해 적절한 답을 내는 행위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상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그 의도에 확실하게 대답을 하는 것을 의도한 행위,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사회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은 실로 여기서 말하는 응답이다. 자신 쪽에서 자극을 주건 아기가 자극에 대해 반응하건, 어린아이와 적절한 응답을 착실히 지속하는 것, 어린아이를 인간으로서 키우기 위해 불가피한 것은 바로 그것인 것이다.

2) 응답하는 것이 어른의 책임

「응답한다」는 것을 영어로는 반응(response)라고 한다는 것을 방금 설명했다. 누군가에게 어떤 임무를 의뢰 받아 맡겨진 그 임무를 착실히 해내는 것을 일본어로는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데, 그 책임에 해당하는 영어가 책임성(responsibility)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말할 것도 없이 반응과 책임성은 어원이 같다. 이렇게 생각해 그것을

양육에 빗대어 말하자면, 아이의 반응에 잘 응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아이가 가해오는 행위의 의도를 민감하게 캐치하여 그것에 대해 적절한 행위로 답(response)할 수 있는 능력(ability)을 구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양육을 하고 있는 어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바도 아니지만, 그게 또 말이 되니 묘하다. 아이를 양육하는 어른이 해야할 것은, 철저하게 아이와 더불어 적절한 응답을 반복하는 것, 바꿔 말하면 아이와 계속적으로 상호행위를 하는 것이다.

아이와 적절한 응답을 반복한다고 말했는데, 그 의미를 필요이상으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적절하다는 것은 아이의 질문에 바르게 답하라는 뜻이 아니고, 엄격하게 가정교육을 하라는 말도 아니다. 일본에서는 아이의 양육을 한다고하면, 그저 정색을 해서는 가정교육을 똑바로 한다거나 아이의 재능을 살리는 식의 훈련을 하는 이미지를 가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아이에게 적절하게 응답한다고해서 형식 차려서 뭔가를 의도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아이와 행위를 주고받는 것이다. 아기가 웃으면 "아-, 그래그래"라고 말을 걸어주거나 아기가 뭔가를 향해 손을 내밀면 "이건 귤이야. 이거 달라구?"라고 하며 손에 쥐어주거나 하는 것이다. 물론 아이가 어른을 향해 "이거 뭐야?"라고 질문을 하는 나이가 되면, 질문에 알기 쉽도록 확실히 대답해 주는 것도 적절한 응답이다.

요컨대,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응답'이란 아이의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의도에 맞는 반응을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 보이는 것이고, 바르다거나 바르지 않다거나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예를 들면, 아기가 칭얼대면 그 원인을 재빨리 캐치하여 칭얼대는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 그러한 것을 임기응변으로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응답이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아기가 칭얼대고 있어도 "토 야?"라며 내버려두거나 기분좋게 "아-"라거나 "우-"라고 소리를 내고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

이 된다. 텔레비전 앞에 아이를 두고 혼자서 보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며 아이와의 응답을 포기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 제3장 제1절에서 설명한 것을 상기해 주기를 바란다. 어린아이는 수반성 탐지 기능이라는 고도의 능력을 태어난 직후부터 발휘하고 있다.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대해 어떤 행위로서 반응하고, 자신의 반응에 대해 환경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지를 지켜보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서 환경에 대해 자신 나름대로의 가설을 세워 그 가설을 자기가 어느 행위를 함으로써 검증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바깥세계에 대한 인식을 심화해 가는 고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제2장 제4절에서 자세하게 기술한대로, 사회력의 근원에 있는 것은 정확한 타자인식이다. 타자로부터의 응답없이 타자의 인식이 심화될 리가 없다. 사회력의 형성에 있어서 어른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에서 새삼 재인식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3. 가정과 지역, 어른의 책임

1) 요구되는 청소년에 대한 응답

청소년의 사회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상호행위가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청소년이 타자와 상호행위를 개시할 때, 그 상대가 되는 타자란, 우선은 어머니나 아버지를 비롯한 그 청소년의 주위에 있는 어른들이다. 그렇게되면 아이의 상호행위를 성공리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상대가 되는 어른의 책임이 중요해지는데, 이 경우, 어른의 책임이란 아이의 행위에 착실히 응답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이의 양육에 참여하는 어른의 책임이란 아이와 정면으로 마주보고 아이가 보내오는 여러 가지 행위에 제대로 응답을 하는 것이다. 물

론 어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유아에 대해서만은 아니다. 상대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어도 마찬가지이다. 성장의 과정에 있는 후속세대에 대한 어른의 책임이란, 무엇보다도 우선 그들의 언동에 대해 제대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세대로서의 어른이 후속세대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계속 함으로써 그들의 사회력이 배양되어 씩씩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본의 어른들이 아이들과 접하는 것을 보면, 이 같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제4장에서 본 바와 같이 가정에서도 지역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동네에서도 아이들이 타자와, 다시 말해 어른들과 상호행위를 할 기회나 장이 점점 사라져간다. 이대로 두어 될 일이 아니다. 아이나 젊은이를 사회력이 있는 제대로 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른들은 자신의 책임을 충실히 다 해야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 우리 어른이 지금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활태도나 일상생활의 어디를 어떻게 바꿔어야 하는가.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세 가지를 제안해두고자 한다.

2) 아버지들의 생활태도를 바꾸자

먼저 제안하고자 하는 것, 생활태도를 바꾸는 일이다. 특히 일 벌레나 사회인간, 혹은 기업전사라고 불려지는 아버지들의 생활태도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일이다. 일본의 일하는 남성의 연간 노동시간은 아직 2000시간 가까이여서 독일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300시간에서 400시간정도 많다. 일본의 아버지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많은 것은, 주휴 2일제나 유급휴가 취득이 아직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지 않는 점이나 여름휴가 등 장기휴가를 얻을 수 없는 것 등이 이유인데, 이유가 어쨌든 그만큼 집에서 가족과 같이 지낼 시간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 일본에서는 통근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수년간에 걸쳐 아버지가 단신부임을 하는 케이스 등이 적지 않아, 점점 아버지가 가족과 지내는 시간이 적어지게 된다. 당연히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있으며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를 하는 시간이 적어진다.

<표 2> 일본의 아버지와 아이 - 미국 · 서독과의 비교

	함께 이야기한다			아이의 공부를 봐준다		
	일본	미국	서독	일본	미국	서독
거의매일	54.4	87.0	66.3	2.7	12.2	11.8
주3-4회	13.8	6.0	18.1	2.4	10.3	13.4
주1-2회	10.9	4.1	12.5	8.4	24.0	24.1
월1-2회	3.5	0.3	1.2	5.7	13.6	9.4
가끔	15.6	1.5	1.5	38.6	28.6	24.8
거의없다	1.0	-	0.1	40.7	10.8	15.8
	같이 스포츠를 하거나, 산책을 한다			같이 청소를 하거나, 목공일 등의 가사를 한다		
거의매일	1.4	7.7	3.9	1.3	9.2	2.9
주3-4회	1.9	11.5	5.6	0.9	9.2	7.1
주1-2회	9.9	37.3	30.8	6.3	34.6	24.3
월1-2회	12.2	22.8	26.5	10.4	20.6	16.1
가끔	45.4	17.8	23.8	42.9	22.0	30.0
거의않음	27.9	2.5	8.5	37.2	4.4	18.7

여기서 한가지 조사데이터를 제시해 보겠다. <표 2>는, 총무청의 청소년대책본부가 1986년에 행한 『일본의 아버지와 아이-미국·서독과의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인용을 한 것인데, 일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와 접촉하는 빈도가 미국이나 서독과 비교해 현저하게 적다는 것은 일목요연하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빈도는 물론 더 낮지만, 그것은 그

렇다 치고, '공부를 봐준다', '같이 운동을 한다거나', '같이 청소를 한다거나'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차이는 명확하다.

이 조사의 대상이 된 아버지들이 초등학교의 상급에서 중학교의 아버지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일본의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이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곁들여 말하자면, 이 보고서는 아버지가 가족과 어딘가에 외출하여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과 뭔가를 같이 한다거나 이웃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아이의 사회적 성숙도를 높여주는데 가장 깊이 관련되고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다.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아이의 성장에 있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같은 데이터를 볼 것도 없이, 아버지가 아이와 제대로 마주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 의견을 나누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정원의 잔디 깎기를 하거나해서 같이 땀을 흘리거나, 여름방학 숙제를 돕는다거나 고민을 잘 들어준다거나 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있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자녀의 소수화·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나 남녀 공동 참여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지금 직장 일에 편중된 일본 남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아이의 사회력의 충실한 발달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버지들이 지금까지의 생활태도를 바꾸는 것, 다시 말해 직장 중시나, 가정이나 지역경시의 가치관, 또는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것, 그리고 아버지들이 집이나 지역에서 아이들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 장래에 어른으로서 사회를 만들고 사회를 운영해 가기 위해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3) 아이와 접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자

앞으로 자녀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일본인

이 사고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 한가지 더 있다. 그것은, 남자가 아이의 양육에 관여하는 것이 보기 흉한 일이라거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견해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에도 시대의 무사 중에는 자녀양육은 남자의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여겨,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太田素子『江戸の親子』中公新書), 남자가 자녀양육에 관여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보게 된 것은, 아마 명치시대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유교적인 가족관을 기초로 선진국을 따라잡고 앞서는 것이 지상명령이었던 명치시대이후, 남자는 집밖에서 하루종일 일을 하여 나라의 부를 축적하고, 때로는 병사가 되어 전쟁에 나가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데 전념해야한다는 가치가 계속 장려된 결과, 여자가 하는 양육 따위에 신경을 빼앗기는 남자는 가치없는 존재로 간주하게 된 것일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지고 국력이 크게 위축된 전후가 되자, 이번에는 국력의 회복과 더 한층의 향상을 위해 여념없이 일해야 했기 때문에 자녀양육은 남자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사고방식이 그대로 온존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고방식이 지배적이게 되면, 자녀양육에 관여하는 아버지가 적어질 뿐 아니라 양육을 즐겁게 여기거나 기쁨으로 여기는 아버지가 적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데이터를 하나 소개해 두자. 역시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가 1994년에 행한 '아이와 가정에 관한 국제비교조사'의 결과인데, 자녀양육이 즐겁다고 한 아버지가 미국에서는 63%, 한국에서는 50%에 달해있는 데에 비해, 일본의 아버지의 경우 겨우 18%에 머물러 있다.

남자가 자녀양육에 관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자녀양육이 즐겁다는 아버지가 적은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면, 아이와 적극적으로 접촉하려는 아버지가 별로 없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고해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아버지는 물론, 우리 일본인 모두가 종래의 사고방

식을 전환시켜 자녀양육에 관여하는 것도 아버지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해, 그것을 아버지자신이 자신의 기쁨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

시간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궁리를 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말은 자주 듣는 말이다. 일본의 아버지들이 자기변혁을 이루어내어, 직장일 이외에 연소할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지속적으로 만들어내, 그 대부분을 자신의 아이나 지역의 아이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으로 할애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기도한 아버지가 늘기를 기대한다. 일본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변신할 때, 아이의 성장에서 볼 수 있는 오늘날의 상황이 크게 바뀌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4) 학교와 지역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자

어린아이에게 충실히 사회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아버지들의 변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술해왔다. 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도 소중히 여기는 인간으로의 전향과, 자녀양육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인간으로의 변신이다. 이 두 가지 외에 하나 더 추가시켜두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학교교육과 지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제안이다.

학교는 원래 지역주민의 공유재산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메이지시대 초, 학제의 반포와 함께 전국각지에 세워진 학교의 대다수는 지역주민이 건축자금을 마련하여 지은 것이었고, 교원의 채용과 학교의 유지 관리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학교가 점차 주민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나 고도 경제성장이 시작되기 전, 경험주의적 교육이 장려되고 있을 무렵까지는 학교는 아직 지역의 공유물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의 행사나 운동회 학예회 등의 행사는 그 자체가 지역의 행사였고, 학교의 교사들도 학교근처에 살면서 일상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

그 같은 학교가 주민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그 벽을 높게 쌓아간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도경제성장이 시작되어 상급학교로의 진학 경쟁이 치열해지게 된 무렵부터였다. 학교주변에 살던 교사들은 거의 없어지고 수업이나 행사에 주민이 협력하고 참여하려고 해도 정중하게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되고 학교에 협력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던 PTA조차도 학교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으로부터 쓸데없는 간섭을 한다는 눈총을 받는 일이 많고, 주민이 학교에 관여할 여지는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최근에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다. 교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나 등교거부 등, 학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산적함에 따라 학교와 가정과 지역의 연계나 융합이 제안되게 되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주민이 학교 평의원으로서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제도화되고 주민의 참여와 협력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총합학습이 2002년부터 시작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추세는 주민이 학교를 둘러싼 지역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지역을 무대로 아이들과 함께 각종 활동을 시작할 절호의 찬스이다.

이러한 활동은 예를 들면 치바현(千葉縣 習志野市)의 秋津지구등에서 이미 아버지들을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활동을 조인트하는 시도로써 시작되고 있고,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岸裕司『學校を基地に一お父さんのまちづくり』).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각종 활동이 아이디어를 짜내어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4. 지역의 아이는 지역에서 키우자

1) 왜 지역사회인가

어린아이의 사회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력을 형성하

는 어린아이 쪽에서 본다면, 어떤 식이건 간에 타자와의 상호행위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은 몇 번이고 반복을 해 온바와 같다. 물론 제3장 제3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력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몇개인가의 단계가 있어, 어린아이가 아직 자신의 발로 걸을 수 없거나 걸을 수는 있어도 겨우 집안이나 집 주위정도라면 어린아이와의 상호행위는 어머니와 아버지 등 그 아이의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당연히 어린아이의 사회력이 형성되어지는 중요한 장은 집안이 된다. 자라서 보육원에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아이의 생활권은 더욱 넓어지고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이 되는 어린아이의 생활권은 거의 지역사회 전체로 넓어지게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사회력 형성의 장도 또한 가정에서 지역사회로 옮겨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많은 사람이 사회력이 형성되는 장으로서 학교를 빠뜨리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고 학교에는 많은 선생님이 있고, 무엇보다도 몇 백, 몇 천의 아이가 있어, 그곳에서의 인간관계는 아이의 사회력형성에 크게 도움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선생님이나 반 친구나 상급생이나 하급생 등, 학교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상호행위가 사회력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진 반 친구와 여러 상황 하에서 교제를 하는 것이 아이들의 타자인식이나 타자로의 공감을 키우는데 얼마간의 공헌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것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다니는 연령층의 아이들이 사회력을 형성하는 주된 장이 학교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있어 그들의 사회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장은 지역사회이다.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번째 이유는, 지역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많은 집이 있고, 많은 가게가 있고, 공장이 있고, 역이 있고, 우체국이 있고, 공원이 있고, 아동관이 있고, 강이 있고, 숲이 있으므로, 공간으로서의 다양함은 학교와는 비교할 수 없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학교도 지역사회 속의 하나의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 이

들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많은 장소는, 각각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장소이고, 바꿔 말하면 그곳은 아이들이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른 체험이 가능한 장소이기도 하다. 다양한 타자와의 교류의 장으로서도, 다양한 경험을 하는 장으로서도 지역사회는 학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능성을 가진 장인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지역사회에는 다채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있는 것은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동질적인 사람들인데 반해, 지역사회에는 고령자도 있고 유아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만 보더라도 순경이 있고, 역원이 있고, 야채가게 아줌마나 생선가게 아저씨가 있으며, 관청의 직원이 있고, 병원의 간호사가 있다. 이렇듯 그 다채로움은 물론 학교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았을 때, 취학 연령기 이후의 아이들에게 있어, 사회력을 형성하는 장이 지역사회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설명은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2) 지역의 교육력이란 무엇인가

집단 따돌림이나 등교거부나 교내폭력 등, 학교에 각종 병리현상이 생겨 학교만으로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여겨질 무렵부터 학교와 가정과 지역의 연계가 제안되어 지역의 교육력을 높일 필요성이 평가되게 되었다. 그런데, 지역의 교육력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지역의 교육력을 높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는 이런 것이 많다. 즉, 지역의 어른이 지역에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아이에게 주의를 해 가르친다거나 지역의 번화가를 순회하며 비행청소년의 선도를 한다거나,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간판이나 가게를 철거시킨다거나, 혹은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이벤트나 스포츠 대회를 열어 즐거움을 준다거나 아이들과 함께 도로

의 청소를 하거나 화단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역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관심하지 않거나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아이들에게 있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호의나 선의로 해준다는 그 자체에 의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무엇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둔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한번 물어보자. 지역의 교육력이란 무엇인가? 나의 답은 확실하다. 지역의 교육력을 높인다는 것은, 아이들의 사회력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사회력을 키우는데 지역만큼 적합한 곳은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납득이 갔을 것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에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사람들이 다수 살고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고 체험을 같이 하는 장도 또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기회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상호행위를 함으로써 아이들의 사회력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이 같은 기대이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을, 아이들을 위해 활용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3)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만들기

지역의 교육력이란,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과 아이들과의 교류나 공동체험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사회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에 납득하고 동의한다면, 남은 일은 아이들의 사회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에 사는 많은 주민을 동원해 다양한 지역활동을 전개하고 거기에 아이들을 참가시켜 어른들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 그 같은 방향으로 지역사회를 바꿔가는 것, 그것이 「아이를 위한 지역만들기」이다. 이 경우, 지역 만들기에는 하드면

(hardware)과 소프트면(software)의 두 가지 면이 있다.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두자.

우선, 하드면은 아동관이나 청소년센터나 체육관 등의 시설을 만들거나, 캠프장이나 아동공원이나 놀이터 등, 아이들이 활동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예로 든 시설이나 장소는 주로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지역의 어른과 아이들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사회력의 형성을 위해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나 장소도 이용하는 방법여하로 어른과 아이의 교류에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소프트면은 지어둔 여러 시설(이 경우, 꼭 청소년을 위한 시설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의 이용법에 대해 아이디어를 짜내거나, 지역에 대해 생각하는 학습회를 기획하거나, 이벤트나 행사를 기획하여 실행하거나, 주민에 대한 서비스요원을 늘리거나 아동회 활동의 리더를 양성하거나 주민에 의한 기획운영위원회를 조직하거나 주민활동관련의 예산을 늘리거나 각종 지역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의 준비를 하는 등, 지역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만나 교류하며 공동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그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의 어린이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지역의 어른들과 상호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드/소프트 양측에서의 지혜를 짜내 지역을 바꾸어 가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조성이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조성이 잘되어 실제로 어린이들과 어른들의 상호행위가 활발해진다면, 어린이들의 사회력은 확실하게 증가될 것이다.

4) CCC 활동의 시도

지금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조성의 구체적인 안과 그 의의를 설명했는데, 이런 제안은 1983년부터 3년에 걸쳐 총리부 소관의 재단법인

'내일을 위한 일본 만들기 협회'에 의해 CCC 운동(정식으로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촉진 모델지구육성 사업])으로서 시도되어 온 것이다. CCC라는 것은, Create the Community for Children의 머리자를 딴 약칭이다. 이 운동은 지역사회를 아이들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는 장소로서 탈바꿈시킬 것을 목적으로 이와테현(岩手縣)의 센마야(千厩町小梨地區), 도쿄의 세타가야구(世田谷區 太子堂地區), 또 도쿄의 히가시구루메시東久留米市龍山地區) 등 세 곳을 모델 지구로 실시한 활동이다.

센마야에서는 어른들과 어린이가 공동으로 캠프장을 만들었고, 世田谷區에서는 플레이 파크를 만들었고, 東久留米區에서는 놀이터 만들기가 주 활동이었다. 각각의 활동내용은 다르지만, 활동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이 체험은 그 후의 성장에 있어서 좋은 체험이었을 것에 틀림없다. 이 사업이 계기가 되어 센마야의 모자(母子)와 世田谷區의 모자들이 봄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해 각각의 집에서 홈 스테이를 하는 [도시어린이와 시골어린이의 상호교환교류]가 시작되었다. 이 교류는 16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활동의 의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일본 만들기 협회'는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조성의 노하우를 『핸드북·어린이들을 위한 지역조성』에 묶어 간행하였다. 이 책에 CCC 운동의 중앙위원으로서 나도 집필에 참여했는데, 말 그대로 어린이를 위한 지역조성에 도움이 되는 지혜나 아이디어가 188항목에 걸쳐 적혀 있다. 독자 여러분도 많이 참고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한 지역조성의 제안에 대해, 나는 지금까지 몇 개의 자치제나 조직을 만들어 왔는데, 그 중 하나가 도쿄에 제안한 [도쿄 다람쥐·호랑이 계획]이다(도쿄도생활문화국 『第21期 東京都青少年問題協議會答申』). [다람쥐]는 어린이를, [호랑이]는 어른을 대표하는 아버지를 의미한 이름이다. 지역에서의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하나가 되어 지역활동을 전개해가자는 제안이다.

리스트라라는 것은 재구축, 다시 짓다라는 의미를 가진 리스트럭춰링

(Restructuring)이라는 영어의 약자이다. 기업에서는 조직의 개편이나 인원삭감의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다. [도쿄 다람쥐·호랑이 계획]이라는 명칭에는 이 '새로 만들다'라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단지 여기서는 좋은 의미에서의 리스트럭춰링이다. 어른들의 사정이나 비지니스의 사정을 우선으로 여기는 지역사회를, 그곳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지역사회로, 하드와 소프트의 양면에서 새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이다. 지역의 어른들이 진심으로 지역의 어린이들을 사회력 풍부한 사회인으로 키우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기를 원한다.

5) 리이넬 플랜의 제안

지역의 아이들을 장래에 지역조성이나 사회조성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력 풍부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지역활동은, 아이디어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15년정도 전부터 재단법인 '내일의 일본을 만드는 협회'의 '내 고향 만들기 상'의 중앙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응모되어 오는 지역 만들기 활동만을 보아도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는 지역활동은 다채롭다. 그 때문에 가령 어느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자는 생각을 가진 어른이 있어, 그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활동의 사례를 모아 그 중 몇 개를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고 한다면 매달 새로운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지역의 특성 등과 관계없이 생각나는 대로 단지 실행만 하는 지역이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결점이 있다. 하나는, 활동이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의 과제에 뿌리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활동내용에 계속성이 없고 활동을 이것저것 바꾼다고 해도 바꾸는데 필연성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활동은 역시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의 과제라는 것에 뿌리내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단편적인 활동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발전성있는 활동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활동은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되는가. 내가 10년정도 전부터 제안하고 권장해온 것이 라이넬 플랜이라는 것이다(『사회교육』, 1992년 2월호).

라이넬 플랜(LINEL Plan)이란, 영어의 Life Need Learning Plan을 단축형으로 만든 것으로 둘 다 조어이다. 지금 일본의 여기저기에서 빈번히 입에 오르고 있는 평생학습이란 Life-Long Learning의 일본어역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지금은 인생 80년 시대이고 기술혁신도 일취월장의 단계를 넘어 초진분보(秒進分步)라고 말하여질 정도로 빠르다. 그 때문에 배워야 할 것이 학교공부만으로는 모자라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생애에 걸쳐서 (life-long) 공부하자는 것이 일반적으로 입에 오르고 있는 평생학습의 요지이다.

이에 반해, 내가 제창하고 있는 라이넬 플랜은 학습이란 본래 더 주체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자신이 보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life-need) 배우는 것이다. 자신의 지금의 생활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life-need) 배운다는 것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학습법의 새로운 제안이다. 요컨대, 학습이라는 것은 개인이건 그룹이건 간에 여가활동으로 하거나 자기만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절실한 욕구나,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지역에서 실현해야 하는 과제에 명확하게 '답을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의 활동도 이와 같은 생각과 학습을 기초로 해야한다는 것이 나의 제안이다. 이것을 지역활동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6) 라이넬 플랜의 실천 예

예를 들면, 어떤 시가 있었다고 하자. 그 시에는 녹지나 공원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시의 중심부를 강이 흐르고 있어서 거의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강 주변을 정비하여 녹지나 공원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여 강 주변을 녹지 공원으로 만든다는 지역의 과제가 생겨나게 된다(제1단계).

그러면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연파괴는 되지 않을까. 강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들에게 영향은 없을까. 강이 범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원화를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설계를 해야하는가 등등 예산이외에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단지 행정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정보를 모으거나 조사하거나 해서 생각해 보자.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학습할 필요성이 생겨나는 것이다(제2단계).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공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도 받아들이자. 법률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관청직원도 참가하도록 하자. 이 기회에 의원도 같이 공부를 하자. 가능하다면 자신의 손으로 설계까지 해보자. 아는 건축가에게 의뢰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포함하여 공원조성의 실현을 향해 공동학습이 실현되게 된다(제3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현을 위해 직접 땀을 흘리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학습이나 활동이 말하자면 라이넬플랜에 기초한 지역활동이 되는 것이다.

문부성도 최근(1999년 4월) 생애학습심의회의 답신을 정리하여 그 중에서 '평생학습에 의한 마을만들기'을 제창하고 있다. '지역의 재생, 지역사회의 활성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또 평생학습을 통해서만 가장 좋은 지역사회의 활성화가 실현되어진다고 한다면 한발 짝 나아가서 평생학습의 진흥을 향해, 다시 말해 사람들이 평생학습의 성과를 살림으로서 지역사회의 활성화, 마을조성을 진척시켜 가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다. 내가 라이넬 플랜을 제안한지 거의 10년이 된다. 문부성도 겨우 생각을 바꾸고 한발 짝 전진했다는 뜻일까.

내가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제창하고 있는 라이넬 플랜과 거의 같은 것을 20년이나 전부터 실행해 온 주민단체가 있다. '내일의 일본을 만드는 협회'가 상을 주는 내고향 만들기 상 1998년도 내각총리대신상을 수상한 이바라기현 히다찌시(茨城縣日立市)의 '塙山學區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모임'(古川稔회장)이 그것이다. 처음에는 여름방학에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축제(さんさんsun-son祭り)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주민이 모여 활동을 계속해 가는 사이에 청소년들을 포함한 주민 전체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하게 되어 주민의식조사를 수 차례 행하여 그것을 기초로 마을 만들기의 장기계획인 '塙山커뮤니티 플랜 sun-son 계획'을 입안하여 현재 55개의 사업계획을 세워 실행중이다.

젊은 어머니의 육아지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배달하는 산타 택배, 화단의 정리와 꽃손질, 쓰레기장의 공원조성화, 커뮤니티 센터 건설, 쓰레기 분리수거의 실현, 독거 고령자에 대한 식사 배급, 프리마켓 '고참빼 시장' 등등 활동은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문자그대로 전주민을 포함한 다채로운 내용이다.

드는 경비도 한 가정 500엔의 회비와 원칙 실비제를 채용함으로써 충당하고 있다. 주민이 할 의욕만 있다면 뭐든지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활동을 개시한지 20년. 언제나 지역의 과제를 확실하게 파악하여 해야할 연구나 의논을 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통하여 그것을 착실하게 실현시켜온 실적은 대단하다고 할만하다.

그러나 수많은 지역활동 중에서 이 협회가 가장 주목받는 것은 '커뮤니티 활동은 차세대를 짊어질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사고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이며, '어린이와 어른이 같은 체험을 통해 자주성이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塙山 어린이를 키우는 것이 최선의 청소년 육성활동이다'(내일의 일본을 만드는 협회편『고향 만들기 '98』)라는 신념을 가지고 항상 어린이와 함께 활동을 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사회력은, 가정교육이나 교육에 의해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역에서 어른과 청소년들의 공동체험을 통해 반복되어지는 다양한 타자와의 상호행위의 과정을 통해 키워져 가는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강조하고 싶다.

5. 지역활동의 거점으로서의 모험놀이터

앞 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역에는 많은 시설에 여러 가지 장이 있다. 그 어느 것도 아이디어에 따라서는 지역활동의 장으로써 활용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도시화한 사회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언가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면, 역은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기관의 거점으로서, 공장은 물건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등등이다. 게다가 어린이들의 시점에서 보면, 역이나 공장이나 박물관 등은 흥미진진한 장소이며 절호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린이들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특이한 어른이 있어서 그곳을 어린이들을 위해 개설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적은 것이다. 만약 그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을 것이며, 사전등록이나 어떤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시설뿐만이 아니다. 지금은 마을의 어디에서 공터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나 관리자의 허가없이는 출입도 이용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의 생애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가 이 같이 되어버린 오늘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고나 준비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어린이가 하고 싶을 때 그곳에 가면 언제라도 누군가와 만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런 장소가 지역사회 안에, 어린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지역사회는 크게 그

의미가 달라질 것이고, 어린이들의 평소의 행동도 크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또 서민이 하는 지역활동도 그 질을 크게 바꿀 것이다.

그런 마법의 지팡이 같은 장소가 있을까. 완전무결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에 가까운 장소는 있다. 모험놀이터라고 불리는 곳이 그것이다. 그러면 모험놀이터란 어떤 곳인가. 일본에 그런 장소가 있을까. 그것이 있다면 어린이들과 지역은 어떻게 바뀔까. 이 책의 마지막에는 모험놀이터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술하고자한다.

1) 모험놀이터와의 만남

나의 자원봉사활동 중 하나라고 해서 지금까지 모험놀이터와의 개인적인 관여에 대하여 책에 쓰거나 논문을 쓰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의 모험놀이터와의 관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런 만큼 쓰고 말하고 싶은 것은 많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할 때가 아니다. 지극히 간단하게 나와 모험놀이터와의 만남에 대해서만 말해두기로 하겠다.

내가 모험놀이터와 관여하게 된 것은, 1975년 국제규모의 자원봉사조직인 '국제놀이터협회(통칭 IPA)'의 제6회 세계대회에 출석한 이후부터이다. 지금부터 약25년 전이 된다. IPA의 정식 명칭은 현재 개칭되어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한 국제협회(國際遊育權協會)'가 되어있지만, 이 협회가 생기게 된 경위는 본론에서 벗어남으로 생략하기로 하겠다.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간 3, 4년 전부터 나는 일본 경제신문사에서 일을 하면서 1971년에 통산성의 소관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여가개발센터'에서 아이들의 놀이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일본 '레크리에이션협회'가 발행하고 있는 잡지 『레크리에이션』의 편집을 돕고 있었다. 그것이 인연으로 당시 IPA의 단체회원이었던 일본 레크리에이션 협회에서 IPA의 세계대회에 출석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배로 도항하여 출석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해 세계대회에 출석할 때까지 모험놀이터에 관해 충분한 지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때마침 오무라 켄이치(大村

虔一) 부부에 의해 번역되어 출판된 영국의 하트우드경 부인의 『도시의 놀이터』와 후에 IPA의 회장이 된 벤슨의 『새로운 놀이터』를 읽었을 정도였다.

이탈리아 밀라노시에 있는 보코니 대학에서 열린 IPA 제6회 세계대회의 통일 테마는 '모험놀이터와 아이들의 창조성'이었다. 대회중인 일주일간 나는 계속 유럽에서 참가한 플레이리더라는 전문식자들의 보고를 들었다. 물론 도중에 안내 받아 밀라노시에 있는 모험놀이터를 몇군데 견학도 했다. 이렇게 모험놀이터에 관심을 가지게 된 나는 대회가 끝난 후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스위스, 독일, 네델란드, 벨기에, 프랑스 그리고 영국 등 대회 중에 알게 된 사람들을 방문하여 각각의 나라의 모험놀이터를 보며 돌아다녔다. 최근 아이들의 상황과 비교하면 그나마 괜찮았다고 밖에 할 수 없지만, 당시 이미 아이들이 놀지 않게 되었다거나 무기력해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다. 그런 이유도 있어 유럽 각지의 모험놀이터를 보면서 그 의의를 인정하기 시작한 나는 '일본에서도 이런 놀이터를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귀국했다.

그리고 3년후, 제7회대회가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시에서 열렸다. 일본 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의 파견은 폐지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의의가 있는 대회에 일본인이 아무도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일본으로부터의 단 한 명의 참가자로서 사비로 참가를 하기로 했다. 대회장이 된 칼튼대학에 도착하여 접수수속을 하자니 "당신은 미스터 오오무라와 같은 분입니다"라고 안내 받았다. 의외로 일본사람이 한사람 더 참가했었던 것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일본의 모험놀이터를 시작한 도시 설계가 오오무라 켄이치(大村虔一/현 東北大學공학부교수) 였다.

머무는 방이 같으면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된다. 놀랍게도 오오무라씨는 전후 중핵교육과정 운동이 한창이었을 무렵, 나의 대학시절의 지도교수였고 전후 사회과를 창출해 낸 사람 중 한명인 馬場四郎와 같이 전국 각지에서 중핵교육과정을 지도하고 있던 大村榮의 장남이었던 것

이다. 대단한 인연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귀국하면 일본에도 모험놀이터를 만들자. IPA 일본지부를 조직하자는 의견에 일치를 보았다. 이후 1990년에 IPA 제11회 세계대회를 도쿄에서 개최를 하기까지 오오무라와 힘을 모아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

2) 모험놀이터란 어떤 장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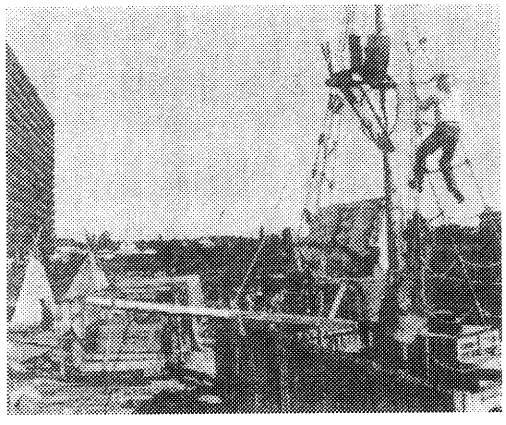
간단히 설명할 생각이었는데 어느 새 길어져 버렸다. 본론으로 돌아오자. 우선, 모험놀이터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모험놀이터가 이 지상에 최초로 모습을 나타낸 것은 1943년,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교외에서였다. 이 새로운 놀이터를 고안한 것은 덴마크의 정원 조성가 소렌센이다. 건축현장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고 놀이터는 원래 아이들이 자유자재로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는 변형이 자유자재인 공간이여야 한다고 생각해, 설계해 만든 것이 코펜하겐교외의 엔도랍프의 모험 놀이터였다.

덴마크에 새로운 놀이터가 생겼다는 사실을 들은 사람 중에 영국의 알렌 오브 하트우드경 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전부터 어린이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어린이의 놀이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책 등을 쓰던 부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바로 엔도랍프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본 놀이터야말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곳이라고 실감한 부인은 영국에 돌아와 곧 본국에서 모험놀이터 조성에 정력을 쏟음과 동시에 그것을 세계에 넓히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개시했다. 이렇게 해서 전성기에는 영국 국내에 만해도 400개소의 모험놀이터가 만들어졌다.

알렌경 부인의 구호에 따라 모험놀이터는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에 이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등에 보급되어갔다. 구미 여러 나가가 중심이였다고 해도 모험놀이터가 각 국에 상당히 확산되어가던 1959년, UN에서 '아동권리선언'이 채택되게 되었다. 선언 제7조에는 교육권과 더불어 놀이의 권리(遊育權)도 명기되어 있었다. 교육권의 실현

에 대해서는, 국가를 비롯하여 그 밖의 여러 조직이나 단체가 움직이겠지만, 놀 권리는 누가 보장하는가. 우리들이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알렌경 부인과 각 국에서 어린이의 놀이에 관련하고있던 사람들 계17명이 모여, 국제적인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그것이 IPA였다. 그리고 지금 북미, 남미, 아시아,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30개국 계2000명 정도의 회원을 가진 국제자원봉사조직으로 성장했다.



[그림 14] 코펜하겐교외(덴마크)의 모험놀이터(Arvid Bengtsson · Adventure Playgrounds, 1972)

[그림 15] 런던시내(영국)의 모험놀이터(Lady Allen of Hurtwood · Planning For Play. 1968)

그러면, 모험놀이터란 어떤 장소인가. 런던놀이터협회가 발행하고있는 선전용 팜플렛이 간결하게 요점을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인용해두겠다.

'모험 놀이터는, 좁아진 도시공간에서는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다. 넓이는 3분의 1에이커에서 2에이커(1에이커=약4050㎡)까지 여러 종류이지만, 그곳에서는 폐재를 사용해 오두막이나 노보리토를 만들거나 장작불을 피우거나 요리를 하거나 굴을 파거나 야채를 재배하거나, 동물을 키우거나, 모래나 물이나 찰흙으로 놀 수 있다. 그곳의 분위기는 자유롭고 관대하다....

모험놀이터에는 반드시 상주하는 플레이리더가 있다. 그들은 어린이들의 친구이기도 하며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잘 도와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사람들이다. 또 모험놀이터에는 부설 건물이 있어, 그곳에는 플레이리더의 사무실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공작도구, 물감, 연극의상, 놀이기구, 게임, 책, 레코드, 악기 등이 비치되어 있어, 그것을 사용하여 놀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요컨대 모험놀이터란, '아이들의 신체나 욕구, 또한 행동은 발달 단계에 따라 점점 변화하는 것이고 또 같은 연령이라도 아이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아이의 어떤 욕구에도 답할 수 있고, 또 어린이의 욕구를 환기시키는 자극이 풍부한 환경이야말로 아이의 발달에 바람직하다'는 철학에 기초해 만들어진 장소라는 것이다.

여러 어린이의 실제 모습을 잘 지켜보면서 각각의 아이의 발달을 원조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식자 플레이리더가 상주하고 있는 것도 모험놀이터의 특징이다. 플레이리더는, 구미 각 국에서는 학교의 선생과 같이 지방공무원으로서 일하는 전문식자이다. 물론 교사가 그렇듯, 그들도 또한 대학의 전문과정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대학에 있어서 플레이리더의 양성과정은, 수업연한이나 교육과정 등 나라나 대학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면, 덴마크의 경우, 수업연한

은 3년이며 교육학이나 심리학, 또한 사회학이나 사회 의료학 등의 학과를 배우는 것 외에, 음악이나 연극이나 화법, 그림이나 공예의 실기, 거기에 구조법이나 실용법규, 그리고 놀이터나 청소년시설 등에서의 합계 750시간 정도의 실습이 더해져, 연간 약900시간 정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유감이지만 일본의 대학에 플레이리더를 양성하는 전문과정은 아직 없다.

그런데 플레이리더의 역할은 단지 아이들의 놀이나 활동을 서포트하는 것만은 아니다. 어린이들의 좋은 이야기상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상담에도 응하게 된다. 그리고 놀이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함으로써 아이들을 지역의 어른들과 만나게 하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린이의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일인가. 모험놀이터는 도회 속의 단지 지저분하고 정신없는 공간인 것이 아니다.

3) 하네기플레이파크의 존재평가

모험놀이터라고 불리는 놀이터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일본에서 실험적으로 개설되게 된 것은, 오일쇼크로 경제고도성장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1970년대 중반경부터의 일이다. 1974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2개월간, 매주 일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사가현(佐賀縣唐津市)에서 唐津청년회의소가 '모험촌'으로 오픈한 것이 일본 최초의 시도였다. 이후, 80년대에 걸쳐 靑森市, 橫浜市, 寶塚市, 福岡縣 宗像町 등 10개소 정도에서 실험적으로 개설되었는데, 그 중에서 특필할 만한 것은 東京都 世田谷區에 개설된 하네기(羽根木) 플레이파크이다.

1979년은 국제아동의 해였다. 世田谷區가 아동의 해를 기념하여 단년도 사업으로서 개설한 것이 羽根木플레이파크인데, 이것이 주민이나 어린이에게 준 영향은 커서,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世田谷區에는 그 이후 世田谷플레이파크와 駒澤 하랍파 플레이파크가 개설

되어, 지금 또 烏山플레이파크가 개설예정이다. 世田谷區에서 모험놀이터가 퍼지고 있는 것은, 행정의 이해가 따라 주는 것도 이유이지만, 주민과 아이들의 평가가 높은 것이 큰 이유가 되고 있다.

羽根木플레이파크가 개설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최근 2, 3년 사이 겨우 모험놀이터가 世田谷區 이외에서도 개설되게 되었다. 감도가 둔한 교육관계자나 일반 주민도 겨우 그 의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제15기 중앙교육심의회가 답신중에 플레이 파크의 의의에 대해 언급한데에 이어, 99년 어린이 날에 아사히(朝日)신문이 '모험놀이터를 넓히자'는 사설을 게재한 것도 그 현상의 하나이다.

모험놀이터가 인지되어, 전국적인 확산을 보이기 시작하게 된 최대의 이유는, 청소년을 둘러싼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회적 배경도 있지만, 羽根木플레이파크가 주민에게 지지를 받아 지속해서 존재해, 어린이들의 인간으로서의 성장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어온 것에 있다고 하지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린이에게 있어 존재가치를 새로 정비하면 다음의 3가지가 될 것이다.

① 어린이에게 다양한 어른을 만나게 해 그들과 상호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② 어린이에게 각종 체험을 시킴으로써 몸으로 배우는 장을 마련한 것.
③ 놀이터에서의 어린이와 어린이, 어린이와 어른, 어른과 어른의 만남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내는 계기를 만들어 낸 것.

羽根木플레이파크 자체의 존재가치는 또 있다. 예를 들면, 주민이 주체가 되어 파크를 운영해 실적을 올림으로서, 행정 측의 주민에 대한 인식을 바꾼 것이라거나, 주민과 행정의 협력체계를 새로 창출해 낸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의 사회력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의의는 위의 세 가지가 될 것이다. 많은 어른들이 모험놀이터가 어린이에게 끼치는 여러 가지 가치를 인식하고, 각각의 지역에서 모험 놀이터의 개설을 목표로 활동을 개시한다는 것에 기대하고 싶다.

4) 지역에 모험놀이터가 있다는 것

모험놀이터는 어떤 경위로 만들어져, 세계로 퍼진 것일까. 모험놀이터란 어떤 장소인가. 일본에 있어서 모험놀이터 만들기는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가. 일본에서의 상설 모험놀이터의 선구를 달리는 東京都 世田谷區의 羽根木플레이파크의 존재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 좀 서둘러 기술해 왔는데, 마지막으로 이 같은 장소가 '지역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모험놀이터는 겉으로 보기에는 더럽고 폐재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어 정신없어 보인다.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일본정원이 취향인 일본인의 미의식에는 우선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모험놀이터는 또 말 그대로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다. 칼도 쓰고 불도 때고, 높은 나무에 오르기도 하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은 항상 있으며 자칫하면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장식장에 넣어두듯이 키우는 것이 아이를 소중히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일본인에게는 좀 꺼려지는 그런 장소이다. 그런데도 世田谷區의 주민이 이런 장소를 굳이 만들어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왜인가. 힘든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염출 해, 플레이리더라는 얼핏 어린티를 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인간을 채용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어쩌나 항상 두려워하며, 적지 않은 주민의 항의에 시달리면서 그래도 모험놀이터를 만들어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왜인가.

수많은 모험을 무릅쓰고도, 굳이 모험놀이터를 만들어 유지하려고 하는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별한 뭔가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 그곳에 사는 부모들의 대부분이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고 간절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우리 지역의 아이는 우리 지역에서 키우겠다는 자세일 것이고, 자기가 사는 지역을 좋게 만들고 싶다는 지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생각해보면, 지역 주

민 중에 제4장 제2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의미로의 커뮤니티 의식이 강하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역의 어른들에게 자기의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고 정착 의식이 있고, 지역에의 공헌의식이 있고, 지역 만들기에 참가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역에 모험놀이터가 있다는 것은, 단지 아이를 위한 특이한 놀이공간이 있다는 의미뿐 아니라 지역의 어른들에게 지역을 더욱 살기 좋게 하고 좋은 지역으로 키워가겠다고 하는 지향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희생을 무릅쓰고 부담을 져가면서 모험놀이터를 만들어 유지해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같은 커뮤니티 의식이 있는 어른들이 지역 만들기 활동을 하는 지역이야말로 행복한 것이다. 왜냐면 그런 어른들의 활동범위 내에 아이들이 포함됨으로써만 아이들의 사회력은 훌륭하게 키워진다고 단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좀처럼 진정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린이의 병리현상에 초조해진 사람들이 부모에게 아이의 가정교육을 잘해야 한다느니 학교에서 덕목교육에 힘써야 한다느니 의무교육의 역할은 어린아이를 한사람의 사회인으로 키우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 그를 위해서는 싫다고 하는 학생을 완력으로 눌러서라도 기초적인 힘을 키워주지 않으면 않되며,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지역도 교사에게 협력하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책에서 누누히 설명해 왔듯이 어린이의 사회력은 그러한 것으로는 쉽게 키워지지 않는다. 어린아이의 사회력은 삶에 대한 어른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하고, 거기에서 발하는 강한 커뮤니티 의식이 있어야 하며, 거기에 뿌리박은 어른들의 지역조성에 관련된 여러 활동이 있고, 그 활동에 어린아이를 포함시키면서 반복되는 어른과 아이들의 상호행위의 과정에서 키워지고 강화되어 가야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상당히 길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아이의 사회력

을 충실히 길러 줄 수 있는가 어떤가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긴 과정을 긴 안목으로 동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인류사회가 맞이하게 될 앞으로의 사회를 잘 파악해, 지금이야말로 다음세대를 짊어질 젊은 세대의 사회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 그것을 철저하게 할 각오를 가지길 바란다. 어른들의 삶에 대한 자세나 생활태도나 라이프스타일을 크게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 이유이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찬동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저 자 후 기

어느 대학이나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정년이 되어 그만두는 교수가 연도 말에 최종강의를 하는 것이 거의 관례가 되어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전문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최종강의를 듣도록 하고 있다. 1998년도 말에는 인간학의 동료였던 고바야시 시게오(小林重雄)교수의 최종강의가 있었다. 오랜 기간동안 행동요법에 의한 자폐증아의 치료에 관한 연구를 해온 교수님이다. 강의 중에 교수님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다.

"전철을 타고 있다보면 노약자석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자는 척 하는 청소년을 자주 봅니다. 그런 청소년을 보고 어른들은 "요즘 젊은애들은 사회성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청소년은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자는 척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는 노약자석에는 고령자나 장애자 밖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령자나 장애자가 있으면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싫고, 그러자면 모른척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는 척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굴려 이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폐증아는 눈앞에 누가 오건 눈을 뻔히 뜨고 앉아 있습니다."

청소년의 사회성과 사회력이라는 것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는 이 이야기가 생각지 않게 좋은 힌트가 되었다. 그렇구나, 사회성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어중간하게 도덕성이나 사회규범과 겹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머리 속에서 맴맴 도는 생각을 사회성이라고 불러야할지 어떨지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구나라고. 사회성이란 요컨대 사회를 잘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루세라숍[15]에 가는 것도 원조교제를 하는 것도, 적당한 구실로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는 것도 자신의 잘못을 남의 잘못으로 치는 것도 혹은 남과의 관계를 피해 자신의 껍질에 파고들어 살고 있는 것도 모두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새로운 형태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겨우 머리 속에서 맴맴 돌던 것이 정리가 된다. 그렇다, 지금의 청소년에게 결핍되고 있는 것은 사회성이 아니라 '사회력'이 아닐까? 사회에 적응하는 힘이 아니라 사회를 만들어 변혁해 가는 힘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른도 상당히 사회력이 결핍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점점 틀이 잡힐 무렵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아직 생각하거나 조사하거나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 많았지만 이 이상 이 책의 출판을 늦추고 싶지 않았다. 아동의 현재를 운운하며 이래라 저래라 근거 없는 논의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단숨에 써내려가기로 했다. 이 책의 논리구성에 사용한 실험결과나 관련된 지식은 인지과학이나 발달심리학의 전문가가 보면, 너무 당연한 사실이나 이해나 사용법에 초보적인 실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것은 사회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있는 고유의 능력을 어떤 문맥에서 이해하고 활용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읽어주길 바란다.

이 책을 쓰면서 염두에 두었던 독자는, 자신의 아이에 대한 양육에 골머리를 알을 젊은 아버지나 어머니들과, 전국각지에서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여하며 고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었다. 또 설명 중에 곳곳에 간결히 하기 위해 '아버지', '어머니'라고만 쓴 곳이 있는데, 각각의 역할을 고정화시키는 것을 의도해서 쓴 것이 아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물론 요즘의 아동에 대한 지도에 쩔쩔매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도 읽기를 바란다. 이 책에는 아동들의 불가해한 행동에 어쩔 바를 모르는

15) 역자주 : 여자의 속옷이나 비디오를 파는 가게

어른의 한사람으로써 아동을 이해하기 위해 도움되는 많은 힌트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의미로는 이 책을 가장 읽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청소년들이다. 이 책 안에는 젊은 사람이 듣기 거북한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따위 책 내가 왜 읽어?'라고 내던지지 말고 듣기 싫은 이야기도 포함해 이 책 전부를 읽은 후 자신을 상대화하는 수단으로 써주면 감사하겠다. 자신을 상대화한다는 것은, 지금의 자신을 남의 눈으로 다시 바라본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보고 만약 이 책에서 지적한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점 중에서 자신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궤도 수정하는 노력을 해준다면 더 기쁘겠다. 뭐니뭐니해도 결국 앞으로의 사회는 청소년들이 주역이 되어 사회를 운영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을 확실히 자각하여 양질의 사회력을 갖춘 어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1966년에 설립된 이래 지역에 있어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노력해 온 사단법인 '청소년육성국민회의'는 지금 전국적으로 '어른이 변하면 아이도 변한다'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어른이 변한다'는 이미지는 여러 가지이겠지만 변한 이후의 새로운 어른상이 이 책에서 제안한 기대되는 어른상과 같게 되길 바란다. 전국 각 도시민회의 및 전국 약2400에 달하는 시정촌(市町村) 민회의하에 여러 가지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에서 전개한 이론을 잘 이해하여 육성활동을 계속해가게 되면, 오늘날 어른의 세계에도 아동의 세계에도 공통해서 보이는 폐색적인 상황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책 한 권을 다 쓰고 새삼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청소년들을 잘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들을 향해 그들의 태도를 책하고 그들의 행동에 노해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방향을 향해 걸으면서 참을성있게 키워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가 이 책에 담은 메시지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어른들에게 확실히 전해지기를 바란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신쇼(新書)편집부의 栃原寛씨의 후의

에 의한 것이다. 기획에서 원고집필, 그리고 교정까지, 그 사이에 여러 배려를 해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리고 싶다. 내용에 대한 주문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한 몇 가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어, 그것에 마음이 뺏기다보니 그만큼 언급을 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지금은 이 책을 가지고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

1999년 11월

門脇厚司

참 고 문 헌

青木信人(1992),『「感情」をなくす子どもたち』: 青弓社.

朝日新聞社會部編(1984),『子ども新時代』: 朝日新聞社.

あしたの日本を創る協會編(1989),『ハンドブック・子どものための地域づくり』: 晶文社.

遊びの價値と安全を考える會編(1989),『もっと自由な遊び場を』: 大月書店.

安達生恒(1974),『"むら" と人間の崩壞』: 三一書房.

池上嘉彦(1978),『意味の世界』: 日本放送出版協會.

井上健治(1979),『子どもの發達と環境』: 東京大學出版會.

井上健治・久保ゆかり編(1997),『子どもの社會的發達』: 東京大學出版會.

岩佐京子(1997),『テレビが幼兒をダメにする=‥』: コスモトウーワン.

浦達也(1987),『言葉はどこまで屆いているか』: PHP研究所.

NHK世論調査部編(1986),『日本の若者』: 日本放送出版協會.

大庭健(1989),『他者とは誰のことか』: 勤葦書房.

大村玲子(1994),『子どもの聲はずむまち』: ぎょうせい.

岡本夏木(1982),『子どもとことば』: 岩波書店.

岡本夏木(1985),『ことばと發達』: 岩波書店.

奥野卓司(1990),『パソコン少年のコスモロジー』: 筑摩書房.

小此木啓吾(1987),『家庭のない家族の時代』: 筑摩書房.

門脇厚司編(1975),『許なき者たち』: 人間の科學社.

門脇厚司(1992),『子供と若者の(異界)』: 東洋館出版社.

門脇厚司・宮臺眞司編(1995),『異界を生きる少年少女』: 東洋館出版社.

金子晴勇(1992),『人間の內なる社會』: 創文社.

川本三郎(1984),『都市の感受性』: 筑摩書房.

川本三郎(1985),『感覺の變容』: 文藝春秋.

如月小春(1987),『都市民族の芝居小屋』: 筑摩書房.

岸裕司(1999),『學校を基地に－お父さんのまちづくり』: 太郎次郎社.
熊谷高幸(1991),『自閉症の謎・こころの謎』: ミネルヴァ書房.
熊谷高幸(1993),『自閉症からのメッセージ』: 講談社.
小嶋秀夫編(1989),『乳幼兒の社會的世界』: 有斐閣.
子どもの遊びと街研究會編(1984),『三世代遊び場圖鑑』: 子どもの遊びと街研究會.
榊原洋一(1995),『ヒトの發達とは何か』: 筑摩書房.
佐倉統(1997),『進化論の挑戰』: 角川書店.
櫻井哲夫(1985),『ことばを失った若者たち』: 講談社.
佐藤學(1995),『學び1その死と再生』: 太郎次郎社.
揮口俊之(1996),『腦と心の進化論』: 日本評論社.
鹽倉裕(1999),『引きこもる若者たち』: ビレッジセンター出版局.
下候信輔(1999),『(意識) とは何だろうか』: 講談社.
總務廳靑少年對策本部(1987),『日本の父親と子供』.
總務廳靑少年對策本部(1995),『子供と家庭に關する國際比較調査報告書』.
園原太郎(1979),『子どもの心と發達』: 岩波書店.
高野淸純・川島一夫編(1991),『圖でよむ心理學・發達』: 福村出版.
高橋勝・下山田裕彦編(1995),『子どもの(暮らし) の社會史』: 川島書店.
高橋道子・藤崎眞知代・仲眞紀子・野田幸江(1999), 『子どもの發達心理學』: 福村出版.
田島信元・西野泰廣・矢澤圭介編(1985),『子どもの發達心理學』: 福村出版.
豊田充(1994),『葬式ごつこ一八年後の證言』: 風雅書房.
中澤正夫(1997),『フツーの子の行方』: 三五館.
中島梓(1991),『コミュニケーション不全症候群』: 筑摩書房.
中島誠・岡本夏木・村井潤一(1999),『ことばと認知の發達』: 東音大學出版會.
野田正彰(1988),『漂白される子供たち』: 情報センター出版局.
野村庄吾(1980),『乳幼兒の世界』: 岩波書店.
野呂重雄(1987),『悲しい子ども』: 一ツ橋書房.

服部祥子・原田正文(1991),『乳幼兒の心身發達と環境』: 名古屋大學出版會.
羽根木プレイパークの會編(1982),『冒險遊び場がやってきた』: 晶文社.
浜田壽美男(1993),『個立の風景』: ミネルヴァ書房.
浜田壽美男・山口俊郎(1984),『子どもの生活世界のはじまり』: ミネルヴァ書房.
原ひろ子(1979),『子どもの文化人類學』: 晶文社.
繁多進・青柳肇・田島信元・矢澤圭介編(1991),『社會性の發達心理學』: 福村出版.
日野啓三(1988),『都市という新しい自然』: 讀賣新聞社.
深谷昌志・門脇厚司(1984),『青少年文化』: 放送大學教育振興會.
藤竹曉(1985),『テレビメディアの社會力』: 有斐閣.
藤永保(1995),『發達環境學へのいざない』: 新曜社.
藤永保・齊賀久敬・春日喬・內田伸子(1987),『人間發達と初期環境』: 有斐閣.
每日新聞社編(1981),『內申書・偏差値の秘密』: 每日新聞社.
正高信男(1995),『0歲兒がことばを獲得するとき』: 中央公論社.
正高信男(1995),『ヒトはなぜ子育てに惱むのか』: 講談社.
町澤靜夫(1999),『自己中心が子どもを壞す』: 日本經濟新聞社.
三澤直子(1998),『殺意をえがく子どもたち』: 學陽書房.
村崎芙蓉子(1987),『カイワレ族の偏差値日記』: 鎌倉書房.
養老孟司(1996),『考えるヒト』: 筑摩書房.
吉田昇・門脇厚司・兒島和人(1978),『現代靑年の意識と行動』: 日本放送出版協會.
A・ハートウッド(1973),『都市の遊び場』大村慶一・大村埠子譯: 鹿島出版會.
A・ベンソン(1974),『新しい遊び場』大村慶一・大村埠子譯: 鹿島出版會.
A・モンタギユー、F・メイトソン (1986),『「非人開化」の時代』中野收譯: TBSブリタニカ.
C・W・ミルズ(1965),『社會學的想像力』鈴木廣譯: 紀伊國屋書店.

G・ジンメル(1966),『社會學の根本問題』阿閉吉男譯：社會思想社.
G・H・ミード(1973),『精神・自我・社會』稻葉三千男他譯：青木書店.
1・クルター(1998),『心の社會的構成』西阪仰譯：新曜社.
J・メレール、E・デュプー(1997),『赤ちゃんは知っている』加藤晴久・增茂和男譯：藤原書店.
P・L・バーガー、T・ルックマン (1977),『日常世界の構成』山口節郎譯：新曜社.
R・ライマー (1995),『隔絶された少女の記錄』片山陽子譯：晶文社.
W・デニス (1991),『子どもの知的發達と環境』三谷惠一譯：福村出版.

저자 소개

가토와키 아쯔시(門脇厚司)
1940년 중국 청도시에서 출생(야마가타현 출신)
1970년 동경교육대학 대학원 교육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전공 - 교육사회학, 청소년문화론
현재 쯔꾸바여자대학 학장
저서 『현대인의 출세관』(일본경제신문사), 『놀이의 考現學』(성문당신광사), 『어린이와 젊은이의 異界』(동양관 출판사),
공저 『어른의 조건-사회력을 묻는다-』(이와나미신쇼), 『현대청년의 의식과 행동』(일본방송출판협회), 『현대 사회학』(문교서원), 『일본교원사회사』(동신당), 『고등학교의 사회사』(동신당), 『고등학교의 사회학』(동신당) 등

역자 소개

김득영 kdy8021@hanmail.net

1956년 전남 신안군 출생

1995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교육학 박사)

전공- 교육사회학, 평생학습, 일본평생학습추진정책

현재- 일본기후한국교육원장

역서 『평생학습마을만들기론』(대전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선진국의 학교교육』(도서출판 한결), 『한계없는 학습』(양서원)

논문 「일본평생교육정책변천에 관한 연구」, 「일본 평생교육체계화에 관한 연구」, 『군포시 평생학습도시 기본구상』(공동연구), 「지역단위 평생교육체제 구축 방안연구」(공동연구), 「주5일제근무제 대비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활성화 방안」(공동연구), 「생애단계별 평생교육 실태조사 분석 및 평생교육기초 통계자료 확보 방안 연구」(공동연구) 등 다수.

박현정

1970년 부산시 출생

2004년 나고대학 대학원 교육발달과학연구과 박사전기과정 수학중

전공 교육심리학 · 사회심리학

논문 「개인규범 및 친구 또래집단 규범에 대한 의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

< 비매품 >

아동 · 청소년의 사회화

인 쇄 2004년 7월 일
발 행 2004년 7월 일

발 행 처 :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 행 인 : 권 이 종
등 록 :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 중앙인쇄사
전화 02) 736-2866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 89-7816-510-9 (93330)